

동산반야회 2대 법주 법산 스님
출재가 지계 철저할 때
한국불교 미래 밝아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10월 1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967호 2013년 11월 20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 <숫타니파타>

마음이 침체되서는 안된다.
많은 것을 생각지 말고 걸림 없으라.
깨끗한 행동을 의지처로 삼아라.

조계종 내년 예산 446억원 확정

중앙종회 만장일치로… 포교원 기금 법령 제정키로

세계화 사업 1억 원 편성
전산·지적 재산권 홍보 등
종단 기반 사업에도 반영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내년도 예산이 446억 원으로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는 11월 13일 제196차 정기회에서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조정하고 일반회계 235억 3천만 원, 특별회계 211억 5천만 원을 만장일치로 예산을 확정했다.

이 액수는 총무원이 제시한 예산안보다 4억여 원이 줄어든 것으로 통상 5%로 올렸던 예비비가 과대책정돼 지적받음에 따라 조정된 것이다.

특별회계에는 시설관리에 62억 2천만 원이 교육불사에 40억 4천만 원, 신도교무에 5억 1천만 원, 승려복지에 25억 8천만 원 등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종회의원들은 포교원에 포교기금 설치를 위한 법령을 제정해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포교원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서를 받아 예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세입 예산은 전반적으로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3~6%가량 상승했다. 다만 신도교무금은 특별회계 잔액 감소로 인해 일반회계 전입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포교원의 신도교무금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지출을 줄여 적립하도록 조치했다. 조계종 출판사는 사업 추진비 확보를 위해 이익배당금에서 종단 전입금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감액했다.

세출 예산에 따른 사업들을 살펴보면 기획실의 통합전산망 개발 사업이다. 2억 5천만원이 반영된 통합전산망 사업은 지식 검색 엔진을 탑재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총무부의 경우에는 종교인 과세에 따라 교역직 스님들의 4대 보험과 건강검진비가 추가됐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사업에 1억 원이 편성됐다. 내년에도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자승 스님의 해외방문이 이뤄질 경우 대상 지역은 중앙아시아가 될 공산이 크다. 실제 올해 호주를 방문했던 자승 스님은 차기 총무원장에 당선됐을 경우 중앙아시아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국불교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문화부의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보호 부분에 780여 만 원이 편성됐다. 문화부는 지적재산권 보호 홍보 및 사례집 발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교원은 포교인력육성 및 관리를 위한 선명상지도사와 효예지도관리사 자격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한 연구 예산도 일부 편성됐다.

청소년을 비롯해 청년, 군인 등 계층 포교의 축제로 자리매김한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나란다 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의 지원 예산을 배정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중앙종회 제196차 정기회는 종법 제개정안을 비롯해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 관리위원 등 인사안 △종무행정 감사 △종무보고 △종책질의 △국정원 선거 개입 엄중 수사 촉구 결의문 채택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단축해 폐회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기사 2면

불교계, 필리핀 재난 구호 '앞장'

조계종, 12~17일 선발대 급파·모금 진행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1월 12일 현지 선발대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노덕현 기자

불교계가 슈퍼 태풍 하이옌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필리핀의 구호와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곳은 조계종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가장 먼저 애도문을 발표하고 현지에 구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선발대를 급파했다.

조계종은 11월 11일 기획실장 일감 스님 명의로 발표한 애도문에서 "이번 태풍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며 "희생자 유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필리핀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애도했다.

이어 "필리핀 타클로반 지역의 선교사 가족을 포함한 실종자 모든 분들이 무사 귀환하고 더 이상의 희생과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면서 "조계종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살피어 희생자와 수재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세계 각 국가와 구호단체가 한마음이 돼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빠른 시일 내 복구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긴급재난구호봉사단 파견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 구호와 피해 복구에 힘을 더하기로 결의했으며, 이를 위해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선발대를 현지에 급파하고 상황을 살폈다.

애도문 발표…동참 호소
로터스월드 등 모금활동

또한 조계종은 1차로 긴급 구호기금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전국 사찰과 불자를 대상으로 구호기금 모금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익기부재단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은 기부 사이트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서도 구호기금을 모금 중이다.

천태종 역시 전국 순회법회를 열고 필리핀 돕기 모금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국내 불교계 국제구호개발 NGO 단체들도 필리핀 지원에 동참 중이다. 로터스월드는 12일부터 30일까지 모금활동에 들어갔으며, 월드머시코리아는 1000만원의 모금을 지원키로 협의했다.

JTS는 11월 12일 현지조사팀을 파견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구호 후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필리핀을 강타한 슈퍼 태풍 '하이옌'으로 인해 중부지방에서만 1만 2천여 명의 사망과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한인 10명도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일 기자

"간절한 자만이 견성할 수 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동안거 결제 법어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11월 17일 불기 2557년 동안거 결제를 맞아 수좌들에게 용맹정진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렸다.

진제 스님은 법어에서 "금생에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어느 생에 견성법을 만나겠느냐"며 "정법의 인연을 간절하게 세운 자만이 견성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니 각자 화두를 성성하게 챙겨 일념으로 지속되게끔 혼신의 노력을 다하라"고 말했다.

이어 "크게 죽었다가 크게 살아나는 경지를 얻어야 대장부의 활개를 치게 된다"며 "공부인이 이러한 경지를 얻지 못할 것 같으면 부처님의 참 진리와는 십만 팔천 리 밖에서 헤매이게 됨이니, 석 달 안거 동안에

11월 17일부터 3개월 정진
1백여 선원서 2천 수좌 참여

생사를 떼어놓고 부단히 참구하라"고 강조했다.

11월17일 입재하는 계사년 동안거에는 2100여명의 수좌스님들이 100여 선원에 방부를 들이고 3개월간 정진한다. 수좌스님들은 11월 16일 저녁 결제대중이 모인 가운데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龍象榜)을 작성하고, 17일 오전 10시 결제법회를 갖고 참선정진에 들어갔다.

한편, 안거는 동절기 3개월(음력 10월15일부터 차년도 1월15일까지)과 하절기 3개월(음력 4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씩 전국의 스님들이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수행에 전념하는 것으로, 출가수행자들이 일정한 기간 한 곳에 모여 외출을 삼가하고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신중일 기자

방장 법어 8면

'수륙재' 무형문화재 된다

삼화사·진관사 보유단체

문화재청은 '수륙재'를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삼화사국행수륙대재보존회, 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 백운사아랫녘수륙재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했다.

수륙재는 온 천지와 수륙에 존재하는 모든 고혼의 천도를 위해 지내는 의례이다. 개인 천도 성격을 띤 영산재에 비해 공익성이 두드러진다고 평가된다. 조선초기부터 국행수륙재로서 대규모로 설행돼 온 사실이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문헌에 나타나 그 역사성이 인정됐다.

동해 삼화사는 조선전기 국행수륙재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고혼 천도의 수륙재 전통을 가진 사찰이며, 의식과 범패, 장엄 등을 아울러 전승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3월에도 동해 삼화사와 서울 진관사 수륙재의 중요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을 예고했지만 조사위원 제척 사유 등이 지적돼 철회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은 중창 이래 처음으로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740명이 수계를 받았다.

"계율 청정하면 깨달음의 광명 빛나리라"

천태종, 11월 10일 구인사서 신도 대상 첫 수계법회

천태종이 중창 이래 처음으로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총무원장 도정)은 11월 10일 충북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총본산 구인사 금강계단 신도 수계산림 대법회'를 열었다.

이날 종정 도용 스님은 법어를 통해 "계는 저 맑은 연못과 같아 아름다운 연꽃 피워 내리니 계율을 청정하게 받아 지니면 깨달음의 광명이 빛나리라. 해탈을 이루는 길 계의 향기 으뜸이라. 간곡하게 일러주신 그 말씀을 잘 따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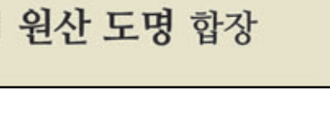
이번 수계산림 대법회는 구인사 안거 12회 이상 성만한 신도 중 각 지역 법회에서 모범이 되는 신행활동을 펼치는 청신사 144명, 청신녀 596명 등 총 7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법회에서 안태영 · 송정은 씨가 수계자 대표로 부처님 전에 헌화와 헌향 했고, 유문두 불자가 수계자 대표로 3사 칠증사 전에 헌향 정례했다.

이날 수계를 받은 김옥분 불자는 "살아가면서 오늘 부처님전에 다짐한 오계를 성실히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단양 구인사= 김주일 기자

967호 INDEX

시방세계 5
지구촌공생회 10주년, 해외 지원 현장



종합 2·3
대각회 중진 스님, "법인법 반대"
조계종 교육교역직 연찬회
대장경 축전 의미와 성과
김도읍 의원 청화 스님 폄하 '물의'

신행 6
재가자 동안거 수행 열풍

복지 7 7
더프라미스 이색 구호 캠페인 눈길



화엄의 세계

그 구법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모아 禪, 敎, 律의
큰 스승들을 모시고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
그리고 선재동자의 금강과 같은 구법의 마음을 배우고
이 공덕으로 일체 유정과 무정들이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는 화엄산림을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 입 재 2013.12.03 (화)
· 회 향 2013.12.31 (화)
· 장 소 통도사 설법전

※ 매주 일요일마다 천도재를 지냅니다.

■ 회 비 영 가 동 참 비 : 1위당 이만원
온산림 동참금 : 이십만원
반산림 동참금 : 십만원

■ 문 의 처 통도사 종무소 ☎ 055)382-7182
통도사 화엄전 ☎ 055)381-1288

■ 교 통 편 부산지역 온천장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08:00~09:00)
울산지역 공설운동장 (07:30) → 학성공원 (07:35) → 우정지하차도 (07:40) → 구)고속터미널 (07:50) → 공업R (08:05) → 무거R (08:15) → 통도사
대중교통 부산노포동 종합터미널,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동대구 성남고속터미널
승 용 차 경부고속도로 통도 IC 통과 후 통도사로 진입



불지종가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 도명 합장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지금 자유롭지 않다면
언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그 기회는 매우 희귀함을 알라.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르마를 수행하는 것이 너무도 좋아. 그러나 당분간은 불가능해. 왜냐하면, 첫째로 나는 가정을 돌봐야 하고, 그들의 미래를 준비해줘야만 해."

그러나 지금, 아직 인간의 몸을 지녔을 때, 당신은 다르마를 따를 자유와 동기가 있습니다. 왜 미루십니까? 당신은 보다 나은 조건이 다음 생에 올 것이라 확신하시나요? 그때가지는 아마도 당신은 완전히 윤회계의 고통에 잡혀 있거나, 삼악도에 예속돼 괴로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몇 개월 혹은 몇 년을 그냥 보내 버린다면 잔혹한 윤회계의 굴레를 벗어나는 기회를 허비할 겁니다.

연회가 벌어져 맛난 음식이 당신에게 제공됐을 때 그것을 맛있게 먹으세요. 달마의 시계가 정오를 알리는 종을 쳤습니다. 지나가 버리기 전에 기회를 잡으십시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활발한 종책질의, 달라진 조계종 중앙종회

조계종 중앙종회가 달라졌다. 입법기구이면서 중앙종무기관의 견체처인 본래의 모습을 찾은 듯한 모습이다.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조계종 중앙종회 제196회 정기회는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이후 처음 열린 종회였기 때문에 운영 방식과 내용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종회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기존의 무기력했던 종무보고와 종책질의가 아닌 활발하고 날선 의원들의 종책질의였다.

특히 중앙종회의원 법안 스님(종회 부의장)은 주지 미임명 사찰 현황과 직할 교구 활성화 방안을 질의하며 종단의 허술한 관리 체계를 꼬집었다.

법안 스님의 질의를 통해 총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주지 품신이 올라오는 않는 공찰은 56곳, 사설사암 474곳이었으며, 포교소도 50곳으로 총 580곳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지만 조계종 총무부는 제29조 사찰법에 의해 관리 대상 사찰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법안 스님은 "조계종에 등록된 사찰은 2400곳이다. 이중 20%에 달하는 주지 미품신 사찰이 580곳에 이르는 것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며 "사찰 관리 모법(母法)인 사찰법은 완벽하게 규정돼 있다. 당해부서와 교구가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안 스님은 직할교구가 교구제 변화의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직할교구 관리는 현재 국장 1명과 직원 4명이 하고 있다. 제대로 된 민원해결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직할교구를 독립시켜 자기 완결 구조를 가지게 하고 최종적으로 분구시켜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영담 스님은 공개 서면질의를 통해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 아름다운 동행 · 조계종 출판사의 부실한 예산 집행과 재정 관리에 대해 질의해 눈길을 끌었다.

종무보고에서는 일회성 이벤트 행사에 치중된 포교 종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조계종 사찰 중 580곳
주지 미임명…관리 허술
동행 등 재정 문제 제기
이벤트성 포교 행사 지적

불교광장 · 3자연대 대립각
잇달은 참회 발언도 눈길

법안 스님은 "포교원은 이벤트 행사만 한다. 제대로 교구본사에서 학생 포교를 하는지 일요법회를 하는지 종책 전반을 살뜰히 살펴야 한다"며 "위에서 종책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보급해도 아무리해도 안되는 것은 교구를 살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들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충고했다.

신도 조직 포교에 대해 원학 스님은 "포교는 모든 종도들의 관심사다. 여러 포교 방법이 있겠지만 조직 포교가 중요하다. 중앙-교구-말사로 이어지는 탄탄한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일선 사찰 스님들의 포교 마인드가 변화할 수 있도록 포교원 스스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종법 장치를 종회에 올려야 한다. 현재 포교원은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제 196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종회는 날선 종책질의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일문 스님은 "더 이상 교구 신도회 조직을 구성하는 데에는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는 조계종 신도 조직 정책에 대한 변화를 도모할 시기다. 이에 대한 논의를 포교원 차원에서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활발한 종책질의가 이어졌지만 인사안과 의사일정 변경 등 몇몇 사안에서는 불교광장과 3자연대의 대립이 나타났다. 하지만 감정적 대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적지 않았던 점은 문제였다.

실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에서는 난상토론 끝에 표결로 결정이 났으며, 인사안에서도 대립이 이어져 조정되지 못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종회의원 스님들의 잇달은 참회도 이번 종회의 변화였다. 회기 기간 중 왕왕 문제를 일으켰던 스님들은 일반적으로 여론의 비판에도 모르쇠로 일관했었지만, 이번 종회에서는 발 빠르게 참회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 중앙종회는 비판과 견제라는 제 역할을 한 회기였다. 이 같은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승가대학 표준교육과정 변화 이렇게

조계종 교육원, 19일 동국대서 연찬회
교육 교역자들 제언 통해 방향 모색

"기본교육과정에 범망경보살계, 사미율의, 식차마나니계 등 구체적인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다."

"경전이나 고서들이 한문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한문 문장구조론 등의 지침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계종 사찰승가대학의 표준교육과정에 대한 교역자 스님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1월 9일 동국대에서 '2013년 사찰승가대학 교육교역자 연찬회'를 열고 표준교육과정의 보완점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승가대학장과 학감, 교수, 교수아사리 등 60여명의 교육교역자 스님들은 이날 연찬회에서 다양한 발전 방안들을 내놨다.

승가대학 표준교육과정 중 '강의수 및 필수 · 선택과목'에 대해 교육 교역자 스님들은 "초기불교 이해와 초기불전이나 선학개론과 간화선의 이해 등 비슷한 과목은 중복되니 통합해야 한다", "교과목이 다양해 교재비가 많이 들기에 종단에서 학인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됐다.

'교과목의 학년별 배치'에 대해서는 "1학년 2학기 '율장과 대승계'는 무거운 계율과목으로 '개율학개론'으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1학년 1학기에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2학년 1학기의 '종단과 현대윤리'를 3학년에서 가르쳐야 한다" 등의 제언이 이어졌다.

연찬회에 앞서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표준교과과정 개편은 스님으로서 기본을 갖추는 교육인만큼 종단적으로도 승가대학 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현장 경험을 반영한 점들을 기탄없이 제시해 주시면 논의하여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향후 교육원은 연찬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전체 기본교육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적용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해 내년도 교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연찬회에는 송광사승가대학장 도암, 동화사승가대학장 양관, 봉녕사승가대학장 도혜, 동학사승가대학장 행오, 청암사승가대학장 지형, 운문사승가대학장 흥륜 스님 등 학장과 학감, 교수스님 44명과 교수아사리 16명이 참석했다.

신중일 기자

참여불교재가연대 '조계종 선거법' 심포지엄

참여불교재가연대는 11월 28일 조계종 '선거법'의 변화 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불교의 현대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는 재가연대는 두 번째 순서로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우리함께빌딩 2층 만해만해NGO교육센터 대교육장에서 '계율의 현대화: 대중공사와 조계종 선거법' 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재가연대는 앞서 지난 6월에는 '첨단과학기술의 지혜로운 소비' 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법응스님과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 김형남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재가연대는 "심포지엄은 종법과 선거법의 변화 방향을 연구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Chinese as Second Language

남경대학한국캠퍼스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중의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3년 12월 27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 경 중 의 약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청화 스님 모독한 김도읍 의원 사퇴하라

실천승가회, 13일 성명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청화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고문)에 대해 '전향하지 않은 간첩 · 빨치산 묘역을 조성했다' 등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11월 13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중 청화 스님에 대해 "경기 파주 보광사에 전향하지 않은 간첩, 빨치산 묘역을 조성한 분이 어떻게 주요 공안기관에 대한 특검을 주장할 수 있는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등이 국회에 혁명의 교두보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발언했다.

이에 실천승가회는 김도읍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구와 함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실천승가회는 "청화 스님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교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극한 분노와 함께 김도읍 의원이 이번 일의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혜숙 기자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11일 관음사 30차 회의서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차기 회장에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1월 11일 제주 관음사에서 열린 30차 회의에서 차기 회장에 돈관 스님(은해사 주지)를 선출하고, 부회장에는 우송 스님(신흥사 주지)과 진우 스님(백양사 주지)을 각각 선출했다. 또 총무간사는 성효 스님(관음사 주지), 재무간사는 원경 스님(마곡사 주지)이 선임됐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교구본사주지회의'와는 다른 친목단체이다. 교구본사주지협은 이날 회의에서 차기 회장단 선출과 관련해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25개 교구본사주지 스님 가운데 18명이 참석했다. 회장단 임기는 2014년 1월 1일부터 1년이다.

신중일 기자

선학원 이어 대각회까지… 법인법 암초 만나다

대각회 분원장 회의서 "법인법 반대" 결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조계종 법인법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선학원에 이어 대각회도 법인법 수용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타종단 사찰이 포함돼 있는 선학원과는 달리 대각회의 경우 구성원 모두가 조계종이며 적지 않는 스님들이 중진으로서 일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대각회의 반대는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단법인 대각회(이사장 도업)는 11월 13일 서울 목동 법안정사에서 열린 '분원장 중진스님 비상대책회의'에서 "조계종과의 법인법 문제와 관련해 대각회 재단의 고유권한을 지켜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한다"며 △조계종이 제정한 '법인법'을 반대한다 △조계종은 대각회와 2000년 합의한 내용을 준수하라 △분원장 회의 결의내용을 대각회 이사회는 적극 수용하라고 결의했다.

회의에 앞서 시행한 서면 찬반 질의에서도 총 179개 사찰 중 146개 사찰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각회 스님들의 강도 높은 발언이 쏟아졌다. 대각회 사설사암운영위원장 자우 스님은 "우리들의 의사는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 · 재정 · 행정권을 포기하고 들어오라는 것인데 이는 을사보호조약과 다를 바 없다"며 "특히 인사권이 지금과 천양지차다. 교부금 또한 지금과는 달리 종단 측에서 올리라는 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179곳 사찰 중 146곳 반대

일부 분원장 독립운영 주장

선학원과의 협상도 '평행선'

기존 법인 내년 6월까지 등록

"무조건 반대는 수용 어려워"

부산 광명사 도신 스님은 "오히려 조계종은 왜 재가자, 또는 조계종 스님들이 대각회나 선학원, 심지어 타종단에 사찰을 등록하는지 이유를 되짚어야 한다"며 "종단에 등록시 창건주 권한이 축소되고 심지어 사찰을 잃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조계종 대각회 분원장 스님들은 11월 13일 법안정사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법인법 반대를 결의했다.

법인법에 대한 성토는 재단의 독립 운영으로까지 확대됐다. 부산 지역의 한 스님은 "대각회 이사회의 3분의 1을 조계종단 측 이사로 채우라는 것은 결국 재단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대각회 내에서 강원 · 선방을 다 만들 수 있다. 종단 지원을 받지 않아도 학교 또한 보낼 수 있다"고 독립운영을 주장했다.

이 같은 회의결과에 대해 대각회 이사장 도업 스님은 "법인법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종단이 합의 시까지 예외조항을 두거나 연기해주길 건의한다"며 "분원장 비상대책회의의 결의 내용을 토대로 이사회를 거쳐 대각회 전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각회의 '법인법 수용 불가'의 파장이 주목되는 것은 법인법과 관련해 선학원과의 갈등 역시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선학원은 법인법 제정 당시부터 반대를 천명해왔고, 그 입장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도제 교육과 수계 등 향후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부산 금정사를 선학원 교육 · 수계도량으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입장이 워낙 강경하다보니 조계종 중앙종회와 집행부가 참여한 선학원대책위원회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현재 법인법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상황. 기존 법인들은 내년 6월까지 법인법에 따라 종단등록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실질적 법 시행은 내년 6월이고, 제대로 시행조차 하지 않은 법을 법인들의 입장에 따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무원 관계자는 "시행과 공포 전 법인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수용할 부분은 수용했다"면서 "법인법의 반대 의견이 대부분 '하지말라'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근거를 들어 요구해야 하는데 제대로 시행도 않고 반대 의견만 피력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무원은 법에 따라 행정을 시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중일 · 노덕현 기자

불교문화 우수성 알린 대장경축전

10일 폐막식…관람객 200만 명 · 경제효과 4천억 원

2013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 경남 지역을 넘어 '국민축제'로 자리잡았다.

경상남도와 합천군, 해인사 공동 주최로 9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열린 대장경축전은 당초 목표로 세웠던 목표관람객 160만 명을 훨씬 초과해 200만 명이상이 대회장을 찾아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5만 명이상이 다녀갔다.

무엇보다 대장경축전은 경상남도와 합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4천억 원 이상 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축전장과 해인사 일대의 숙박업소, 음식점과 인접 지역인 경북 고령군과 성주군도 때 아닌 특수를 맞기도 했다.

축전 관계자는 "직접적인 경제효과보다는 대장경축전을 통해 얻어지는 경상남도와 합천군의 브랜드 가치 상승, 합천군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 축적 등 보이지 않는 비경제적인 효과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돈으로 환산 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대장경축전은 또 학생들의 역사, 체험 학습을 위한 교육의 장과 학생들의 가을 소풍 장소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조직위는 가족단위 방문이나 개별 방문 등을 포함한 학생 관람객 수가 3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학생들 체험학습장으로 각광

외국인 관광객도 5만명 찾아

누구나 즐기는 국민축제 확인

학생들과 가족단위 관광객들로 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써 손색이 없고 대장경빛소리관에서 펼쳐지는 5D원형입체영상. 대장경의 역사와 의미 등을 현대적인 영상기술을 활용하여 초중고 학생들에 친숙하게 꾸며진 콘텐츠와 인경, 판각 등의 19개의 체험프로그램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장경빛소리관에 몰린 인파. 5D원형입체영상을 통해서는 대장경의 역사와 의미를 살필 수 있었다.

반면 열악한 도로 사정, 숙박시설 · 편의시설 부족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축전장에서부터 해인사 입구까지 6km 구간의 왕복 2차선과 주차시설을 감안한 축전장 부근의 주차시설 확충과 승용 차량 진입을 제한, 셔틀버스 운행 확대로 교통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상규 영산대 관광컨벤션학과 교수는 "대장경축전은 대장경이라는 문화원형을 가지고 축전을 펼친다는 측면에서 특색있는 축제"라며 "앞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호텔 등 숙박시설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제주 보현사 매각 사태 해결 기미 보이나

관음사 12일 승인 취소 요청

제주 관음사(주지 성효)가 11월 12일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에 보현사 이전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196회 정기회는 종책질의에서 제주 관음사 말사 보현사의 토지매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재무부장 보경 스님은 장명 스님의 보현사 매각 관련 질의에 대해 "보현사 문제는 화쟁위원회가 참여하는 3자가 합의하지 않을 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재무부의 입장"이라며 "오늘 오후 관음사에서 보현사 이전 승인 취소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음사 교구 일부 재적승들이 제주 보현사 매각 추진과 관련해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등 · 법응 · 승언스님 등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진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우리는 향후 진행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들은 이날 '의견'을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화쟁위원회에 전달했다.

신중일 기자

봉 축

용암사 오백나한 봉안 원만 회향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온 시방삼세에 두루 고합니다



한 송이 두 송이 용암사 도량에 피는 꽃, 한번 피면 지지않는 우담바라와 같이 사바세계에 두루하여 어두운 마음을 빛나게 하소서…
나투소서! 나투소서! 오백성중님이시여!

죽비소리 한번울려 사마외도 잠이들고 죽비소리 두번울려 모든 중생 눈을 뜨네,
부처님의 높은 법문 그윽히 메아리치는 용암사 죽비소리 오늘도 멈출 수 없네…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대다라니 108편. 독송 천일기도 접수합니다

오백나한도량 용마산 용암사

주지 관 오

신도회장 정진심 후원회장 법인월

수선회장 대법장 합장

龍馬山 龍巖寺

서울 광진구 중곡4동 176-42 ☎ 02)446-1571



일 주 문



탄허기념박물관 개관 3주년 법회

탄허기념박물관 관장 혜거 스님은 11월 23일 탄허기념박물관에서 개관 3주년 기념법회 및 수륙대재를 개최한다.



청양군 미혼남녀 짝 찾기의 날 개최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11월 17일 청양군 미혼남 20명과 대성사 인연맺기 여성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짝찾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동국대 · 자제대학 학술교류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11월 13일 대만 자제공덕회 산하 대학인 자제대학과 학술교류 협약을 맺었다.



티베트 청소년들에 장학금 기부

김재웅 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 대표는 11월 14일 티베트난민 가정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금 500만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했다.

동련 3대 이사장에 성행 스님



동련 제3대 이사장에 의왕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이 취임한다. 현재 성행 스님은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전법단 초대 단장 및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제8대 회장을 맡고 있다. 취임식은 11월 30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리며 임기는 3년이다. 성행 스님은 "주력사업으로 어린이 포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출범한 청소년 법인 '예그리나' 활동을 강화하고 시대흐름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인권상에 밀양 송전탑반대위 선정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지원 한상범) · 불교인권상심사위원회(위원장 법산)는 2013년 11월 13일 제19회 불교인권상에 밀양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를 선정했다.

불교 인권위는 "삶의 터전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지구의 미래와 후손들의 생명을 위해 온몸을 불태우는 어르신들의 숭고한 뜻을 높이 사, 지난 10여 년 동안 국가와 한국전력의 횡포에 맞서 힘겨운 생존권투쟁을 벌이고 있는 밀양 송전탑대책위원회를 제19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11월 20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 불교인권위원회 창립23주년 기념법회와 함께 열린다. **정혜숙 기자**

〈부고〉 최정희 현대불교신문사 편집이사 모친상

최정희 현대불교신문사 편집이사 모친 김상림 여사께서 11월 15일 오전 7시 별세했다. 발인은 11월 17일 오전 7시에 치뤄졌다.

"교육적 니즈 찾는 공격적 전략 강구중"

제 6대 위덕대 총장에 취임한 김정기 신임 총장



2~3년내 도약 못하면 존폐 위기
중장기 발전 2020 프로젝트 마련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적극 참여

"다가오는 2018년에는 고교졸업자가 대학입학정원보다 적어지는 등 신입생 유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학입학생들이 부족해지면 지역 대학들은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지경에 처합니다. 저희 위덕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앞으로 2~3년 내에 중위권 대학으로 치고 올라서지 못하면 존폐의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 핵심적인 대학교육지표를 끌어 올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와 니즈(Needs)를 찾아가는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전략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진각종립 위덕대 제 6대 총장으로 취임한 김정기 총장은 11월 13일 서울 수송동 모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덕대가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강한 위기감을 느껴 비효율적인 학사구조와 교육과정, 그리고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총장은 대학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대학 특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여기서 최소한 2개 이상을 수주하는 것이 우선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총장은 위덕대 혁신방안으로 현재 올 연말까지 (가칭)중장기발전 2020을 계획중이다. 이 계획안에는 서남수 前 총장이 진행하던 2016 대학특성화대책을 개선한 것이다.

김 총장은 "2016계획은 포항 · 경주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자동차 · 철강 · 에너지 특성화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추진하는 '중장기발전 2020'에는 현실에 맞게 위덕대가 타 대학보다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털어놨다.

이외에도 김 총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역사회 성인학습자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마련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지방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비전에 대한 질문에 김 총장은 "현 정부의 교육부 정책은 대학구조조정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동시에 대학 특성화,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과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추이를 종합해 보면 우리 대학이 반드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 규모가 작기 때문에 더 유연하게 대학생태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역사회와 잘 연계한다면 대학간 경쟁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자신에 찬 어조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장은 "위덕대는 진각종이 설립한 종립대학으로서 정체성 부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당대종사의 '진리탐구' '인격도야' '이타자리'를 건학이념으로 해서 설립한 대학인 만큼 지역사회 중심에 서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사랑 받으면서, 학부모들이 마음 편히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는 대학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고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김정기 총장은?

1956년 경북 영천출생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사범대학을 나와 행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교육부 총무과장, 경상북도 교육청 부교육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자치심의관, 교육복지심의관, 교육인적자원 연수원장, 평생학습국장, 교육과학기술부 차관보, 선문대학교 부총장을 거쳤으며,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실 교육비서관,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새로운 정진의 길, 전법에 더욱 나설 것"

열린선원 법현 스님, 11월 10일 금동삼존불 점안법회 봉행



삼존불 점안법회에서는 이재오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들의 축사와 불교와의 인연담이 소개됐다. 사진 우측 상단에 보이는 불상들이 이날 점안된 삼존불.

서울 은평구 재래시장인 역촌중앙시장에 자리잡은 저자거리 수행전법도량 열린선원(원장 법현)은 11월 10일 석가모니불 · 관세음보살 · 지장보살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원로 원법 스님, 율사 수진스님, 조계종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 등 50여 스님들과 김우영 은평구청장, 이재오 국회의원, 김미경 서울시의원 등 200여 대중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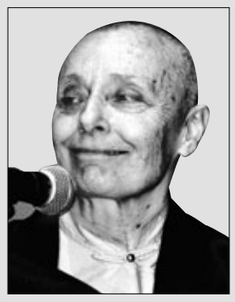
열린선원은 그동안 삼존불을 모시고 있었으나 한 포교원 운영자가 불보살님을 다른 곳에 양도하게 된 사연을 접하고 열린선원 원장 법현 스님이 원력을 내 새로 모시게 됐다.점안법회는 제1부 복장 점안의식과 제2부 불상점안 의식 및 헌공 그리고 제3부 봉안법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법현 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저자거리에서 더욱 더 열심히 수행 · 전법하겠다며 새로운 포교원력을 다졌다. 법현 스님은 인사말에서 "새로운 정진의 길로 이끄시는 부처님이 이 도량에 나투시게 된 것 같아 삼존불을 모셨다. 저자거리에서 더욱 더 열심히 수행 · 전법하겠다"고 말했다.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은 축사로 "늘 저자거리에서 수행과 전법하는 법현 스님은 부루나의 후예로서 태고종을 넘어 한국불교의 큰 사표"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육바라밀 실천, 정신근육 단련"

첫 서양인 비구니 텐진 빠모 스님 초청법회



"이 세상을 헬스클럽으로 보라. 운동 기계들은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 힘들게 디자인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육바라밀을 통해 정신적 근육을 단련시켜나가면 된다."

첫 서양인 비구니 텐진 빠모 스님이 1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법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를 주제로 열린 법회였다.

텐진 스님은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묻는다"며 살고 죽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여기에 집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이날 법문의 주요 골자는 내적으로 충실한 삶이 후회없는 인생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영적 수행을 일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육바라밀의 실천이라는 것이었다.

스님은 "육바라밀은 삶에서 풍부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며 "가령 보시는 손을 여는 것이고 이는 곧 마음을 연다는 뜻이다. 세상에 다가가는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라고 했다.

'잘살고 잘죽는 법 논하다'
인욕바라밀 통해 내적 성장 중요
보시 통해 마음열고 세상에 다가가
바라밀 실천은 후회없는 인생 기본

이어 "정진 또한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매순간 기쁜 마음으로 자신에게 서 나오는 부정적 태도를 긍정적 태도로 바꾸는 것이 곧 수행이다. 인격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는 흠없고 청정한 불성이 있으므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마음을 넓혀가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청정한 불성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인욕을 이야기하면서도 "인욕바라밀을 닦는 장소는 가정과 사회, 모두의 일상이다. 때문에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릴 것이 아니라 문제가 닥쳤어도 매순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한다"고 청중들을 격려했다.

법회 내내 스님은 "부처를 이루는 방법은 명상 수행과 지혜 닦기에 있지 않다. 여러 면이 모여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처럼 바라밀의 실천이 더해질 때 진정한 붓다의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라밀의 실천을 강조했다.

스님은 "생각, 의견, 감정, 경험을 기반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어떤 것도 당신을 대표하지 못한다. 변하지 않고 탄탄하게 지속되는 나 또한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걸 알기 바란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텐진 빠모 스님은 영하 35도로 내려가는 히말라야 설산에서 12년간 치열하게 수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는 여성 수행자를 위한 돈규 가찰 링 사원을 설립하여 티베트 불교에서 비구니 전통을 되살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05년 달라이라마에 의해 '6인의 서양 비구니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2008년에는 티베트 여성 수행자 최고 지위인 제쭌마 지위를 받기도 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 부회장 정덕 스님, 부회장 겸 운무사 주지인 일진 스님, 샤카디타 코리아 상임공동대표 본각 스님, 조계종 전 문화부장 효탄 스님, 재무부장 보경 스님과 원불교 교무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배현진 기자**

진로 · 적성 · 상담 안내

C.A.C 분석서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상 담 료 : 20만원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73-2. 1층
〈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상담사 겸재 정 비오 (010-5524-7053)
〈지부〉 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36 2층 (다솜)
상담사 박 홍언 (010-7925-4749)

인재 양성



◇프로필 :
- 명리철학교육학 석사
- 미래예측학 박사
- 미래전략교육학 교수

◇ 동방대문화교육원 수업 [목]
(오후 2시 ~ 5시)

◇ 국제문화대학원 수업 [토]
(오전 10시 ~ 오후 2시)

◇ 저서 : 규명 (1. 2. 3권 : 한솜미디어)
실전성명학 - 상원문화사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3개월 과정

◈ 수업일 : 매주 화 · 금요일(오후 5시 ~ 7시)

오시는길 ➔ 1호선 수원역 하차 ➔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규명철학연구소 1층 **010-5418-5972**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5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12월 5일까지

◆ 개강일시 : 2013년 12월 6일(금요일) 개강
매주 (화 ·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월주 스님이 뜨랑빼야뜨라우금산사 초등학교에 세워진 로프펌프식 우물을 돌리고 있다.


지구촌공생회 투어단 40여 명이 학교에 들어서자 지역주민과 학생 등 500여 명이 박수로 환영했다.

"10년 급수공덕으로 20만 명 목마름 해소"

지구촌공생회 창립10돌…우물 2000기 완공 및 기념행사

2004년 생명의 우물사업 본격 활동
캄보디아 5개주 우물 2090기 완공
케냐, 미얀마 등 20만명에 급수공덕
"우물 사후관리 지속해 나갈 것"

이른 아침, 버스를 타고 마을로 향했다.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가끔씩 차가 들썩였고, 흙먼지를 일으켰다. 오전 7시였음에도 햇빛은 강렬하고 더웠지만, 주민들은 바쁘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다. 손님을 맞기 위해 가게를 정리하는 상인, 오토바이를 타고 일터로 가는 사람들, 슬리퍼를 신고 등교하는 학생들 까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도착한 곳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2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따께오주(州)에 위치한 마을 초등학교 정문 앞. 하얀 교복을 입고 양쪽에 일렬로 늘어선 어린이들이 태극기와 캄보디아 국기를 들고 흔들며 지구촌공생회 투어단을 환영했다.

캄보디아는 메콩강과 톤레삽 호수 등 물이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은 귀한 나라다. 캄보디아는 비옥한 농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수도 프놈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상수도 시설이 전무하다. 캄보디아 영아 사망률의 80%가 물과 관련된 수인성 질환일 정도로 식수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이곳 캄보디아에 우물 2090기를 지었다. 2003년 설립된 이후 2004년 캄보디아에 해외지부를 처음 개설해 빈민지역 보건위생사업과 생명의 우물사업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루어낸 성과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지구촌공생회는 11월 12일 2000번째 우물이 있는 뜨랑빼야뜨라우금산사 초등학교에서 '생명의 우물 2000기 완공식'을 거행했다. 이 초등학교는 지구촌공생회가 캄보디아에 지은 7개의 교육시설 가운데 하나로, 월주 스님이 불제자로서 60년 세월의 대부분을 함께해온 금산사에서 후원했다.

오전 9시경 지구촌공생회 투어단 40여 명이 학교에 들어서자 지역주민과 학생 등 500여 명이 박수로 환영했다.

완공식에는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 지구촌공생회 이사 평상 스님과 원행 스님, 남고사 주지 원혜 스님, 지구촌공생회 사무처장 화평 스님, 서원노인복지관장 보연 스님, 상주사 주지 도연 스님,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 회장을 비롯해 지구촌공생회 후원가족과 우썩찌으 바티군 부 군수, 응안 사리 바티군 경찰서장, 은만 바티군 교육부 부장, 온 반나 뜨랑빼야뜨라우금산사 초등학교 교장 등 현지인 관계자 1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현지 스님의 축복 의례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및 월주 스님을 비롯한 현지 관계자들의 축사로 진행됐다.

월주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2090기가 건립되는 동안 358기를 지원해준 코이카(KOICA)를 비롯해 환경재단, 지구촌공생회 미국서부지부, 김백호 금산사 신도회장 등 총 1005명의 후원자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 다투어 동참해 주었다. 13억여원의 비용을 들여, 16만 여명이 물로 인한 고통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지인 관계자 우썩찌으 바티 부군수는 "예전 캄보디아에는 집, 학교, 가게, 문화 등 모든 것이 없었다. 우리는 평화와 개발이 필요했고, 그때 지구촌 공생회가 우물을 건립해 캄보디아 국민을 돕기 시작했다. 바티군에 우물을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월주 스님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 100가구에 쌀을, 뜨랑빼야뜨라우금산사 초등학교 500여 학생들에게는 학용품과 속옷 등을 전달했다.

지구촌공생회가 10년간 국제구호사업을 진행 할 수 있던 것은 후원자들의 도움이 컸다. 이번 기념식에는 꾸준히 지구촌공생회에 후원해온 후원자들도 함께했다.

부친이 남겨준 유산 가운데 5천만원을 지구촌공생회에 쾌척한 마경완(48、여)씨는 "그동안 내가 후원한 금액이 사업에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했는데, 뜻 깊은 곳에 쓰이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니 좋았다"며 "앞으로 꾸준히 후원을 할 것이며, 지인들에게도 후원을 권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구촌공생회는 "캄보디아지부 개설을 발판으로 한 생명의 우물사업은 케냐, 몽골, 미얀마로 확대돼 20여 만 명에게 급수공덕을 쌓아왔다"며 "현재 우물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지난해부터 수질관리 및 수량관리에 초점을 맞춘 사후관리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캄보디아나 호텔에서 '지구촌공생회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지구촌공생회 후원가족 및 스터디투어단과 현지 내빈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월주 스님 대회사, 국내 인사 및 현지 정부 관계자들의 축사를 비롯해 월주 스님과 캄보디아 승왕 테퐁 스님과의 캄보디아 신규학교 건립 협약식이 이어졌다.

테퐁 스님은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지구촌 공생회의 최근 10년간 지원 사업들은 캄보디아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민들의 빈곤율 감소 전략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원해 줄 월주 스님과 지구촌공생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해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월주 스님은 지구촌공생회 우물사업에 도움을 준 우물업자 3명과 건축업자 1명에게 감사패를, 현지직원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2012년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자이면서 '2010 CNN선정 올해의 영웅'으로 알려진 캄보디아에서 지뢰제거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키라씨에게 3만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월주 스님은 "앞으로도 캄보디아에서는 우물 사후관리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코이카와 함께 지뢰 없는 공생평화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테퐁 스님의 열망을 담아 2015년에 새로운 초등학교를 건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따께오주=이나은 기자


신규학교 건립 협약식을 맺은 월주 스님(왼쪽)과 테퐁 스님.

"더 많은 빈곤국가와 함께 할 것"

이사장 월주 스님 인터뷰

월주 스님은 국제개발협력사업분야에서 강행군을 하기로 유명하다. 팔순의 고령에도 1년에 7~8회 해외지부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곳곳을 누비며 점검하며 젊은 활동가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월주 스님은 "국가와 민족, 인종과 언어, 종교와 문화, 이념과 사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차별하지 않고 돕는 것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의무다"고 설명한다.

또한 월주 스님은 10주년을 맞이한 지구촌공생회가 1만 1천명의 후원자와 함께하는 중견단체로 성장할

"중견단체로의 성장은 정부·기업·후원자 덕분"

수 있었던 것을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후원자들의 공으로 돌렸다.

스님은 "불자 여러분을 비롯해 종교를 초월해 자비와 사랑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 주신 후원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해준 200여 활동가와 임직원들의 노고도 잊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구촌공생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빈곤국가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모든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 '귀일심원 요익중생(歸一心源 饒益衆生)' 즉, 마음의 본래 바탕자리로 돌아가 진리를 깨닫고, 자비를 실천해 중생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고자 했던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구촌공생회 10년간의 발자취

2003~2005년
- 2003.10.30 조계종 前 총무원장 월주 스님 발의로 창립
- 2004.2.27 지구촌공생회 사단법인 보건복지부 인가
- 3월 캄보디아 해외지부 개설
- 11월 캄보디아 '생명의 우물' 건립 사업 시작/ 라오스 해외지부 개설
- 지구촌공생회 최초 교육지원시설 라오스 던눈 공생 유치원 개원
- 2005.01 인도, 스리랑카 지진해일 피해지역 복구사업 진행
- 5월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빈민가정 결연사업 및 연해주 민족학교 교육지원
- 6월 몽골 해외지부 개설/ 대형관정 및 마을공동우물 개발 시작, 총 13기건립

2006~2008년
- 2006.02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캄보디아 최초 교육지원시설 크나이 공생초등학교 개교
- 7월 인도네시아 지진피해지역 긴급구호 및 유치원 4곳 건립
- 8월 스리랑카 쓰나미 난민지원센터 건립
- 10월 지구촌공생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NGO등록
- 2007.01 코이카 민간단체지원 '캄보디아 마을 공동 우물 사업' 선정
- 4월 케냐 해외지부 개설
- 12월 부설 공생노인복지센터 설치 신고
- 2008.08 미얀마&네팔 해외지부 개설 나르기스 태풍 피해 긴급구호

2009~2011년
- 2009.01 케냐 키세리안 핸드펌프 1호기 건립
- 4월 케냐 빈곤 해결을 위한 소득증대 지역개발사업 시작
- 9월 미얀마 최초 교육지원 시설 예팅공 공생 중학교 개교
- 2010.01 캄보디아 '생명의 우물 1000기' 완공
- 8월 네팔 최초의 교육지원사업 스리시데솔 공립학교 신축
- 11월 미얀마 최초 식수지원 파욱쉐핀 마을 물탱크 1호기 완공
- 2011.04 케냐 최초 교육지원 시설 엔요뇨르 영화 초등학교 준공
- 11월 이사장 월주 스님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2012~2013년
- 2012.01 라오스 공생 청소년센터 개관
- 8월 이사장 월주 스님 제16회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
- 2013.01 캄보디아 지뢰제거연대(CSHD)와 지뢰제거사업 협약
- 4월 케냐 인키니 농장 및 민세 저수지 개장
- 6월 이사장 월주 스님 미얀마 최고 작위 '샤따마 조디까다자' 수훈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수험생·예비수험생 위한 힐링 프로그램

대불청 · 불교문화사업단, 콘서트 · 템플스테이 마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한 힐링콘서트와 템플스테이가 마련된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은 11월 28일 저녁 7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홍보관에서 '수험생을 위한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

서정적인 음악의 중창단 L.M.B. 싱어즈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음악을,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이 막바지 가을을 느끼게 해 줄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박범신의 소설 '소금'을 주제로 한 작은 Book 콘서트도 열린다.

대한불교청년회는 "대불청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는 힐링콘서트와 함께 작은선물도 함께 증정할 계획"이라며 "마음으로 떠나는 다양한 템플스테이도 함께 안내하고 있어 관심있는 수험생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수험생과 예비고3을 위한 프로그램도 각 사찰에서 마련한다.

충북 법주사에서는 12월 7~8일 수험생을 대상으로 '그냥 다 괜찮아' 템플스테이를 연다.

뮤직 테라피와 마음나누기, 긍정명상, 자연에게 말 걸기 등 입시기간 동안 지친 심신을 다독이는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천년고찰 법주사의 아름다운 모습과 자연풍광 또한 입시기간을 함께 이겨낸 가족과 친구 등 고마운 이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기에 충분하다.

강원도 백담사는 12월 21~22일 예비수험생을 대상으로 '알림 · 누림 · 다림'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입시를 앞두고 긴장하기 쉬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맥놀이, 설악산 포행, 희망 안테나 세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는 단계별 체험시간이 진행된다.

템플스테이는 11월 15일 부터 사찰별로 수험생 · 예비수험생 30명과 동반자 1인에 한해 선착순 접수를 받으며, 동반한 1인에 한해 참가비를 지원한다. 참가 신청은 대상에 따라 충북 법주사(043-544-5656)와 강원도 백담사(033-462-5035)로 전화 또는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나은 기자

군종교구, 11월 29일 '군승의 날' 개최

통도사 일산포교당 여래사에서 '군포교 도약 모색'

조계종 군종교구가 군승파송 45주년을 맞아 군포교의 새로운 도약을 서원하는 기념식을 개최한다.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11월 29일 2시 통도사 일산포교당 여래사에서 제45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군승의날은 지난 1968년 권기종 동국대 명예교수 등 5명이 처음 육군 군종장교로 임관한 날을 기념해 제정됐다.

육 · 해 · 공군 포교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역 군승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군승의날 기념법회는 오전 10시 군승포살법회와 순직군승 합동추모재로 시작한다. 낮 12시 오찬에 이어 오후 2시 기념법회에서는 군포교의 현재를 담은 동영상 시청,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의 봉행사 등이 이어진다.

군종교구는 군승회의를 함께 열고 군포교 현장에서 겪는 각종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11월 5일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해 해병대 6여단 백령도 흑룡사 법사에게 업무용 승합차와 해병대사령부 장병들을 위한 초코파이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해병6여단 흑룡사에 전달된 차량은 서울 도선사가 지난 9월 16일 군종교구에 지정기탁한 지원금 3000만원으로 마련됐다.

노덕현 기자

공불련, 12월 7일 11차 사회봉사의 날 열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인)는 12월 7일 경기도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불자 공무원 회원들과 가족들이 참여하는 '11차 사회봉사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공불련 사회봉사의 날은 불자로서 공무원 가족들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공불련 회원과 가족들은 이날 복지관 내방객을 위한 점심 배식 봉사와 설거지 등으로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오전 10시 30분부터 경로식당에서 배식을 진행하며 5명이 팀을 이뤄 30분씩 설거지를 진행한다.

공불련은 "연말 술자리보다는 보살행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동안거 수행으로 '나'를 이기자

전국 시민선방 및 사찰, 재가자 동안거 결제



2012년 천태종 구인사에서 열린 여름 재가안거 모습. 동안거를 맞아 다양한 재가안거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부산 해운정사, 구인사 12월 3일부터 1월 2일까지

안양 한마음선원 오전·오후반 눈길

11월 15일(음력 10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음력 1월 15일)까지는 동안거 결제기간이다. 3개월 동안 스님들이 한 곳에 모여 참선 정진하는 이 기간에 도심 사찰과 시민선원 등 수행단체에서는 재가자들을 위한 동안거 정진을 실시하고 있다.

스님 못지않은 용맹정진에 나서는 재가불자들은 3개월간 속세의 때에 찌든 번뇌를 잊고 자신과 싸우며 참 '나' 찾기에 나서고 있다.

재가자 안거의 효시는 해방 후 전강 스님이 개설한 인천 용화선원에서 비롯된다. 송담 스님이 그 뒤를 이어 매년 1백여 보살들이 계절 안거에 동참하고 있다. 용화선원은 11월 17일 동안거 결제 및 백일기도 입제법회를 열고 수행의 의지를 다지며 백일정진에 들어갔다.

부산 해운정사는 1972년부터 철마다 100여명의 재가자가 안거를 지내고 있다. 재가자와 스님을 같은 선원에서 정진시킨 향곡 스님의 가풍을 이어받아 전법제자이자 현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직접 선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해운정사는 "대중과 함께 정진함으로써 게으름을 물리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도반을 보고 신심과 용맹심을 낼 수 있다"며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늘 참구하시고, 형편이 되는 분은 겨울 석달 간 '만사를 제쳐두고 이 일을 밝혀보겠다' 고 신심을 내어 안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는 53년간 끊임없이 계속돼 온 1개월 안거 원칙에 따라 12월 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동안거를 실시, 1500여명이 동참하는 결제에 들어간다.

구인사 및 전국 말사에서 안거에 동참하고 있으며, 안거 기간 동안 구인사에서 정진한 재가 불자에 한해 이수증이 발급되고 있다.

구인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안거 이수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매 안거 때마다 총본산 구인사에서의 이수자는 1500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전국 각 말사에서도 많은 종도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도 참 불교의 실천으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용맹 정진하는 생활불교로서 안거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길상사와 목동 국제선센터는 11월 17일 동안거 입제식을 열고 90일 관음기도에 들어갔으며, 1978년 혜암 스님(前 조계종 종정)이 해인사에 주석한 뒤 개설한 **원당암 재가선원**에도 150여 재가자들이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수행정진에 들어가는 곳들도 있다.

서울 선릉역 부근에 위치한 **보림선원 서울선방**은 연휴기간을 기해 동계 1주일 철야정진을 실시하며, **동국대 국제선센터**는 2014년 1월 4~10일, 2월 18~24일 '간화선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국제선센터 참가자들은 수불 스님의 화두법문으로 입제를 시작해 6박 7일간 개별적으로 참선 정진에 들어가며, 수불 스님이 직접 화두점검을 하게 된다. 동국대 국제선센터는 간화선 수행의 진흥을 위해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 참가자에게 '간화선진흥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안양 한마음선원**은 동안거 기간 동안 오전 · 오후로 나누어 정진에 들어갔다. 4층 강당에서 실시 중이며 오전반은 아침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오후반은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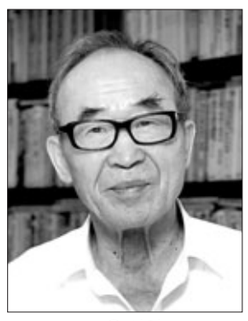
이처럼 전국 사찰과 선원에서 동안거 정진을 시행하고 있지만, 안거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올바른 수행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정승석 동국대 교수는 "안거를 단순한 의례적 행사나 상징적 전통으로만 생각한다면 옳지 않다. 수도자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필요불가결의 관행"이라며, "그 동안 느슨해졌을 수도 있는 청정생활을 가장 엄격하고 철저하게 실시하는 기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안거에 들지 못하는 재가자에게 스님들은 "매순간 생활 속에서 정진하면서 진정한 해제를 기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성철 스님' 주제 강연회… 고은, 박세일, 공종원 강사로

백련불교문화재단 주최, 11월 27일 부산일보 강당서



고은 시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공종원
前 조선일보 논설위원

성철 스님 열반 20주기를 맞아 선지식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명사 초청 강연회가 열린다.

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문학, 정치,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겨온 불자 명사들을 초청해 우리 시대를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고은 시인과 박세일, 공종원 씨 등의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은 시인은 11월 27일 오후 2시 부산일보 강당에서 '선시에서의 성철 게송'을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한다. 성철 스님이 남긴 '출가송' '오도송' '열반송' 등을 선시의 관점에서 풀어줄 예정이다.

고은 시인은 18세의 나이로 출가하여 정진하던 중 1958년 〈현대시〉, 〈현대문학〉 등에 추천되어 문단활동을 시작한 후, 현재 150여권에 이르는 저서를 남겼다. 만해문학상, 대산문학상, 노르웨이 뵨슨문학훈장, 캐나다 그리핀공로상 등 국내외 문학상을 다수 수상한 대표적 문인이다. 고은 시인은 본지 창간 연재소설 〈수미산〉을 연재했으며 창간 논설위원도 지냈다.

한편 12월 4일 오후 2시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공종원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초청한 강연회가 이어진다.

박세일 이사장은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며, 공종원씨는 '성철 스님을 통해 본 한국불교의 개혁운동'을 주제로 현재 한국불교에 대한 반성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세일 이사장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17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21세기 대한민국 선진화 4대전략〉 〈대한민국 국가전략〉 〈대한민국 세계화전략 창조적 세계화론〉 〈대한민국 국가전략〉 〈21세기 대한민국의 꿈 위대한 선진, 행복한 통일〉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다.

공종원씨는 불교언론인회 회장,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고 〈문화한국 누가 망치나〉, 〈벼랑 끝에 몰린 노인〉, 〈언론인이 쓴 스님이야기〉 등을 출판한 바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시대의 흐름에 따른 최고 유망 전문자격증! 직업능력 개발원 등록 NO.2008-0538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위한 특별과정

■ **주관 및 시행** : 한국심리상담협회
■ **수험자료제공** : 한빛자격교육원「부설심리상담교육원」
■ **시 행 일 정** : 2013년 **12월 14일**(토요일) 오후 2:00～4:00
■ **시 험 장 소**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춘천, 제주, 기타「전국 동시실시」
■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구분	시험과목	출제문항	합격기준
1차 시험	ƒ'심리학개론 ƒ'임상심리학 ƒ'이상심리학 ƒ'교육심리학	각 과목당 25문항 (총 100문항)	1, 2차 동시 시행 (절대평가)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2차 시험	ƒ'심리상담 및 진단실무	단답형 및 O, X형 (20문항)	

☞종교지도자(스님)에게는 5% 가산점이 인정되며 합격 후 직무연수 교육은 재택으로도 가능합니다.

■ **등록대상** : **스님 및 불교관련 업무자로 심리상담사 1급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분**

현대사회는 물질문명이 풍부해지면서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에 관련된 문제가 아동이나 청소년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부부, 직장문제, 가정문제, 노인문제는 물론 **종교단체(사찰, 교회)등에서도 가정사역, 치유사역 등 상담과 관련 된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이 크게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고 이에 심리상담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및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종교 지도자님 및 종교관련 분야 업무자들에게 크게 부합되는 자격증이라 사료됩니다.** 「합격을 위한 특수문제 별도 제공해 드립니다」

심리상담사 자격취득 등록문의 **한빛 자격교육원 02)547-5346**

통신판매 NO. 제2012-서울광진-0873호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 창 원 055-243-6333 / 호 남 063-288-5623 /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 울 산 052-260-1037 / 충청북부 043-263-9966 /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내가 제작한 책이 어린이에게 꿈이 된다면

불교계 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조용한 책' 캠페인 눈길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미스가 진행하고 있는 '조용한 책' 캠페인 샘플〈사진 왼쪽〉과 지난해에 제작한 색칠공부 동화책 〈콩쥐 팥쥐〉를 보여주고 있는 미얀마 어린이들〈사진 오른쪽〉. 단순한 재정 투자가 아닌 교육교재 개발은 한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다.

펠트 소재 동화책 직접 만들어
'꿈' 주제… 창의력 교육에 효과
교육 통한 아이들 자존감 향상
미얀마 · 동티모르 어린이에 전달

한국불교는 현재 국제구호의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국제구호단체들이 잇달아 창립됐고, 활동 범위도 동남, 중앙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사업 영역은 대부분 기금 모연과 학교 건립 등 지원사업에 국한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온 가족이 참여해 동화책을 만들어 빈곤국가 어린이들에게 선물하는 이색 캠페인을 불교계 국제구호단체에서 처음 선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불교계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미스는 지난 10월부터 후원과 봉사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조용한 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종이가 아닌 펠트로 제작이 돼 소리가 나지 않는 책을 의미하는 '조용한 책' 은 글씨가 없어 책을 보는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프라미스에서 제작 기획한 '조용한 책' 은 'Dream a little Dream' 이라는 주제로 우주인, 요리사, 연예인, 운동선수 등 8개의 직업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인형놀이로 풀어내는 형식으로 꾸며졌다.

또한 국내 후원자가 키트를 구매함으로써 후원참여를 할 수 있으며 온 가족이 직접 만들고 메시지를 작성해 현지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더프라미스의 빈곤국가 어린이를 위한 책 제작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한국 대표 전래 동화 '콩쥐팥쥐' 와 두 친구의 아름다운 우정을 담은 '오성과 한음' 을 미얀마 어린이를 위한 책으로 묶어 냈다.

한국어와 미얀마어를 혼용한 이 책은 책 중간 중간마다 자신이 직접 색칠할 수 있게 해 아이들에게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게 한 것이 장점이다. 책 제작과 삽화는 전문 일러스트레이터 문신기 씨와 디스커버리 미디어 출판사의 유명종 사장이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국제구호단체들이 영어 동화책 구입해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더프라미스' 처럼 실질적 교육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직접 책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봉사활동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다.

신라호텔, 삼성SDI, 삼성물산, 국민은행, 인천공항공사 등 기업들의 단체 봉사활동이 줄을 잇고 있는 이유도 단순히 재원투자가 아닌 참여를 통한 지원에 취지를 공감하기 때문이다.

양혜운 더프라미스 행복나눔팀장은 "지난해 제작한 '한국전래동화' 키트는 색칠공부가 포함돼 아이들의 미술교육에 활용됐다. 현지 아이들에게도 호응도 매우 좋았다"면서 "이번 '조용한 책' 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직접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창의력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교육적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조용한 책' 캠페인은 시리즈로 진행될 것"이라며 "차기 주제는 '상상' 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용한 책' 캠페인은 1키트 당 3만원(봉사시간 4시간)에 판매하고 있으며, 수익금 전액은 미얀마와 동티모르 교육사업에 사용된다. 완성된 동화책은 선별하여 현지 어린이들에게 더프라미스 직원이 직접 전달하고 현지 사진은 홈페이지(thepromise.or.kr)에 실린다.

또한 더프라미스는 조용한 책 캠페인 외 동티모르 여성 및 여학생을 위한 파우치 만들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으며, 후원참여 봉사프로그램으로써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고령자취업 활성화 위한 취업포럼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 부설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는 11월 21일 오후 2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고령자취업 활성화 실천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고령자취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관련 전문가와 실천가가 한자리에 모여 현 고령자취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고령자취업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실천기관의 역할을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계 노인복지전문가의 주제 강연을 통해 노년기 일의 의미와 노인복지실천방향을 확인하고, 이어서 다른 고령자취업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실천 사례에 대한 발표 및 토의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을 주최하는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는 올해 급변하는 고령자취업시장과 다양한 경력을 갖춘 고령구직자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여러 사업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올해 신설된 '내일행복학교' 는 그동안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는 구직자들이 단순노무직종으로 내몰리는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고령자가 갖고 있는 경력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창의직업아카데미', '사회공헌아카데미', '직업전문아카데미', '창업아카데미' 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슨트부터 영상제작과정, 강사, 민생상담가, 문화해설사, 도슨트, 바리스타, 설문조사원, 사서도우미 양성까지 고령자가 만족하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신규 직종개발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이번 포럼은 이러한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의 사례를 공유하며 현 상황을 진단하고, 다가올 고령자 취업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노인복지실천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서로 조망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02)739-9501 **이나은 기자**

진각복지재단, 월곡복지관 위탁법인 선정

2016년까지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회정 정사)이 성북구립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으로 선정됐다.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은 성북구 오패산로16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015㎡,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하루 평균 7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진각복지재단은 임대아파트와 근접한 월곡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성을 살린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대아파트 세대관리사업 '우리 함께해요' 특화사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주민조직화사업,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각복지재단은 전국 40여개의 국내외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을 직영 · 수탁하고 있는 전국법인이다. **이나은 기자**

이주여성과 아동위한 교실 "날개를 펼치다"

꿈을이루는사람들 4월부터 운영…학생들에 인기



꿈을이루는사람들은 지난 4월부터 '날개 달아주기' 사업을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이 다문화 아동들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 '날개 달아주기' 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날개 달아주기' 는 2013년 여성가족부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에 선정된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부터 매월 2회 진행되고 있다.

꿈을이루는사람들은 "소외돼 있던 다문화 아동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주여성의 동반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아로마, 클레이, 한지공예, 예절 교육, 요리치료 등의 기회를 제공해 사회성과 자존감을 높이고, 부모와 아동이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통역원 송 모(42)씨는 "다문화 가정의 엄마와 아이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가 없었으나 이번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꿈을이루는사람들은 "향후 지역사회의 보호와 각종 교육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다문화 시대에 문화소통과 공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올바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싱겁게 먹고 건강 지키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저염식 체험의 날' 개최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주원인으로 알려진 짜게 먹는 습관을 개선하는 캠페인이 열렸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11월 14일 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금섭취 줄이기 캠페인' 을 진행했다.

종로보건소의 협조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나트륨 농도가 다른 5개의 콩나물국 시료를 맛보고, 참가자 자신이 느끼는 짠맛의 강도와 선호도를 측정하는 '미각검사' 를 실시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어르신들은 상담 후 스스로 저염식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김순자 어르신은 "영양사가 현재 내가 짜게 먹지 않는 편이라고 했다"고 자랑스러워하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싱겁게 먹는 것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사를 담당했던 종로보건소 영양사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처럼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복지관들이 '싱겁게 먹기 운동' 에 앞장서 준다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종로보건소의 협조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미각검사' 를 실시했다.

이 밖에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싱겁게 먹기' 운동의 일환으로 식탁 위 양념통 없애기, 당일메뉴 염도 공개, 1:1 영양상담, 영양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다. **이나은 기자**

본동종합복지관, '나눔인식캠페인' 실시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은 지역 나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나눔인식캠페인' 을 11월 4일 노량진역 앞 광장에서 동작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나눔인식캠페인' 은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 2013년 나눔이웃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동작구 지역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틈새계층 지원 및 나눔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나눔대장의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나눔실천가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인근 거점지역에서 사업에 대한 지역 내 관심 유도 및 나눔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지 배포, 나눔트리 · 나눔열매 맺기, 나눔서포터즈 서명활동을 하는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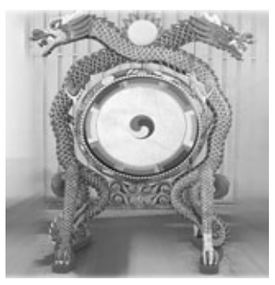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나눔실천가들이 나눔서포터즈 서명활동을 하고 있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및 참여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90일동안 삼학 잘 연마해 人天의 지도자 되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동화사 방장)

金風括地山野瘦〈금풍괄지산야수〉요
月落潭空水底靜〈월락담공수저정〉이라.
玉轉機轉笑呵呵〈옥전기전소가가〉요
直下相逢不相識〈직하상봉불상식〉이로다.

금풍이 땅을 쓸어버리니 산과 들이 야윔이요.
달이 못에 떨어지니 물 밑은 고요함이라.
옥을 굴리고 기틀을 굴리니 ‘하하!’ 라고 웃는지라.
직하에 서로 만나니 서로 알지 못함이로다.

금일은 계사년 동안거 결제일이라. 구십 일간 정진과 독경과 계율의 三學(삼학)을 잘 연마하여 人天(인천)의 지도자가 되게끔 노력할지어다.

금생에 이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어느 생에 見性法(견성법)을 만나리오. 과거생으로부터 부처님 전에 正法(정법)의 인연을 간절하게 세운 자만이 이 견성법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니, 각자 화두를 성성하게 챙겨 일념이 지속되게끔 혼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그래서 크게 죽었다가 크게 살아나는 경지를 얻어야사 大丈夫(대장부)의 활개를 치게 됨이니, 모든 수행자들이 화두를 들고 의심하고 의심하여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분별심이 재[灰]가 되어서, 아무리 불을 갖다 대어도 탈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됨이로다. 그러면 가도 가는 줄을 모르고 밥을 먹어도 먹는 줄을 모르는 경지에 도달하는데, 여기에서 홀연히 형상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됨이로다. 공부인이 이러한 경지를 얻지 못할 것 같으면 부처님의 참 진리와는 십만 팔천 리 밖에서 헤매이게 됨이니, 석 달 안거 동안에 생사를 떼어놓고 부단히 참구할지어다.

昔日(석일)에 麻谷(마곡)선사가 章敬(장경)선사를 방문하니 장경선사께서 禪床(선상)에서 좌선중이셨다. 마곡선사가 좌선상을 세 바퀴 돌고 주장자를 들어 땅에 탁 내리쳐꽂고 서 보이니, 장경선사께서



“옳고, 옳다!” 하시었다.

즉시에 南泉(남전)선사 처소로 가 종전과 같이 남전선사의 좌선상을 세 번을 돌고 주장자를 들어 탁 땅에 내리쳐꽂고 서 보이니, 남전선사께서는

“옳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 하시었다.

이에 마곡선사가

“장경선사는 옳고 옳타 하시거늘, 和尙(화상)은 어째서 옳지 못하다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남전선사께서 이르시기를

“장경은 옳음이나, 너는 옳지 못함이니라. 바람의 힘으로 구으른 바는 마침내 무너짐을 이룸이로다.” 하시었다.

그러니 마곡선사가 문득 가버렸다.

모든 대중은 세 분 선사의 문답처를 아시겠습니까?

산승이 이 세 분 선사님들의 擧楊處(거량처)를 일일이 점검하겠노라.

마곡선사가 장경선사께서 앉아계시는 선상을 세 바퀴 돌고 서서 주장자를 들어 땅에 탁 내리쳐꽂고 서 보임에 장경선사께서 ‘옳고, 옳다!’ 하셨는데,

산승은, 다시 장경선사의 좌선상을 한 번 돌고 나오리라.

남전선사의 坐禪床(좌선상)을 마곡선사가 세 번 돌고 서서 주장자를 들어 땅에 탁 내리쳐꽂고 서 보이니, 남전선사께서는 ‘옳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 하시었다. 이에 마곡선사가 ‘장경선사는 옳다 하였는데, 화상은 어째서 옳지 못하다 하십니까?’ 하니, 남전선사께서 ‘장경은 옳거니와 마곡은 옳지 못하다. 바람의 힘으로 구으른 바는 마침내 무너짐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이르시면,

산승은, 역시 좌선상을 한 번 돌고 가리라.

그러면 畢竟(필경)에 末后一句(말후일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颼颼淸風來未休〈불불청풍래미휴〉요,
山前松竹依然在〈산전송죽의연재〉로다.

불고 부는 맑은 바람은 쉼이 없음이요,
산 앞에 송죽들은 의연히 있음이로다.

“결제는 업을 짓지 않는 것”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법전 스님



태암보장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습니다.

“결제 기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에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발걸음 발걸음마다 진실한 땅을 밟는다.”

구순(九旬)안거 동안 온몸으로 돌아다니며 나타났다가 숨고, 거두었다가 펼치며, 종횡무진으로 잡았다가 놓아주고, 여기저기 구멍을 뚫고는 동쪽에서 솟았다가 서쪽으로 가라앉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이미 상근기로서 옮긴 발걸음마다 진실한 땅을 밟은 것입니다. **〈중략〉**

하지만 일주문 바깥을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평탄한 대로는 아닙니다. 앉은 자리에서 한 마디 언구(言句)를 옮길 때마다 그 앞에는 구덩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조사들이 던져놓은 뜻과 언구(言句) 마저도 때로는 함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선은 어떤 것 혹은 무언가에 의지해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화두를 붙들고 열심히 정진하는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식(識)으로도 분별할 수 없고 알음알이로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곧바로 종지(宗旨)를 잃어버립니다. 성문 연각 조차 어수선하게 만들고 십지보살마저 우왕좌왕하게 만듭니다. 말길로 표현할 방법이 끊어지고 마음으로 헤아릴 도리가 소멸하였기에 부처님이 성도하신 후 마가다국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만나지 않으셨고, 유마거사는 비야리성에서 입을 다물고 침묵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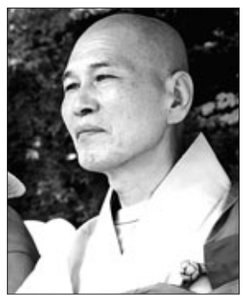
보보비신업(步步非身業)이요 성성비구업(聲聲非口業)이며 염염비의업(念念非意業)이라고 했습니다.

결제란 걸음마다 몸으로 업을 짓지 않는 것이며, 말마다 입으로 업을 짓지 않는 것이며, 망상으로 생각의 업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제 기간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고 묻는 납자에게 태암선사는 ‘발걸음마다 진실한 땅을 밟는다’ 고 하신 것입니다. 동안거 결제를 헛되게 보낼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 들고 있는 화두의 간절함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살무두공합장(菩薩無頭空合掌)하고
금강무각만장권(金剛無脚　張拳)이라
보살은 머리가 없어 공연히 합장만 하고
금강신장은 다리가 없어 넌지시 주먹만 펴보이네.

“목숨 바쳐 단 일년이라도 정진하라”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법상에 올라 주장자를 한번치고 말하되,

대중스님들의 지난 과거를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금 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결제해제를 얼마나 많이 겪어 오셨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 아득한 시절부터 일평생 수좌생활을 해온 수행의 장기성(長期性)이여!

많이 배우고 아는 것이 많아 상식과 지식정보가 얽혀 그 복잡성(複雜性)이여!

계속 공부해 왔지만 느슨한 공부라서 풀리지 않고 진척이 없는 그 난해성(難解性)과 강고성(强固性)이여!

미리 답을 알고서 정진해온 탓에 헤매임 뿐이었던 그 어리석음이여!

짧거나 긴 세월동안에 이 네 가지 어려움 속에 굴복하지 않은 자가 얼마나 되리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잘못 지내온 일들을 다 버리고 단 일년 만이라도 아니 금년 동안거 한철만이라도 열심히 공부합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 공부길이 있는데 왜 굳이 조사간화선 공부를 선택하셨습니까? 다른 길은 시원찮고 느슨하여 너무나 절박하여 이 공부를 위한 정진의 길을 택한 것이 참으로 살기위한 외길, 비상구라면 한번 몸을 던져 미쳐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불은 낙오자가 하는 것이며 율은 가면이 되기 쉽고 진언주력은 잡술이며 선사의 깨달음은 사기요 학생은 직장구함이 목적이 됐고 선생은 호구지책일 뿐이고 길고 짧은 어산소리 사주관상은 무당일이요. 나머지도 많지만 말해 무엇하리요.

이렇게 참선자는 전방위로 몸과 마음을 두리번거려서는 안 됩니다. 간화선자는 곧은 목지처럼 외길을 가야지 대사일번(大死一　)이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이것도 조금해보고 저것도 조금해보는 공부 바로위의 내용과 같이 간화선의 길과는 확연히 어긋납니다. 일체종지가 함께 열리는 무생법인의 확철대오와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도 안 되고 어려워서 이런 판 저런 장으로 기웃거리다가 결국 목하 무정법(無正法) 무정견(無正見)의 비빔밥 장사가 된 세상 아닙니까?

목숨 바쳐서라도 단 일년 만이라도 제대로 한길을 가며 정진 또 정진합시다. 환희의 미소가 있기를.

“생각이 보리심이면 곳곳이 극락세계”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화엄경’ 에 “탐진치를 한꺼번에 버리고 항상 불법승에 귀의하여 생각 생각이 보리심이면 곳곳이 극락세계이니라(頓捨貪瞋癡 常歸佛法僧 念念菩提心 處處安樂國)”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락세계를 이루기 위한 수행에 있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망상심의 출현이며, 이 망상이 항상 일어나는 까닭이 바로 삼독으로부터 기인이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헤아릴 수 없이 일어나는 나라고 하는 집착과 욕망 때문에 본마음, 즉 실상의 이치를 알아차리지 못해 진실을 보는 눈이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를 듣고 도를 깨닫는다고 하지만 도에 어찌 소리가 있겠으며, 색을 보고 마음을 밝힌다고 하나 마음에 어찌 색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수행납자들은 두 갈래로 나누어 헤아리는 분별심 또한 꺾어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두공부를 하면서도 화두를 마음으로 헤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알음알이가 병통으로 작용하여 깨침을 방해하는 것이니 깊이 인지하도록 해서 알음알이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알음알이의 마음을 가지고 수행한다면 바로 망상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하기에 오로지 수행자는 분별의 망상을 다 놓아버리고, 상선약수(上善若水)를 노래한 노자의 마음으로 무념무상(無念無想)의 상태에서 실상의 법칙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끝으로 산승이 결제대중을 위하여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번 동안거 동안 깨달음을 위해 몸과 마음을 놓아 버리는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으로 정진삼매를 지속해서 한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크게 죽어 다시 살아나는 사중득활(死中得活)의 순간, 곧 바로 화두타파의 대폭발을 일으켜서 대사일번건곤신(大死一番乾坤新)하기를 기원합니다.

미요심원도수춘(未了心源度數春)
번차부세만준순(　嗟浮世　逡巡)
기인득도공문리(幾人得道空門裡)
독아엄류재세진(獨我淹留在世塵)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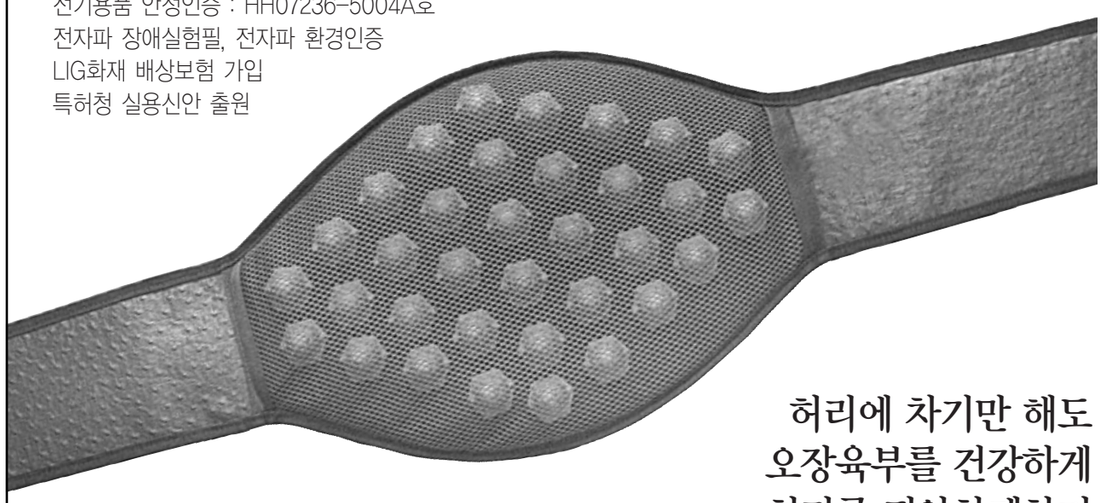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한국불교학회 40년, 새로운 결집 시작되다

11월 9일 40주년기념 학술대회… 100여 불교학자 모여

한국불교학회의 창립 4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학의 현황을 짚고 미래방향을 모색하는 불교학 결집대회가 열었다. 한국불교학회(학회장 김용표)는 11월 9일 동국대 문화관 학명세미나실 등 문화관에서 '결집, 한국불교학 40년, 그 연구성과와 과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40주년 기념식에는 김용표 한국불교학회 학회장을 비롯해, 권기종, 이평래, 김선근 등 한국불교학회 역대 회장들을 비롯해 최용춘 교불련 회장 등 100여 학자들이 모여 40주년의 의미와 한국불교의 발전에 대한 열의를 다졌다.

기념식에서 김용표 학회장은 "이번 40년을 맞아 현대 세계불교학의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한국불교학의 미래방향과 국제화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대회시작을 알렸다.

첫 한국불교학술상 시상…권오민 교수

이날 40주년 기념식에서는 40주년을 기념해 첫 한국불교학술상 시상이 진행됐다. 학술상은 권오민 경상대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권기종 한국불교학술상 선정위원장은 "권오민 교수의 〈상좌 슈리라타와 경량부〉는 한국불교학계의 독자적인 연구역량을 보여주는 역작"이라며 "1000페이지의 분량 속에 경량부에 대한 주제를 명쾌히 해석했다"고 평가했다.

권오민 박사는 "40년 동안 걸어온 길은 단순하다. 아비달마에서 구사론 등을 연구한 것"이라며 "아직까지 아비달마를 비롯해 많은 불교의 영역이 대중들이 접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남은 학자로서의 삶동안 이런 부분을 보다 본격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40주년 기념식에는 권기종, 이평래, 최용춘 교수 등 100여 학자들이 참석해 불교학 발전을 모색했다.

불교학 융합 등 미래연구 기대

원로학자 '한국만의 색채지녀야'

이날 자리에서는 불교학술원 소속 묘주스님이 한국불교학회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공로패를 받기도 했다.

원로학자 "우리사상 돌아보는 계기 되길"

기념식에 이어 학명세미나실에는 원로불교학자들과의 대화가 진행됐다. 원로불교학자로는 오형근 동국대 명예교수가 초청됐다.

오형근 교수는 후학들 앞에서 "한국불교학이 세계 속에서 널리 알려지기 위해 한국만의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그 시작은 한국선, 또 원효를 비롯한 한국고승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 교수는 특히 "원효대사는 불교사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위대한 사상가로 한국 선종의 효시"라며 "우리가 가진 보배를 돌아보지 않고 외부에서만 찾으려는 요즘 불교학계 풍토가 아쉽다"고 밝혔다.

또 1분과 인도남방불교 좌장으로는 김선근 동국대 명예교수, 2분과 응용불교 좌장으로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 3분과 중국 티베트불교 좌장으로 신규탁 연세대 교수, 4분과 한국일본불교 좌장으로 최효진 동명대 교수, 5분과 실천불교에 인덕원 성운스님 등을 위시로 다양한 학술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실천불교 분과에서는 불교여성과 사회과학, 복지분야와의 접합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불교사회학, 불교경제학, 불교행정학, 불교생태학 등 기존 불교사회과학 분야와 더불어 불교의학, 불교미디어 등 다양한 응용불교 분야로 연구가 확장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학제간 연구를 통해 학문적 기초를 만들어가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한국불교학회는 지난 1973년7월7일 고(故) 홍정식 교수를 초대회장으로 출범한 불교계의 대표 불교학술단체이다. 2006년 문화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으며, 매년 전국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매년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불교학〉는 67권 까지 나왔다. **노덕현 기자**

"사회문제 해결 위한 상생정신 확산하자"

11월 9일 씨튼연구원 20주년 심포지엄에서

종교간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한 종교의 사회기여를 추구해 온 '씨튼연구원'(원장 최현민 수녀)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하나뿐인 지구, 생태문제와 종교간 대화' 를 주제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미산 스님 등 100여 종교인들이 모여 종교화합과 상생정신의 확산을 다짐했다.

이날 최현민 원장은 "씨튼연구원이 2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종교인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축사를 통해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종교간 대화는 매우 소중한 과제"라며 "생태 보전을 비롯한 우리 시대 중대한 과제를 함께 살피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정신적 시대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제공하는 원천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희중 대주교 또한 "현재 자연파괴 등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위기상황은 개개인의 이득을 따지며 대안과 시기를 가늠할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모두가 절제와 희생을 바탕으로 한 삶의 양식을 통해 이 위기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생태운동 다시금 전개할 때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길희성 서강대 교수가 기조강연 '환경생태계 위기와 현대종교' 를 발제했으며 김종욱 동국대 교수의 '불교의 생태친화적 자연관' , 서울대연구원 심원 스님의 '불교의 생태학적 인관관' 등이 발표됐다.

김종욱 동국대 교수는 "생태계는 곧 법계로 생태계 파괴문제를 해결하는데 불교가 기여할 수 있다"며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계 모두가 중심이 되자는 것이 불교의 생태친화적 자연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불교계 학자들은 이웃종교와 불교계에 빈그릇운동 재개 등 새로운 생태운동에 대한 요청을 제기했다.

이어 발표한 심원 스님은 "생태 친화적 인관관의 불교적 실천은 이미 에코붓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등 불교 생태환경단체들의 활동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빈그릇운동과 쓰레기 제로 운동 등을 다시금 활발히 펼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주교 사랑의씨튼수녀회가 운영하는 씨튼연구원이 출범한 것은 1993년 11월로 씨튼 수녀회 소속으로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였던 김승혜 수녀가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최근덕 성균관장, 개신교 신자인 길희성 서강대 교수 등과 뜻을 함께해서 만들었다. 이정배 목사(감리교신학대 교수), 이제민 신부(광주가톨릭대 교수), 해주 스님(동국대 교수), 양은용 교무(원광대 교수), 최일범 성균관대 교수, 한순희 수녀(성심여대 교수)도 창립 멤버다. 세월이 흐르면서 김용표 동국대 교수와 전현식 연세대 교수, 송용민 신부(인천가톨릭대 교수),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최현민 수녀 등 후배들이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시민 문화공간 위해 관악사지 복원해야"

불교문화재硏, '과천 관악사지 종합학술세미나' 서

경기도 기념물 제109호로 지정된 과천 관악사지가 등산객의 취사나 체육행사 등으로 크게 훼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악사지 복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관악산 연주암과 불교문화재연구소는 11월 8일 서울 종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관악사지 실태와 현황에 대해 밝혔다.

이날 김관수 여유당건축사무소장은 "관악산 정상부의 유일한 공터로 등산객들이 요리하고 상업행위 등도 진행되는 등 훼손이 심각하다"며 "'문화재 보호구역' 임에도 보호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관악사지를 복원해 훼손을 막고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은 "문화유적은 살아 숨 쉬는 형태로 보존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관악사지도 철저한 연구 과정을 거쳐 복원돼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등 보물 예고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11월 11일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등 문화재 7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및 복장유물(平昌 上元寺 木造文殊菩薩坐像 및 腹藏遺物)' 은 조선 1661년(현종 2)의 조성연대, 조각승 회감(懷鑒)을 밝히는 발원문과 많은 복장유물을 동반하고 있는 중요한 보살상이다.

환적 의천(幻寂 義天:1603~1690)이 작성한 발원문은 세 번에 걸친 상원사의 중창 내력, 문수보살상의 조성과정 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전적(平昌 上元寺 木造文殊菩薩坐像 腹藏典籍)' 은 〈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白紙墨書金剛般若波羅蜜經)과 〈묘법연화경 권6〉(妙法蓮華經 卷六)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유물에 대해 30일 간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평론, '유식과 명상수행' 논단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는 11월 21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유식불교와 명상수행' 을 주제로 열린논단을 개최한다.

이날 열린논단은 명상상담연구원장 인경 스님이 발제를 맡는다. 인경 스님은 초등학교 교사로 지내다가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으며, 동국대에서 고려후기 간화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방대학원대 명상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명상치료학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02)739-5781 **노덕현 기자**

한국선학회, '간화선, 빛과 그림자' 학술대회

한국선학회(회장 이덕진)는 연세대 철학연구소와 11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연세대 외솔관 110호에서 '간화선, 빛과 그림자' 란 주제로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간화선이란 무엇인가' 기조발표에 이어 △이병욱 교수의 '천태학에서 본 간화선' △정영식 교수의 '화엄학에서 본 간화선' △서광 스님의 '심리학에서 본 간화선'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박한영 스님 추모 학술문화행사, 동국대서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의 길을 걸었던 '석전 박한영 스님' 을 추모하는 학술문화행사가 열렸다. 석전 박한영 축전위원회는 11월 12일 오후 3시, 동국대 서울캠퍼스 중강당에서 '석전 박한영 스님의 지혜와 행적의 세계를 걷다' 를 주제로 석전 박한영 축전을 개최했다.

축전은 박한영 스님의 생애와 업적을 조명하는 학술연구논문 발표회와 깨달음을 주제로 하는 '명상음악회'로 나뉘어 마련됐다. 특히 명상음악회에는 세계적 명상음악 연주자 나왕 케촉과 팝피아니스트 피터 케이터가 너 큰 호응을 받았다. **노덕현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추운날씨 자비온정 쏟아져 훈훈한 감동

호남지역 연말 앞두고 쌀 전달 등 자비나눔행 활발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자비의쌀 전달
대해노인복지센터, 자비나눔 만발공양
탑사 나우누리, 자비연탄 전달 등 다채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11월 14일 광천동 주민자치센터에 자비의 쌀 2000㎏을 전달했다.

최근 호남지역의 사찰에서 독거노인을 비롯한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비의 온정이 전달돼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11월 14일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자비의 쌀' 을 서구지역 농성1동, 양3동, 유덕동, 광천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세대에 전달했다. 특히 이날 전달한 2000kg의 자비의 쌀은 정부지원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지원자나 독거어른들 100여 세대에 전달됐다.

김희남 신도회 고문은 "처음에는 매년 김치를 담가 700~800세대에 전달했으나, 최근 몇 해 전 부터는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쌀을 전달해왔다. 신도들이 '자비의 쌀' 을 마련해 지금까지 8,000kg의 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은 지난 1988년 개원이래 매년 2회씩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 자비의 쌀 이외에도 매년 결손가정의 청소년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대해노인복지센터(센터장 무진, 법림사 주지)도 11월 9일 광주남초등학교 강당에서 지역 어른들을 위한 나눔잔치 '자비나눔 만발공양' 을 개최했다. 동구지역 지역노인 3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문화공연과 위문공연, 점심, 연말선물 등이 제공돼 노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만발공양' 이란 부처님 생전 발우에 밥을 수북하게 담아 대중에게 공양을 베푸는 데서 유래된 자비나눔 실천수행으로, 이날 행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어른들에게 부처님께 공양하듯 준비한 음식과 위문공연, 연말선물 등을 제공했다.

또한 지난 1년간 복지센터를 통해 자원봉사를 한 봉사자에 대해 국회의원 표창, 동구청장 표창, 교구본사 대흥사 주지 표창이 수여됐고,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도 전달됐다.

무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어른들을 잘 모시는 것이야 말로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며, "향후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박주선 국회의원, 노희용 동구청장을 비롯해 해남 대흥사 스님들과 자원봉사자 등 4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1부 문화공연과 시상식, 점심공양이 제공됐다.

한편 대해노인복지센터는 지난 92년 초등학교 장학금 전달과 독거어르신 밑반찬 제공을 시작으로 지난 2008년 법인이 설립되어 지역소외계층에게 9988 희망만들기,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 미용봉사, 경로당 점심 밑반찬 지원, 독거가족 생필품 및 쌀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 2010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방문요양 최우수기관, 주간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비의 연탄과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탑사 나우누리 봉사단은 11월 9일 진안군 관내 어려운 이웃 11가구에 연탄 3300장을 직접 전달했다. 이날 자비의 연탄 배달에는 진성 스님, 정해 스님, 진송 스님, 나누우리 봉사회와 이쁜손 어린이 봉사단 진안군 자원봉사 센터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이번 자비의 연탄 전달은 탑사의 천지탑 소원바위에 참배객들과 관광객들이 올려놓은 동전을 수거한 기금으로 마련됐다. 탑사의 소원바위에 올려놓은 동전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탑사 나우누리 봉사단은 지난 5월에도 이 동전을 모아 소아환우 어린이에게 치료비로 전달된바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동구불교협의회 무등산 산신제 봉행

증심사 · 원효사 등에서 3백여 대중 참여, 광주시민 평안 기원

광주동구불교협의회(회장 만효)는 11월 8일 무등산 장불재(900m)에서 '제8회 무등산 산신제' 를 봉행하고 광주시민들의 평안을 기원했다.

이날 산진제에는 광주동구불교협의회 회원스님들과 지형원 광주전남신도회장 등 300여 대중이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불교의식에 이어 격려사, 축사, 인사말, 광주영산작법보존회 회원스님들의 기도축원 등이 이어졌다.

만효 스님은 인사말에서 "무등산은 호남의 진산으로 광주시민들의 영혼의 안식처"라며 "최근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이 잘 보존되고 후손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신제는 지난 2006년부터 동구불교협의회 회원사찰의 노력으로 시작돼 2009년부터 동구불교협의회가 연합해 실시해오고 있다. 무등산에는 광주지역의 대표 사찰인 증심사, 원효사, 약사암, 문빈정사 등이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강진 옴천사, 서산대사 공적비 제막

"서산대사의 호국정신과 중생을 위한 애민정신을 본 받아 실천해 나아가겠습니다."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지킨 서산 대사의 호국불교 정신을 기리는 공적비가 세워졌다. 강진 선각총림 옴천사(총무원장 정암)는 11월 10일 서산대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공적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다운 스님, 일운 스님을 비롯해 이낙현 국회의원, 강진원 강진군수 등 1000여 대중이 동참했다.

행사는 제1부 식전행사에 이어 공적비 제막식,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정암 스님은 환영사에서 "불교의 큰 스승이요, 한국인의 큰 은인인 서산대사의 공적을 기리고, 국가와 민족이 평안하고 남북이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이번 기념비를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영산재 무형문화재인 일운 스님을 비롯한 회원스님들의 영산작법도 함께 봉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충남경찰청불자회, 내포신도시로 청사이전

충남지방경찰청이 1945년 창설 후 68년간 사용해온 대전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달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마친 가운데 이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지방경찰청불자회(회장 이장영)는 지난 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100년을 향한 충남지방경찰청 이전 축하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충남청 경승지단장 옹산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지운스님, 경승 정범스님, 경학스님, 선오스님을 비롯한 수덕사 말사 스님들과 백승엽 충남지방경찰청장, 조항민 충남도청불자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충남청 경승지단장 옹산 스님은 공무원들을 경책하는 법문을 하며 "공무원이 자기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국민을 잘 신봉하지 않는 것은 도둑과 같다"며 "좋은 곳에 둥지를 틀었으니 민중의 지팡이로 민생을 잘 살피는 등불이 되라"고 설했다.

백승엽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새로운 100년을 향한 내포신도시 시대를 맞이해 5천여 충남경찰 가족들이 깨끗하고 밝은 사회,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 달라"고 인사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 앞서 경승 위촉식과 부처님 이운 법회가 거행됐다. 새로운 경승으로는 수덕사 총무국장 정범 스님과 일락사 주지 경학 스님이 위촉됐다.

노덕현 기자

고창 선운사 도솔암 범종각 낙성법회


11월 10일 열린 선운사 도솔암 수광전 낙성법회에는 500여 대중이 동참해 정진을 서원했다.

고창 선운사는 11월 10일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원로 재곤 스님, 재덕 스님, 범려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도솔암 수광전과 범종각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법만 스님은 "도솔암은 선운사의 삼장지장도량 중 천장 지장도량에 해당된다. 도솔암을 최고의 지장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도솔암 전 대중과 함께 매일 새벽 4시부터 밤 8시까지 16시간동안 8분 정근의 가행정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법만 스님은 "매주 토요일과 지장재일에는 철야정진도 계속 진행해 도솔암이 염불소리가 끊이지 않는 도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낙성된 수광전은 한때 종무소로 사용됐다. 도솔암 극락보전과 도솔천 내원궁이 협소한 관계로 이번 개축을 통해 만년위패를 봉안하는 기도공간으로 탄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안 보타락가사 해수관세음보살 점안식


10월 27일 열린 태안 보타락가사는 해수관음 점안식에 이어 산사음악회가 진행돼 환희심을 더했다.

서해안 새 관음성지로 주목받는 충남 태안 보타락가사(회주 법진스님)에 대형 해수관세음보살님이 봉안됐다. 보타락가사는 10월 27일 해수관세음보살 점안식 및 범종 타종식에 이어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 원허 스님(동방불교대학 교수 · 옥천 범음대학장) 인례로 거행된 관세음보살 점안식 및 범종 타종식에는 사부대중 15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점안식을 가진 해수관세음보살은 높이 5미터의 대규모 불상이다.

평소에는 법당 내에 모셔져 있다가 사시(巳時)가 되면 대웅전 위로 올라와 서해 바다를 바라보며 모든 중생들의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어주고 고통을 소멸시켜 주는 자비로운 모습을 드러내도록 장치 되었다.

보타락가사 회주 법진스님은 "불자들은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탐 진 치 모든 번뇌를 없애고 항상 밝은 부처님 지혜를 내도록 발원하고 늘 정진해 맑은 사회를 이루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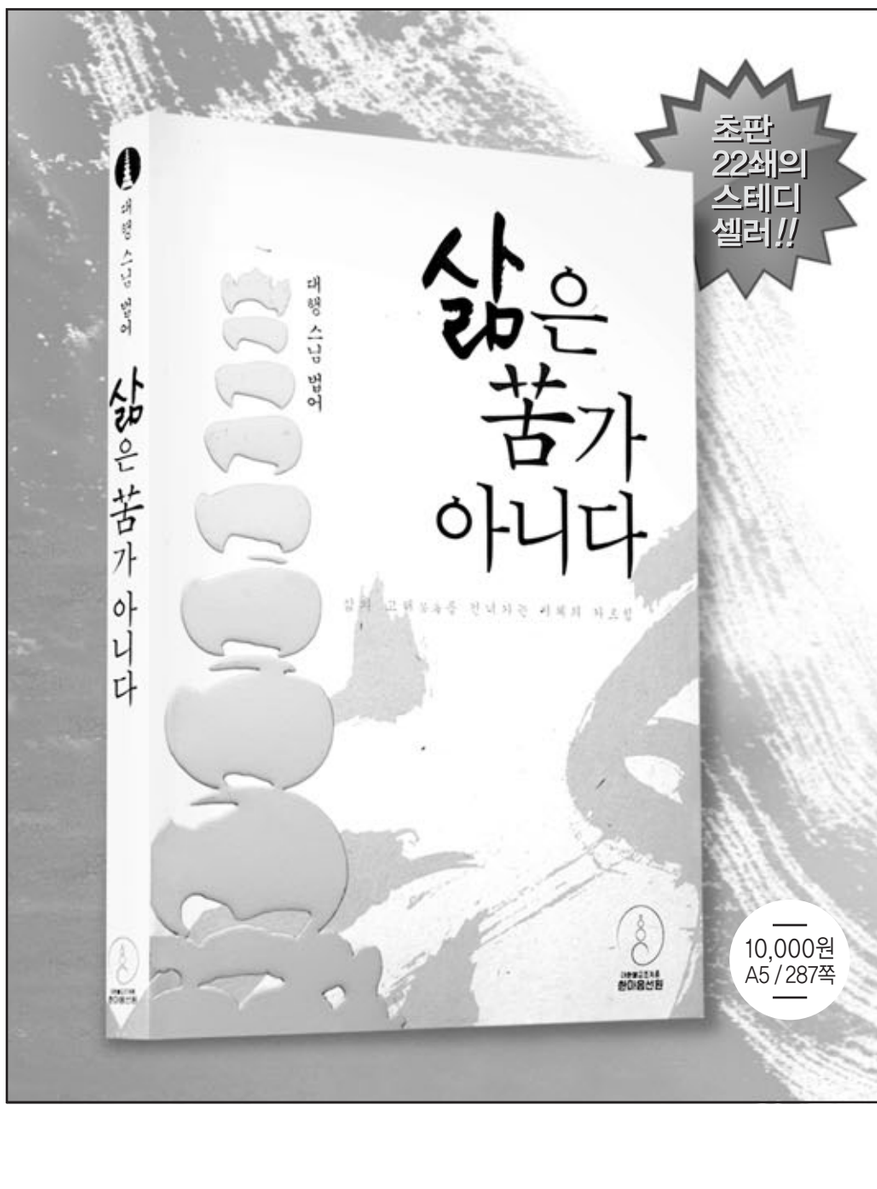
천안교도소 수용자 교화 특별법회 개최

천안 지역의 불자들이 천안교도소 수용자들의 교화를 위한 특별 법회를 마련했다. 천안교도소는 11월 6일 진안 탑사 진성스님, 대구 혜인정사 진송 스님, 광덕사 성우스님, 보광사 류보스님, 태학사 주지 법연스님, 포교사단 충남지역단 포교사와 수용자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특별 법회를 봉행했다.

천안 도광사(주지 지엄)가 주최하고 광덕사 신도회, 성불사 신도회, 천안불교사암연합회가 후원한 이번 특별 법회는 1부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인사말, 공로패, 감사패 수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2부행사는 한국무용과 민용 공연 트로트 가수 강진, 5인조여성 댄스그룹 CMB, 황혁진의 마술 쇼, 몰라요 김도희, 6인조 여성 벨리댄스, 5인조 걸그룹 스위터, 장구마을 사물놀이패, 광덕사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지역축제에 찬송가 공연이 웬말?

청도기독교연합회 공연에 시민 항의 소동

청도군이 주최하는 공식적인 지역행사인 청도반시축제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10월 20일 폐막식 프로프로그램인 추수감사음악회를 청도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면서 일어난 일로 주민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이번 추수감사음악회에는 목사이자 가수인 윤항기,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옥희를 비롯해 청도군 기독교 남성 찬양단, 청도군 기독교연합합창단 등이 출연했다. 특히 청도군기독교남성찬양단과 기독교연합합창단 등은 '성자들의 행진', '주의 빛을 비춰소서' '선하신 목자' 등의 찬송가를 불러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평위는 해당 군청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해명서를 받았다.

조계종 종평위는 "청도군에서 주최하는 지역축제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예상치 못하게 찬송가를 듣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는 중립성을 지켜야 할 지역축제 중 일부인 추수감사음악회를 청도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독교연합회는 3년째 청도반시축제의 추수감사음악회를 주관하고 있으며 올해 축제에는 군비 2500만원을 지원받았다. 또한 반시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청도기독교음악회가 진행하는 가을밤의 세레나데' 라는 문구를 버젓이 표기 특정 종교를 간접홍보하기도 했다.





청도군이 주최하는 10월 20일 청도반시축제 추수감사음악회에서 찬송가가 공연돼 주민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진 위는 청도군홈페이지에서 '청도기독교음악회가 진행하는 가을밤의 세레나데' 라는 문구를 표기한 화면 일부. 사진 왼쪽은 추수감사음악회 공연 장면.(인터넷캡쳐)

종평위 청도군청에 공개질의서 발송
청도사암聯 11월 18일 항의 방문도

이는 불교계가 주관하는 청도유등축제 예산 지원에 기독교계가 이의를 제기하자, 청도군청이 반시축제 폐막프로그램 중 일부에 추수감사음악회를 만들어 2011년부터 청도기독교연합회에 행사진행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등축제를 주관하는 청도사암연합회는 "유등축제는 불교계가 전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행사비의 절반은 불교계 자비로 나머지 절반은 군에서 지원받고 있다. 유등축제는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전통문화축제로 지금까지 6년을 진행해 왔는데 종교축제라고 항의 받아 본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청도군청은 추수감사음악회는 청도반시축제의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답변했다. 청도군 관계자는 "공연 전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검토가 있었다. 다소 종교적 상징성이 있는 행사라 하더라도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라 문화적, 예술적 행사의 음악회로 인정했다. 당일 행사 중 관람객 3명이 축제운영본부를 찾아와 가벼운 항의를 한 정도였으며, 주최 측은 물론 공연단체인 기독교연합회에서도 특정 종교를 선전하거나 전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엔 힘들다"라고 답변했다.

청도사암연합회는 11월 18일 청도군청 항의 방문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갈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응공조계종 창종 2주년 기념대법회

11월 11일 총본산 동명사서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명진 석법운) 창종 2주년기념 대법회가 11월 11일 총본산 동명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종단 소임스님, 말사 주지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법회는 대덕 문하생 외 5인들의 마당놀이, 바라작법, 시식 삼신이운 등의 식전 행사로 시작됐다. 이후 개회식에서는 종단 비구니 스님들의 육법공양, 종사이운 후 비구니원장 청명 스님의 발원문 낭독 뒤 원로의장 보운 스님의 개회 선언이 이어졌다.

설산 스님(법규위원)은 봉행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세계평화와 불교중흥을 위해 수행종단으로 거듭나 21세기 한국불교를 선도하는 불교종단으로 자리매김 해 나가자"고 인사했다.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이 창종 2주년기념 대법회를 11월 11일 동명사에서 봉행했다.

이어 종정 법운 스님은 "부처님께서 입멸 후에 수많은 종파와 계파가 출현다가 다시 멸하고 성했다. 다만 시절 인연이 닿지 않아서 종파와 계파 · 문중을 따지는 것이지 처처법당이라 시방세계에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니 종도 불자 여러분 우리 모두 명예를 벗어버리고 무애를 부릅시다"라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 맑고 향기롭게 연탄 1만장 기부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에서 연탄 1만장을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맑고향기롭게는 11월 15일 부산 사하구청장실에서 기부식을 갖고 봉사자들과 함께 신평 1동 경로당앞 주차장에서 사랑의 연탄배달을 실시했다. 이 연탄은 지역의 독거노인, 생활 곤란 세대 등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쓰여진다. 특히 이번에 기부된 연탄은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박수관 회장이 개인비용을 들여 기부한 것이다.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 연탄 1만장 전달 장면

박경수 부산지사장

삼광사 24일 '세계전통음식문화축제'

삼광사가 세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먹어보며 하나가 되는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삼광사 세계전통음식문화축제 '다름이 아름다운 세상, 음식으로 하나 되는 글로벌 한마당' 이 11월 24일 삼광사에서 열린다.

삼광사는 "음식은 누구나 쉽게 어울리고 공감대를 만들어주는 매개로 세계인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게 해준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즐겨먹는 음식을 통해 보다 가까워지고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한마당 축제에 동참하여 '다름이 아름다운 세상' 을 만들어가 나가자"며 취지를 전했다.

프로그램은 △세계음식 만들기 체험 및 시식 △한국의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복지시설에 전통음식 나눔 행사△한국전통 놀이 체험 △국내인과 외국인들의 노래자랑 등으로 구성된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불상은 부처님 상징하는 중요한 조형물

불상은 탑과 더불어 부처님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다. 불상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기원후 1세기경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불상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스투파와 더불어 불교를 상징하는 조형물로서 사찰의 중심에 자리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파되었을 시기쯤 되면 인도는 물론 불교가 전파된 모든 나라에서 불상의 제작이 활발해진다. 백제에 불교를 전해준 마라난타는 배에 경전과 불상을 싣고 오다 배가 난파되어 영광 법성포로 도래하였다고 하는데, 그때 싣고 왔던 것이라고 전해지는 불상이 아직까지도 법성포에 전해지고 있다.

신라의 수도 경주에 남아있는 황룡사터에 가면 금당자리에 아직도 삼존불상을 모셨던 좌대가 남아있다. 신라 최고의 사찰이었던 황룡사의 본존불인 장육존상의 자취이다. 또한 불교의 성지인 경주 남산에 가면 수많은 마애불이 남아있어 신라시대의 불교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뉴욕 메트로폴리탄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황금의 나라, 신라' 전에는 국보 제83호인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이 전시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불상을 보고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모습"이며, "앉은 자세이지만 정적이지 않고 긴장감이 흐른다"고 표현하고 있다.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을 만든 불모가 부처님의 깨달은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얼마나 고뇌하였고, 자신의 예술혼을 담기위해 얼마나 노력하였을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기술이 발달하고 재료가 좋아지면서 FRP와 같은 재료로 만든 불상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세상이 되었다. 현대기술과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불상들 가운데에는 훌륭한 작품들도 많지만, 쉽게 만들어 조잡하고, 개성이 없는 복제품들은 한국불교미술의 우수성을 갉아먹는 원인으로 작용할 정도이다.

요즘 사찰에 가면 수각주변이나 탑의 기단과 옥개석, 그리고 석축의 틈새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작은 불상이나 동자상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불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인지 아니면 새로 사서 가져다놓은 것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잘못된 신앙행위의 결과이다. 불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신앙의 대상이며 존엄의 극치이다. 불상을 모시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불상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사찰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대량생산으로 생산된 불상은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갉아 먹는다. 따라서 사찰에서 불상이 쉽게 취급되는 것은 막아야한다. 사진은 충청북도 ㅊ사찰



단풍처럼 물들어가고 싶다면…

단풍이 아름다운 사찰- 부안 내소사


노랗게 물든 내소사 마당의 단풍나무가 단청 없이 가을햇살 속에 핀 대웅전 꽃문살을 바라보고 있다.

"봄에 피는 꽃, 새싹만 예쁠까요? 가을에 잘 물든 단풍도 무척 곱고 예쁩니다. 봄에 꽃놀이를 가듯이 가을에는 단풍을 보기 위해 단풍놀이도 많이 가잖아요. 아무리 꽃이 예뻐도 꽃이 떨어지면 아무도 주워가지 않지만 가을에 잘 물든 단풍은 책 속에 고이 꽂아서 오래 보관도 합니다." 법륜 스님의 〈인생수업〉 중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의 일구이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는 올 가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물들인 문장이다. 붉은 잎들이 거리와 숲을 물들일 때 스님의 문장 또한 사람들의 가슴을 적셨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 하나로 한 계절을 무사히 날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렇다. 이 가을에 참으로 가슴에 와 닿는 문장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산사의 마당에서 물든 단풍은 또 어떨까. 이제 가을도 끝나간다. 아쉬운 가을의 끝자락에서 아직 단풍을 붙들고 있는 산사가 있었다. 내소사다.

내소사 가는 길

절에 가는 '길' 은 절마다 시작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짧게는 일주문에서부터 '가는 길' 로 생각할 수도 있고, 차를 놓고 걷기 시작할 때부터 길로 칠 수도 있고, 길게는 아예 처음 출발부터를 '가는 길' 로 느낄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내소사 가는 길' 은 어디서부터일까. 서쪽 바다 앞에 선 만경강 위로 겨울 채비를 한 철새들이 떼 지어 날고, 철새들의 몸짓과 몸짓 사이로 텅 빈 김제 벌판이 보이기 시작한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단풍을 보러 가는 길이라면 '내소사 가는 길' 은 이때부터다. 차가워진 만경강, 더 이상 날 곳이 없는 철새들의 하늘, 그 하늘에서 한 계절을 끝낸 철새, 허공이 되어버린 들판, 모두 '잘 물든 단풍' 의 다른 이름들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가라앉히며 설법을 기다리듯 다른 이름의 '단풍' 들과 만나는 이때부터가 내소사로 가는 길이다.

커다란 풍경들을 빠져나와 작은 풍경으로 접어들면 바위 봉우리가 우뚝한 산세가 드러나고 '능가산 내소사' 라고 쓰인 일주문 앞에 서게 된다. 다음은 전나무 숲길이다. 송풍회우(松風檜雨), 사월신록(四月新綠), 동기백화(冬期百花)로 표현되는 내소사 전나무 숲길은 변산8경 중의 하나이다. 전나무 숲길 끝에는 단풍나무들이 줄지어 서있고, 그 끝에는 천왕문이다. 사천왕의 허락이 떨어지면 홍엽을 매달고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를 만날 수 있다. 그 뒤로 봉래루가 보이고 그 뒤로 대웅전이다.

잘 물든 단풍이 봄꽃보다 아름답다

대웅전의 빛바랜 꽃문살이 가을 햇살에 걸려 있다. 잘 물든 단풍이 봄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듯이 단청 없이 가을 햇살에 물든 연꽃이 연못 속의 연꽃보다 아름답다. 아득한 옛날, '전설' 이 되어버린 시절. 대웅전을 지을 목수는 행자의 장난으로 목침 하나를 잃고 포(包) 하나가 모자란 법당을 지었다. 법당에 단청을 들이던 작은 새는 미혹한 중생 탓으로 단청을 마치지 못하고 사라졌고, 목수는 꽃문살을 깎아 법당문을 해 달고 떠났다. 내소사의 법당은 전설로 지어진 법당이다. 아득한 그 시절은 증명할 수 없으나 시절만은 분명히 존재했던 시절이다. 내소사 대웅전(보물 291)은 1633년(조선 인조 11) 청민 스님 때 지었는데, 조선 중기 사찰건축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봄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단풍처럼, 정확한 역사 속에 남은 기록보다 증명할 수 없는 전설 속의 이야기가 더 아름다운 대목이다. 전설 속의 꽃살문에 기대서면 아득한 시절의 그 모든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만 같다. 많은 손들이 꽃살문을 스치고, 많은 시선들이 문살 위에 머물다 간다. 아득한 그 시절을 이렇게 눈앞에서 스치고 볼 수 있음은 아득한 그 시절이 그토록 멀기만 한 시절은 아닌 듯하다.

아득한 시절의 손을 놓고 도량 이곳저곳으로 시선을 옮기면 곳곳이 단풍이다. 천왕문을 바라보고 있는 노란 단풍, 오솔길을 걷고 있는 붉은 단풍, 종각 위에 걸린 반홍의 늦은 단풍. 가을의 끝자락이어서인지 벌써 잎을 많이 털어낸 나무들도 있고, 자리에 따라 아직도 물들어 가고 있는 단풍들도 있다. 잘 문든 단풍이 봄꽃보다 아름답다.

소래사였던 내소사

내소사는 백제 무왕 34년(633)에 혜구 두타 스님이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은 모든 일이 다 소생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원력을 세우고 창건했다. 처음에는 소래사(蘇萊寺)였다. 창건 당시에는 대소래사와 소소래사가 있었는데, 지금남아 있는 내소사는 소소래사이다.

1633년 청민 스님의 대웅전 불사 후 1865년(고종 2)에 관해 스님이 중수하고 만허 스님이 중수한 뒤, 1983년 혜산 스님이 중창하여 현재의 가람을 이루었다. 선계사, 실상사, 청림사와 함께 변산의 4대 명찰로 꼽혔으나 다른 절들은 전란에 모두 소실됐다. 능가산 봉우리에 둘러싸인 내소사에는 대웅전을 비롯해 법당 불단 후불벽면에 모신 백의관음보살좌상과 영산회괘불탱(보물 1268), 고려동종(보물 227호)이 걸린 범종각과 봉래루, 설선당, 삼층석탑이 있다.

내소사의 유래에 관하여, 일설에는 중국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와서 세웠기 때문에 '내소' 라 했다고도 하나 이는 와전된 것이며, 원래는 '소래사' 였음이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고, 이규보의 〈남행일기〉에도 '소래사' 라 했는데, 소래사가 언제 내소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록은 없다. 부속암자로는 청련암, 지장암이 있다. 일주문에서 천왕문에 이르는 약 600미터의 전나무 숲길이 유명하다.

'나' 를 바라볼 수 있는 내소사

법륜 스님의 문장을 조금 더 빌린다. "봄에는 산과 들에 온갖 꽃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봄철에 새로 움트는 새싹들도 참 아름답습니다. 새싹들은 여름에 무성해지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결국은 가랑잎이 돼서 떨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흔히 '떨어지는 가랑잎이 쓸쓸하다' 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떨어지는 가랑잎이 쓸쓸한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걸 보는 내 마음이 쓸쓸한 거예요. 가랑잎을 보면서 '찬란했던 내 젊음도 저 가랑잎처럼 스러져가는구나.' 하고 나이 들어가는 내 인생을 아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님은 '단풍처럼 물들어가는 나' 를 차분하게 바라보라고 한다.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봄꽃보다 아름답게 잘 물드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 '나' 를 '차분히' 바라보는 일은 더욱 더 어려운 일일 것이다. 내소사에 가면 꽃문살에 핀 빛바랜 연꽃이 연못 속의 연꽃보다 아름답게 피어 있고, 아득하지만 분명한 역사보다 아름다운 전설이 있고, 봄꽃보다 아름답게 잘 물든 단풍이 도량을 물들이고 있다. 단풍처럼 물들어가고 싶다면, 물들어 가는 '나' 를 '차분히' 바라보고 싶다면 내소사 단풍을 보고 올 일이다.

부안 내소사=박재완 기자


내소사 대웅전


단청 없이 가을햇살에 물든 대웅전 꽃문살

주변보기

〈사찰〉

▲**개암사** /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백제 무왕 35년(634)에 묘련 대사가 세웠다. 개암이라는 이름은 기원전 282년 변한의 문왕이 진한과 마한의 공격을 피해 이곳에 성을 쌓을 때, 우(禹)장군과 진(陳)의 두 장군으로 하여금 좌우 계곡에 왕궁의 전각을 짓게 하였는데 동쪽을 묘암, 서쪽을 개암이라고 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월명암** /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96-1

692년(통일신라, 신문왕 12) 부설거사에 의해 창건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쳐 내려오다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것을 진묵대사(震默大師)가 중건했다.

▲**채석강** / 부안군 변산반도 서쪽에 있는 해식절벽과 바닷가



1976년 4월 2일 전라북도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됐다. 면적 12만 7372㎡이다. 바닷물에 침식되어 퇴적한 절벽이 마치 수만 권의 책을 쌓아놓은 듯하다. 주변의 백사장, 맑은 물과 어울려 풍치가 더할 나위 없다. 채석강이라는 이름은 중국 당의 이백이 배를 타고 술을 마시다가 강물에 뜬 달을 잡으려다 빠져 죽었다는 채석강과 흡사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적벽강** /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1976년 4월 2일 전라북도기념물 제29호로 지정되었다. 후박나무 군락(천연기념물 123)이 있는 연안으로부터 용두산(龍頭山)을 돌아 절벽과 암반으로 펼쳐지는 해안선 약 2km, 291,042㎡를 적벽강이라 하는데, 이는 중국의 적벽강만큼 경치가 뛰어나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곰소(젓갈)** / 아마존과 함께 세계 5대 갯벌 중의 하나

아마존이나 지중해 유역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 중 한 곳이 바로 우리나라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고 이용 가치가 높은 곳이 채석강과 곰소 고창을 꼭지점으로 하는 곰소만(줄포만)의 갯벌이다.

〈숙박〉

-대명리조트가족호텔 51 / 063-580-8800
-모항해나루가족호텔 / 063-580-0700
-채석강리조트 / 063-583-1234
-한옥펜션 나비의꿈 / 011-9282-7651

〈식당〉

-산촌식당 / 063-581-8877 / 더덕정식
-가람식당 / 063-583-2806 / 청국장
-전주식당 / 063-584-9090 / 바지락전

since1973
2014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63㎝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26㎝×19㎝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 12절(소)달력
3,000부 이상 @ 800 원
2,000부 이상 @ 900 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26.5㎝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2000부@600원 • 100부@800원
• 규격:9.5㎝×13.4㎝ • 매수:18장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2000부@400원 • 100부@600원
• 규격:8.9㎝×9.5㎝ • 매수:16장

불교와 미학
명부전의 동자들

시왕과 함께 인간의 죄 기록한 '童男童女'





경남 김천 봉곡사 명부전의 시왕(사진 왼쪽)과 시왕 옆의 동자상.(사진 오른쪽) 시왕의 동자들은 시왕을 보좌하고 인간이 저지른 선악의 인과를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

사찰 안의 여러 전각 가운데 명부전은 명부(冥府), 다시 말해 저승세계를 재현해 놓은 공간이다. 이곳의 주인공인 지장보살은 자신의 성불을 뒤로 미루고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의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위대한 서원을 세운 대원력 대자비의 보살이다.

그런데 왜 지장보살이 명부전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명부전의 원래 주인공은 도교의 신인 시왕들이었다. 조선 초까지 명부전에는 시왕이, 지장전에는 지장보살이 주존으로 모셔져 각각 다른 종교적 역할을 담당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라대왕도 그 중 하나이다. 유명도에 비해 그는 서열 5위에 불과한데, 너무 너그러워 죄 지은 망자들을 계속 용서하자 그의 지위를 강등시켰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다. 지장보살과 시왕이 함께 명부전에 모셔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조선사회의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민중들의 종교적 염원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전쟁으로 도탄에 빠진 민중들에게 지옥문을 열어 지옥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의 자비보다 더 강력하고 더 절실한 것을 없었으리라.

그 결과 조선후기에 세워진 명부전은 불교와 도교의 신들이 혼거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지장보살은 이제 지옥세계를 구제하기 위해 명부전에 입성한다. 지장보살과 그를 협시하는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명부전의 중앙에 위치하고 그 좌우에 주존의 위치에서 물러난 저승세계의 대왕 10명의 시왕이 차례로 배치된다. 그들은 망자가 저승세계에 오면 전생에 지은 업을 판단하여 다음 생에 태어날 세계를 결정해왔지만 이제는 예전 같은 위력을 발하지 못한다. 곧 지장보살의 대자비로 지옥을 텅 비울 테니까.

이렇게 하여 불보살과 도교 신들의 이종 교배와 같은 동거가 시작되었다. 장군 두 명은 여전히 험상궂은 얼굴로 명부전 입구에서 저승세계를 지키고 있고, 판관은 시왕들을 대신하여 죄인을 심판하고 있으며, 녹사도 부지런히 문서에 심판의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시왕들 옆에 그들의 시중을 드는 동자들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하여 거의 서른 명에 육박하는 대가족이 한 지붕 아래 모여 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장대한 세계 가운데 저승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 바로 시왕들 곁에 서 있는 동남동녀들이다. 어찌하여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아이들이 그처럼 음습하고 긴장이 흐르는 공간에 있는 것일까? 명부전에서 만나는 동자상들은 귀엽거나 사랑스럽기보다 조용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때로는 무표정하게, 때로는 미소를 띠고 있지만, "다소곳이 서 있는 목동자의 면면이 하나같이 다정스럽다"는 어느 전시회 기획자의 말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지난 연재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너무 당연해서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관념들 중 상당히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근대에 만들어진 새로운 관념인 경우가 종종 있다. 어린아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린이'라는 말조차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소파 방정환에 의해 창안되지 않았던가!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늙은이'나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방정환의 주장을 뒤집어보면 전근대시기에 어린이들의 열악한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방정환의 글을 보면 "짓밟히고 학대받고 쓸쓸하게 자라는 어린 혼을 구원하자."('어린이 동무들에게' 中 방정환. 〈어린이〉 1924. 12)라는 놀라운 표현을 읽을 수 있는데, 실제로 전근대사회의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 유교는 남존여비, 장유유서와 같은 수직적 관계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이 위계질서의 최하위에 있었던 어린아이들은 일방적인 봉사와 도덕적인 의무를 요구받았다. 양반 자제들의 경우, 과거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을 받았으나 아이들의 정신발달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가족 관계에서도 아이들이 중심을 차지하지 않으며, 다시 말해 특별히 귀여워하고 사랑해야 마땅한 대상으로서 '아이'는 아직 인식되지 않았다.

명부전의 동자들은 인간 세계의 저편, 저승세계에서 명부의 왕들을 시중드는 아이들이다. 저승사자가 인간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두려운 존재라면 이 아이들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그들은 강력하고 개성이 강한 존재들 틈 사이에 서 있는 미미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어린이는 소박하고 천진난만하며 근심 걱정 없고 순진무구한 존재라는 생각이나, 어린시절은 언제나 돌아가고 싶어 하는 낙원 또는 고향이라는 관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명부전의 동자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존재이다. 산 사람을 저승세계로 끌고 가는 저승사자나 전생의 업을 판단하고 내생을 결정하는 시왕들처럼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도 아니고,

불교와 도교가 공존하는 명부전
시왕 옆에는 항시 동자상 있어
인간이 가긴 선악의 業을 기록
불교 경전에는 동생 · 동명신 명시
교리보다 죽음 관련 존재로 인식

무시무시한 고통에서 구제해줄 지장보살처럼 자비로운 존재도 아니다. 저승사자들에 이끌려 심판관인 시왕들 앞에 선 영가들이나 사후에 악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살아생전 업장을 소멸시키려고 참회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에 시왕 옆에 다소곳이 서 있는 시동들이 들어올 리 없다. 그들의 관심사란 자신의 내생을 결정하는 재판관인 시왕의 너그러운 판결이나 악도에 떨어지더라도 대자비로 구원해주시는 지장보살님의 자비심일 것이므로.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왜 그토록 엄숙하고 심각한 공간인 명부전에 어린 동자들을 두었을까? 아이들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시왕 곁에서 붓이나 종이, 꽃, 동물들을 들고 서 있다. 그들은 원래 도교에서 시왕을 보좌하고 시중을 드는 시동(侍童)이지만, 불교경전에서는 동생신 혹은 동명신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동생신은 사람의 오른쪽 어깨 위에 위치하여 사람들의 나쁜 행동에 대해 평가하는 일을 맡고 있는 여자아이이고 동명신은 사람의 왼쪽 어깨 위에서 좋은 행동을 기록하는 남자아이이다. 지장탱화에는 선동자와 악동자가 좌우 협시로 시립해 있거나 지장보살의 어깨 위에서 상체만 드러내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들은 고려시대의 명부도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선시대 불화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18~19세기에 제작된 지장보살도 속에는 상당히 크게 묘사되어 있다. 선악동자(善惡童子)는 선과 악이라는 행위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돈황에서 출토된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초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시왕경도권〉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승세계에 있는 어린아이'라는 관념이 중국적 유래를 갖고 있으며 상당히 이른 시기에 정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정갈하게 묶어서 말아 올린 중국식의 쌍상투머리와 중국식의 의복을 입고 있지만, 가끔 조선의 어린아이처럼 머리를 길게 땋고 두루마리를 입고 있는 모습도 나타난다. 수자사 동자상은 신체 비례 중 머리를 크게 만들어 어린아이다운 신체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재미있게도 옷소매가 손등을 덮고 있는데, 당시 아이들이 그들에게 맞지 않는 어른들의 옷을 입고 있었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그들이 들고 있는 다양한 지물에는 붓과 두루마리, 꽃과 과일 뿐 아니라 거북이와 새, 그리고 사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불교 또는 도교, 심지어 민간신앙의 상징으로서, 동자들의 역할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연꽃이나 연잎을 든 동자상은 연화화생(蓮華化生)의 상징이며, 과일이나 술병을 든 동자상은 공양을 올리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거북이, 사자, 학, 호랑이, 봉황 등 신령스런 동물들을 안고 있는 동자상은 이들이 천계의 존재임을 상징하는데, 민간신앙의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도 스며들어 있다.

동자들의 역할과 관련해 중요한 지물은 붓과 두루마리, 벼루와 같은 필기구이다. 그런데 그것들은 요즘처럼 아동의 학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왕을 보좌하는 일과 관련된 도구들이다. 이 시동들은 비록 어떤 결정권이나 완력을 갖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살아생전 행한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보관했다가 시왕들에게 보고하고 시왕의 판결을 기록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현대사회의 어린이들처럼 관심과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어른을 위해 봉사하는 아이, 다시 말해 노동하는 아이이다.

전통사회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노동에 종사했다. 그들은 보호받고 배려받기보다 '작은 어른'으로서 어른과 비슷하거나 조금 약한 강도의 노동을 담당했다.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경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 전체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아이들도 상당히 어린 시기부터 소를 치거나 이삭을 줍고 어른들의 시중을 들면서 경제활동에 일익을 담당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이 저승세계에서 명왕의 시중을 들고 있는 것일까? 왜 하필이면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주변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을까? 명부전 또는 지장전이라고 불리는 전각은 불전 가운데서도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다. 그렇다면 명부전의 동자상은 불교의 심오한 교리를 반영하고 있는 선재동자나 문수동자와 같은 존재라기보다 죽음과 관련된 존재임을 짐작할 수 있다.



명법 스님 (조계종 교수아사리)

아미타불 성지 금강산 건봉사
12월 8일 만일염불 2차 3년기도 입재



〈금강산 건봉사 등공 기념탑〉

만일 (27년 5개월)동안 염불 수행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행복한 삶을 위하고, 죽어서는 극락왕생 할 것을 기원하는 만일염불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입재 : 2013.12.08 일요일 10:00
회향 : 2016.12.07 수요일 10:00

금강산 건봉사 만일 염불 2차 3년기도 입재 안내



■ 입 재 : 새로 접수하신 불자님은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6시 부터 새벽4시까지 철야기도로 입재 합니다.
■ 장 소 :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만일염불원
■ 기도 동참금 : 월 3만원 (일가족 동참)
■ 계 좌 번 호 : 농협 247-01-251767 〈예금주 :건봉사〉
■ 접 수 : 건봉사 종무소 033)682-8100

*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6시 부터 만일염불 철야기도 봉행
* 버스운행 :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조계사 앞 단체 버스 출발 건봉사 행 단체버스 예약 (종무소 033-682-8100)
* 매일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나무아미타불 염불수행이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새로운 나! 그리고 희망! 금강산 건봉사 "괜찮아" 템플스테이!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건봉사로 723 ☎ 033)682-8100 / 팩스 033)682-5994
대한불교조계종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주지 정현 합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불보살이 상주하는

북한산 이야기 ⑧ 원효봉



알 수 없는 강한 힘이 원효 스님을…

원효봉은 해발 505m의 봉우리로 경기도 고양시에 속한다. 원효대사가 수행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북한산 국립공원 주차장에서 또는 북한산 아래서 원효봉을 이루는 산을 올려다보면, 부처님이 앉아계신 모습이 보인다. 그 위로 원효봉의 봉우리는 닫집처럼 지붕을 이루었고, 아래쪽으로 치마바위는 좌대를 형성하였다. 치마바위는 원래 원효암 여산신(女山神)의 치마였는데, 이것으로 자리를 만들어 부처님께 공양하여 연화좌(蓮華座)를 이루었다고 한다. 연화좌는 연꽃모양의 대좌로 연화대라고도 불리며, 불 · 보살의 앉는 자리를 가리킨다.

걸음을 멈추고 길 가에 앉아 쉬고 있던 원효 스님은 고개를 들어 먼 산을 바라보았다. 여러 능선 사이로 봉우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마치 하늘의 햇빛을 혼자서만 받고 있는 듯, 그 봉우리는 온통 밝은 기운으로 가득했다. 봉우리는 닫집처럼 지붕을 이루고 있었으며, 아래쪽으로는 널찍한 바위가 놓여있는데 그 모습이 꼭 연화대를 빼어 닮았다. 게다가 그 봉우리 밑 능선은 부처님이 앉아계신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영락없는 부처님의 처소였다. 순간, 눈을 반짝이던 원효 스님은 미처 한숨을 돌릴 틈도 없이 서둘러 일어나 산으로 향했다. 그 봉우리로부터의 알 수 없는 강한 힘이 스님을 이끌고 있었다. 여러 날 갈아입지 못한 듯 옷은 남루하기 이를 데 없었고 짊어진 바랑은 해졌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고, 움직이는 발걸음 마다 당당하고 힘이 있어 조용하던 산 속이 흔들리는 듯 했다. 원효 스님은 이 땅에 불법이 널리 퍼질 수 있게 해달라는 원을 세운 후 전국의 상서로운 기운을 가진 곳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하는 중이었다. 경상도 금정산 봉우리에서 여러 달, 충청도 가야산 봉우리에서 다시 여러 달을 쉼 없는 정진 이었다. 이제 한강 일대에서 수행하기에 적당한 봉우리를 찾아 북한산에 들어선 참이었다.

그동안 신라의 불교는 왕실과 귀족들을 위한 불교일 뿐 백성들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다. 불경 또한 어려운 한자로 기록되어 있어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이해할 방법도 없었다. 원효 스님은 안타까웠다. 이것은 부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는 신라불교가 부디 민중 속으로 자리하게 되길 염원하며 불법을 통해 그들과 하나 되는 방법을 찾았다. 여느 스님들과 달리 좋은 옷도, 산해진미도 마다하고 저자 거리로 나가 백성들과 어울렸다. 그들과 함께 춤추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잠들고 깨어났다. 원효는 스스로를 소성거사라 부르며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일반 백성에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을 알려준 것이었다. 비록 불경을 읽지 못하더라도 이 주문만 되풀이해서 외우면 누구나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살아 있는 모든 것에는 불성이 존재하며 귀하고 천한 생명이 따로 없음을 일깨워주었다. 서서히 백성들의 마음에도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원효 스님은 또한 경전에 해석을 달고 뜻을 풀어 쉬운 말로 다시 쓰는 일을 하는 틈틈이 산속의 봉우리를 찾아 수행했다. 원효는 한 지역에서의 기도를 마치고 백성들에게 불법을 만나게 해주고 나면 곧 다른 기도처를 찾아 떠났다.

그동안 원효 스님이 수행하던 암자만도 전국에 수 십 개였으며, 앉아서 참선하던 봉우리 또한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였다. 원효 스님이 수행처로 삼은 곳은 한결같이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가진 곳이었다. 너무 험하거나 거친 봉우리 보다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포용의 힘이 느껴지는 곳을 찾았다. 들판에 우뚝 솟아 산세가 당당한 가야산 봉우리가 그랬고, 금정산의 봉우리 또한 독보적이고 품위가 있는 곳이었다. 그런 봉우리라야 자신과 함께 뜻을 펼칠 수 있으리라 믿었다. 마침내 원효 스님은 북한산에서 한 봉우리를 찾아냈고 그곳을 향하여 산을 오르고 있었다. 분명 산 아래에서 올려다 본 그 봉우리는 그런 기개를 가지고 있었다. 계곡을 옆에 두고 바위를 타고 올라 단숨에 봉우리 정상에 다다랐다.

원효, 불법 널리 펴기 위해
전국의 상서로운 기운 갖은곳 찾아
인중불교 · 불국토 서원 세우며 정진한 곳

과연 봉우리는 당당했다. 봉우리 정상에는 치마를 펼쳐 놓은 듯한 넓은 바위가 자리하고 있었다. 아래에서 보았던 연화대 모양의 바위였다. 그곳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북한산 봉우리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발 아래로 굽이치는 한강을 품고, 위로는 바위 능선을 두루 감싸 안을 듯 넉넉한 이 바위 봉우리가 원효 스님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바로 이곳이었다. 마치 봉우리도 오랜 세월 동안 원효 스님과 같은 원을 세우고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함께 기도하리라. 민중불교가 실현되고 신라가 불국토가 되는 그 날까지 정진 또 정진 하리라, 북한산 봉우리 위에 앉아 원효는 다짐했다.

백성들 사이에서 원효 스님을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고, 사람들은 원효 스님이 앉아 수행하던 봉우리마다 '원효봉' 이라 이름 지어 그의 업적과 사상을 기리게 되었다.

원효 스님은 그의 이름처럼 '진리의 첫새벽' 이 되어 민중의 스승이 되었다. 그가 남긴 〈대승기신론소〉 나 〈금강삼매경론〉등 위대한 저서들은 당시의 신라는 물론 당나라와 일본의 불교에 까지 큰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 까지도 서양과 유럽에서 원효 스님의 사상과 저술을 연구하고 있다하니 과연 그는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불교를 발전시킨 큰 별임에 틀림없다.

〈얘기꾼〉 전현서

日 최고 아이돌마저 감화시킨 대탑 도량



신중일 기자 **일본 관서 교찰을 가다**

⑧ 나라 야쿠시지



일본 나라 7대 사찰 중 하나인 야쿠시지(藥師寺)의 전경. 동서 대탑과 회랑은 신라 사천왕사에서 시작된 쌍탑 일금당 양식을 그대로 받아드린 것이다.



야쿠시지의 동탑. 현재는 해체 복원 중이다.

요즘 한국 대중문화는 아이돌이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일본 역시 일찍이 아이돌 문화가 자리 잡은 곳이다. 총 48명의 소녀들로 구성된 'AKB48' 은 현재 일본 국민 걸그룹으로 그 인기는 한국의 '소녀시대' 와 비할만 하다.

여기서 한 가지 상상을 해보자. 당대 최고의 아이돌들이 사찰의 법당 신축 법회에서 자신의 노래를 부처님께 헌정하는 콘서트를 개최한다면? 실제 이런 일이 일본 나라 야쿠시지(藥師寺)에서는 있었다.

나라 천도 1300주년을 맞았던 2010년 야쿠시지는 강당 신축을 기념하는 행사를 9월 26일 개최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법회와는 다른 행사였다. 당대 최고 아이돌 걸그룹 'AKB48' 가 '꿈의 꽃잎' 들을 타이틀로 장대한 공연을 펼쳤기 때문이다. 앞서 6, 7월에는 유명 남성 아이돌 가수 도모토 쯔요시(킨키키즈 소속)가 단독 콘서트를 같은 자리에서 진행했다. 두 공연 모두 새로 태어난 야쿠시지에서 자신의 공연을 부처님께 봉헌하는 의미로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공연 소식은 대중적 친밀감을 불러 일으켰고 현재 야쿠시지는 일본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사찰이 됐다. 스스로 고찰에서 공연을 자처하는 유명 아이돌이 있다니 한국 불자로서 한편으로는 부러운 일이기도 하다.

아이돌 그룹을 불러들여 신축 법당 기념행사를 할 정도로 파격을 보여주는 야쿠시지이지만 본래는 법상종의 본산으로 나라 7대 사찰 중 하나다.

680년 덴무 천황이 황후의 병이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창건한 야쿠시지는 발원자인 덴무 천황 때 건립되지 못하고 698년 지토 천황대에 이르러 완성된다.

원래의 야쿠시지는 아스카 시대에 일본의 수도였던 후지와라쿄에 세워졌으나 황실이 새로운 수도로 이전한지 8년 후에 나라로 이전됐다. 오랫동안 야쿠시지는 수도 이전한 후에 718년에 현재의



일본 아이돌 걸그룹 'AKB48' 이 2010년 야쿠시지 강당 앞 특설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韓 사천왕사와 비슷한 쌍탑 구조
원형 간직한 동탑, 현재 보수 중
국보 약사 삼존상 장엄함 눈길

위치로 이전됐다고 여겨왔지만 1990년대에 후지와라쿄의 야쿠시지 터가 발굴되면서 두 개의 야쿠시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973년에 화재로 절 건물의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1528년의 화재로 금당이 소실됐다. 오랜 불사 끝에 1976년에 금당이 재건되기 시작해 현재는 사찰 전체가 복원된 상태이다.

야쿠시지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화재는 본당과 함께 대칭적으로 서 있는 동서 대탑이다. 이 중 동탑은 야쿠시지의 유일한 8세기 건축물이다. 이 탑은 하쿠호 시대와 덴표 시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일본의 가장 정교한 불탑의 하나로 여겨진다.

목탑은 삼층탑이지만 차양지붕 때문에 삼층탑이 아닌 것처럼 착각을 들게 한다. 특히 동탑의 경우 서탑보다 30cm가 크게 만들어졌다. 나무가 수축되는 성질을 고려해 200년 후에는 같은 높이가 된다고 한다. 답사 당시에는 동탑이 해체 복원 불사를 진행 중이어서 그 위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만 유홍준 명지대 교수가 자신의 저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일본편〉에서 동탑을 음악과 비유한 구절을 통해 그 장엄함을 가늠할 뿐이다.

"100여 년 전 문화재 조사 차 야쿠시지에 온 페놀로사는 야쿠시지 동탑을 보는 순간 저것은 '얼어붙은 음악' 이라고 감탄했다. 그의 가르침대로 동탑 앞에 서 있으면 마치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2번' 이 건축적으로 형상화된 듯 리드미컬한 율동감을 받게 된다."

동서 대탑에 금당을 중심으로 회랑이 둘러쳐진 야쿠시지의 건축 구조는 신라 시대의 사천왕사에서 시작된 쌍탑 일금당 양식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반도의 불교 건축이 현재의 야쿠시지를 있게 한 시금석이 됐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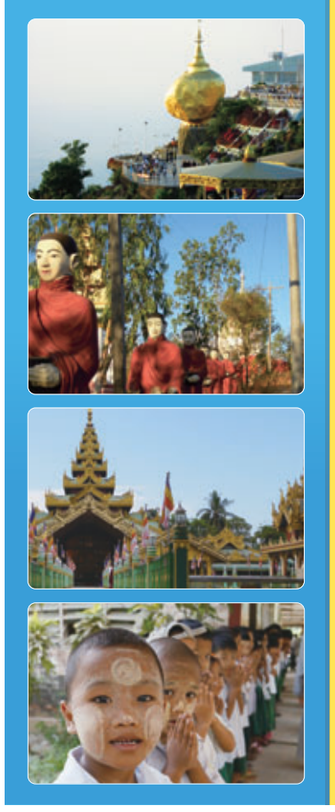
국보로 지정된 금당의 약사 삼존불도 눈길을 끌게 하는 성보 문화재다. 중생의 병고를 치유하는 약사여래와 두 협시보살은 그 크기도 웅장하며 풍만한 조각기법은 자애로움을 자아낸다.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 낸 청동주조법은 완벽에 가까울 정도다. 여기에 하늘하늘 타오르는 듯한 뒤편 광배 역시 매우 섬세하고 아름답다.

이런 모든 성보들을 품고 있는 야쿠시지는 사찰 자체만으로도 나라 시대의 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여기에 최고 아이돌마저 매료시킨 힘의 원동력은 여기 있었다. 앞서 소개한 도모토 쯔요시는 공연에 앞서 자신의 홈페이지 이렇게 글을 남겼다.

"이번 저의 고향인 나라에서 세계유산인 야쿠시지에서 콘서트를 열게 됐습니다. 나라는 '일본문화 원점' 이기도 하고 저 '자신의 원점' 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하늘 아래서 노래하고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음에 저는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원고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주)에스굿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직항 "초특가"

■ 양곤/바고/시리암 (직항) 5일
■ 양곤/바간/헤호 5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황금파고다/철야기도 가능) 7일
– 요금문의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마하-연 여행사가 추천하는 품격 성지순례 (마하연 강력 추천)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 (직항) 5일 139만원
- 스리랑카 정통 성지순례 (직항) 7일 210만원
- 인도8대 성지순례 15일 ..... 요금문의
- 지장도량 / 관음도량 성지순례 7일 ..... 139만원 (구화산. 황산. 보타산. 낙가산)
- 지장도량(구화산 / 황산) 성지순례 4일
- 관음도량(보타산 / 낙가산) 성지순례 4일
- 문수도량(오대산 / 석가장) 성지순례 5일
- 보현도량(아미산 / 낙산) 성지순례 5일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주) 마하연 투어 ☎ 02)365-7747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해외지사 : 양곤 사무실 (가바이파고다 앞) / 전화 951-667170. HP 95943048476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
- 2억원 여행자보험가입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그대 마음

깨달음은 수행을 빌려서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의 자기 마음을 알면 자기의 본성을 보리니, 결코 달리 구하지 말라.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20〉



범어사 주지



그림 · 박구원

알고 보면 마음은
너무 가깝게 있어서,
싱거울 정도로 맛이 없다.
중생들은 아무 맛이 없으니
믿지를 못하는 것이다.

깨달음은 본래 없지만,
그래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의심이 한 덩어리가 되면
스스로 터져나가든
선지식에게 물었을 때
언하에 대오하든
기연이 일어나는 것이다.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아는가?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그대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떠나서,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황벽 스님은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인심이라고 직지해주고 있다. 당장 지금 여기에서 작용하는 '이 마음'이 곧 성품이지, 달리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계합이 되어야지, 생각으로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즉시 어긋나고 만다.

만약 말하지 않고 작용도 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본체는 허공과 같아서 모양도 없고 또한 방위와 처소도 없다.

한 법도 만들어지기 이전의 본래 마음은 모양도 없고 방위와 처소도 없지만, 인연 따라 온갖 작용을 베푼다. 상(相)놀음에 젖어있는 사람들은 '모양도 방소도 없는 것이 지금 말을 한다.' 고 하면 알아듣기가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근본 마음 하나가 인연 따라서 이렇게도 펼쳐지고 저렇게도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들어가야 한다. 믿음이 성숙하면 계합되고, 계합되면 저절로 환히 드러나서, 불조의 모든 말이 다 소화가 된다. 그렇지 못하면, 무슨 말을 듣던 하나도 소화하기가 힘들다. 이런 조사 어록을 읽고 소화가 안 되면, 스스로 눈 뜬 장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발심하여야 한다. 그저 목마른 사람이 물 찾듯 간절함을 더해가다 보면, 어느새 먹구름이 걷히고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난다. 그때는 조사의 말씀이 화살촉끼리 들어맞듯 내 마음에 흔연히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저 한결같이 없는 것이 아니니, 있으면서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조사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참 성품이 마음땅[心地]에 감추어져 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인연에 응하여 사물을 드러내니
방편으로 일러 지혜라 부른다.'

이 게송은 서천 제26조 불여밀다(不如密多)의 전법계이다. 마음자리에는 본래 지혜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다. 마음이라 하는 말도 억지로 붙인 말이지, 실제 마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 모습 없는 모습을 억지로 이름 붙여서 마음이라고 한 것이다.

한편 우리가 지금 인연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런 가르침 속에서 깨달음이라는 근거를 잡들여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자칫 이런 말과 이치를 배우고 이해하여 겉넘게 되는 것을 극히 경계해야 한다. 불법을 배워 조금 알게 되면 흔히,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마음 아닌 것이 없다 하면서, '마음 깨달으라.' 함은 또 무슨 말인가? 마음을 너도 가지고 쓰고 있고 나도 가지고 쓰고 있고,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늙은이들이나 이제 세상에 갓 태어난 꼬마들이나 다 마음 가지고 쓰는 거지 다른 마음이 따로 있나? 이 마음이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이 이 마음이지, 무슨 마음 또 깨달으라고 '깨달아라, 말라' 하나? 다 허망한 소리 아닌가? 이것이 바로 마음이라면 그대로 알고 쓰면 그만이지." 하면서 머리로 다 끝내버린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은 알음알이로 시비를 하면서도, 뭔가 양심상 '아직 내가 마음을 깨닫지 못했잖느냐?' 하는 찜찜한 게 딱 자리하고 있다. 머리로는 다 안 것 같아도, 가슴에서 흔쾌하지 않다면 틀림없이 견해의 장애 속에 있는 것이다. 아는 것이 오히려 깊은 병이 되어, 여우같이 자기 꾀에 속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땐 선지식 앞에 나아가 지남을 받아서, 참다운 의심 속에 사무쳐 들어가야 한다. 그 의심이 익어 의정이 되고 의단이 되면, 시절인연 따라 묻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탁 터지는 날이 온다. 그때는 "아!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내말에 속아서 스스로 발등 찍는지도 모르고 내가 다 안다고 자만했구나. 늘 머리만 굴리며 이치에 나가떨어져서 실제를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래 가지고는 꿈엔들 깨달을 수 있었겠나? 깨달음은 본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 가지고 쓰고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마음을 알고 쓰느냐 모르고 쓰느냐는 천지현격의 차이가 있다. 만일 이 마음을 모르고 있다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또한 조사들이 시설해놓은 장치 속에 나아가 한바탕 정신의 벽을 뚫고 나와야 비로소 걸림 없이 이 마음을 자유자재로 쓰고 살아갈 수 있다. 그 전에는 늘 구름 낀 것처럼 안개 서린 것처럼, 갑갑한 것이 마음 한쪽 끝에 있었지만, 깨닫고 보면 구름이 끼나 안 끼나 그만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허공은 구름이 끼고 안 끼고 상관없이 늘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이 마음도 알고 보면 하루 종일 분주히 온갖 일을 하면서도 여여하고 부동하여 일한 바가 도무지 없는 것이다.

다만 모르는 그 일 하나를 의심하는 게 귀하다. 그 의심이 한 덩어리가 되면, 경우 따라 스스로 터져나가든지 선지식에게 물었을 때 언하에 대오한다든지 하는 기연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 땐, 지체 없이 명안종사를 찾아서 자세히 점검받고 다음 일을 기약해나가야 한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⑯



보살은 모든 중생의 불청지사不請之師이다.

〈무량의경(無量義經)〉

거리로 나가는 스승

이 〈무량의경〉에서는 '스승'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지만, 다른 경전들에서는 '벗'이라고 부르는 말이다. 불청지사가 곧 불청지우(不請之友)이고, 불청지우가 곧 불청지사다. 스승이 벗이고, 벗이 곧 스승이기 때문이다.

오늘 생각해 보는 이 구절의 바로 앞에는 "보살은 모든 중생의 참다운 선지식이다"라는 말도 나온다. 그 선지식이라는 말은 스승을 일컫는 말이지만, 동시에 선우(善友)라고도 번역된다. 이렇게 스승과 벗이 다르지 않은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스승은 제자에게 벗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같다. 명색이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권위주의에 대한 경계를 '불청지사'라는 말은 담고 있는 것 아닐까.

벗이 될 때, 비로소 그 스승은 제자와 동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행은 앞에서 이끄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도 아니다. 나란히 서서 함께 걸어간다. 사제동행(師弟同行)이라는 말이 그 뜻이다.

제자로부터 "스승님, 저랑 함께 나란히 걸어가시죠", "스승님, 저에게 가르침을 주소서"라고 청탁을 받을 때는 이미 늦다. 청탁을 받고나서야, 제자에게 다가가는 스승이라면 '불청지사'라 할 수는 없다. 청탁을 받지 않더라도, 늘 살피고 있다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말하지 않더라도, 제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탁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그분이 참 스승이다. 우리 부처님은 중생들로부터 "법을 설해주소서"라는 청탁을 받지 않으셨다. 그 전에 스스로 녹야원으로 길을 떠나셨던 것이다.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전범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청탁받기 전에, 청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법을 전하기 위해서 중생을 찾아가고 있는가? 혹시나 거룩한 법석(法席)을 장만해 놓고, "여기 오셔서 법을 설해주소서"라고 누군가 청해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 그럴 때 가서 법을 설하는 것만으로 포교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무대가 마련되기 전에 '거리'(=중생이 있는 곳)로 나가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고 있는가?

사회복지의 기본원리

'불청지사'라는 말에 '스승'이라는 개념이 있으므로, 우선 스승과 제자, 법을 전해 주려는 보살(포교사)과 법을 전해 받는 중생(대중)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이 말은 반드시 거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은 재물을 나누는 보시에도 적용가능하다. 누군가로부터 청탁을 받고서야 재물을 나누어 준다면 이미 늦다. 그것은 진정한 보시라고 할 수 없다. 청함을 받기 전에 나누는 것이 진정한 보시이다. 진정한 보시는 상대방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자비 위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타이완의 동부 도시 화련(花蓮)의 어느 병원에서 원주민 임산부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목격한 젊은 비구니 스님이 있었다. 그 원주민 임산부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림 · 박구원

당시 그 원주민 임산부는 그 스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참상(慘狀)을 목도한 스님이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자비심을 일으켰다. 그리고서는 "돈이 없어서 의료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서는, 구제활동에 뛰어든다.

자제공덕회의 정옌(證嚴)스님 이야기다. 지금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제구호활동 등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단체이지만, 처음 시작은 그렇게 발단된 것이다. 2011년 자제공덕회 견학을 갔을 때, 나는 스님께서 강설(講說)하신 〈무량의경〉을 발견했다.

〈무량의경〉을 통해서, 스님은 자제공덕회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정신무장을 하고 계셨다. "정하기 전에 다가가자"라고 말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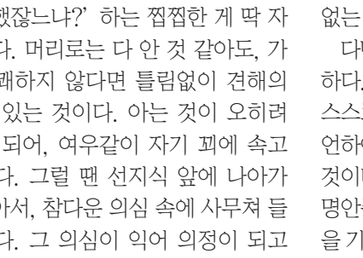
사찰법당앰프설치전문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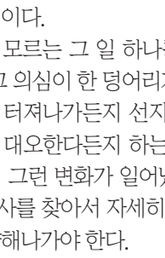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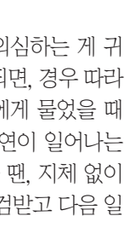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구즈넥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심리상담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대혜어록 진종에 계합 않고 투관 안목 없어"

1850년 2월 15일, 강상에 머물던 추사는 초의의 안부가 궁금했던가보다.

세밑에 보낸 초의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위안을 삼았던 추사는 벗이 보낸 '초의차'를 마시며 추운 겨울을 보냈으리라.

더구나 강상 시절 더욱 불교에 천착한 그는 연경으로부터 〈법원주림〉을 얻은 후, 연이어 〈종경록〉백 권을 입수한 기쁨을 초의에게 전했다.

〈완당전집〉〈여초의〉33신과 〈나가묵연첩〉에서는 화조절(花朝節)에 초의에게 보낸 추사의 편지가 전해지는데, 화조절(花朝節)은 2월 보름을 말한다. "꽃이 피는 시기"라는 뜻인 담긴 이 언구는 옛 사람들의 정서와 문리(文理), 순화된 심성과 격조를 드러낸다. 2월의 봄바람이 살랑대는 날, 추사가 보낸 편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나가묵연첩〉 화조절의 편지

〈종경록〉 백권 입수한 기쁨 전해
추사 "이것도 하나의 문자 인연"
대혜 수행법에 오류 있음 지적

세밑에 보낸 편지는 해가 지났건만 아직도 소매 속에 들어 있는데, 그 사이 봄바람이 불어와 이미 2월이 되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이란 법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나무가 무성해지고 샘물이 졸졸 흐릅니다. 선송(禪誦)을 멈추지 않으실 터이니 단포는 가볍고 편안하신지 늘 염려됩니다. 나는 굳고 무딘 목석(木石)처럼 (쓸모도 없고, 할 일도 없이) 아직도 강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2월) 12일, 또 계수씨의 상을 당해 마음이 너무 슬퍼서 보지 않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지난번 〈법원주림〉을 거의 다 얻었는데 이어서 또 〈종경록〉 백 권을 얻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자인연인데, 한스러운 것은 (초의)그대와 함께 고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들어 볼만 것은 옹정년간에 종풍이 크게 헌창하여 역대 조사의 어록을 고증하여 바로 잡았다고 합니다. 대혜의 어록은 진종에 계합되지 않고, 투관의 안목이 없다고 여겨 대개 수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오종으로 분파되어 문파의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크게 더 간별 하였고, 위로부터 조서가 내려져 천하의 선림에서 봉행 유통시켜서 다른 말이 나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동방의 한 귀퉁이)에서는 거의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도 모르고, 서슴없이 함부로 들어 보이고 함부로 참증하고(妄拈狂參) 있으니 가련하고 연민을 느낄 만합니다. 내가 평소 대혜에 대해 마음으로 마땅치 않게 여겼는데, 이제야 이것으로 실증을 얻게 되었으니 나의 안목도 그릇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봅니다. 멀고 먼 천리 길이라 말로는 (내)마음을 다 드러낼 수 없으니 자못 안타깝습니다. 마침 가는 인편이 있어 대략 전합니다. 이만 2월 승련노인

(臘底一書經歲尙在裏袖 間春風ㄴ 已及花朝流光推遷 法界亦爾歟 木欣泉涓 禪誦不輟 圍蒲輕安念念 賤狀一如木石之頑鈍尙留江上 今十二又遭季嫂喪 情理絕悲 不如不見之爲勝奈何 頃以法苑珠林擧似矣 繼又得宗鏡全部一百卷 是一文字因緣恨無以與師同證也 且有一事可聞者 雍正年間大暢宗風 考正歷代祖師語錄 如大慧書以未契眞宗 無透關眼 ㅌ置錄 又以五宗分派爲門戶葛藤 大加揀別 以至自上詔諭 天下禪林奉行流通 無二辭 東方一隅皆不知有此動 輒妄拈狂參 令人可憐可愍 僕之平日於大慧不ß妙心者 今可以得此實證 此眼亦有不誤處耳 千里遙遙 言不盡意 殊爲R 適因去羽 略申 不具 花朝節 勝蓮老人)

추사는 〈법원주림〉과 〈종경록〉을 얻고 "이것도 하나의 문자인연"이라고 했다. 이는 당시 그의 관심사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굳고 무딘 목석(木石)처럼" 쓸모없는 시간을 보내던 그에게 계수씨의 상은 참담한 슬픔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는 옹정년간(1723~1735)에 간행된 역대 조사 어록의 편찬과정을 초의에게 알려주어 대혜(1089~1163)의 수행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한다. 평소 대혜의 견해에 비판적이었던 추사는 옹정년간에 불서를 간행하면서 "대혜의 어록은 진종에 계합되지 않고, 투관의 안목이 없다고 여겨 대개 수록하지 않았던" 입장을 초의에게 알려주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출재가 지계 철저할때 한국 불교 미래 밝아"

동산반야회 2대 법주 **법산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지난 11월 16일 한국불교의 재가 교육 1번지로 꼽히는 동산반야회와 동산불교대학에 새로운 의지처가 생겼다. 바로 2대 법주로 법산 스님이 취임한 것.

1982년 '청년 불교가 살아야 한국불교가 산다'는 일념 하에 출범한 동산반야회와 동산불교대학이 지금까지 자리 잡아 온데에는 무진장 스님이 정신적 지주로, 故김재일 법사가 안살림을 챙긴 역할이 컸다. 특히 동산 가족들에게 무진장 스님은 스승이면서도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그러한 무진장 스님이 9월 9일 입적하며 한 스님에게 동산 가족을 부탁했다. 바로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이었다.

호형호제하던 무진장 스님, 신도 교육에 뜻 같아

"무진장 스님과는 오래전부터 호형호제하는 사이였어요. 1980년이었는데 하루는 무진장 스님이 정화회관에서 보자고 해서 갔지요. 일본에서 출간된 10권짜리 〈벽암록〉 2질을 구했다며 보여주는 겁니다. 한질은 자기가 보고, 한질은 내게 주면서 함께 공부하고 이제 호형호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랬지요. '아니 스님, 그 전부터 형님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요."

무진장 스님은 평소 포교분야 중 특히 재가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법산 스님은 무진장 스님과 의기투합해 신도 교육에 뜻을 모았다.

"무진장 스님은 사욕이 눈금만큼도 없는 분이셨어요. 이 스님과는 포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마음먹었지요. 무진장 스님이 포교 원장이던 시절이었는데 하루는 스님이 '나는 조계사 수위도 할 생각 있는데 내가 하자면 할 텐가' 하시더라고요. '스님 하자는 거면 다 합니다' 고 대답하니 포교국장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포교원을 대표하는 원장과 실무진인 국장 사이였지만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교육 방안을 만들어냈어요."

당시 법산 스님은 조계종 불교대학 설립안을 기안했다. 1980년 3월이었다. 그 당시 포교원에는 이종익, 김어수, 선진규 등 원력을 지닌 포교사들도 모여 함께 활동했다. 1980년 5월 3주 과정의 교양대학이 출범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불교계에서 교육기관을 만들었다는 소식은 불교계를 넘어 사회에도 한 줄기 청량감을 주었다.

불교의 현대적 접근 배우기 위해 대만행 올라

조계종 불교대학의 첫 수료식이 열린 1980년 9월 7일 다음날인 8일, 법산 스님은 대만행에 올랐다. 대만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스님은 대만에서 6년간 공부하고 귀국했다.

"한국에서의 포교도 중요했지만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산스크리트어를 잘했기에 원래는 인도를 가려고 했지만 탄허 스님께서 '인도가지 말고 중국으로 알아보라' 는 말에 중국어부터 새로 배우며 중국유학을 준비했지요."

1980년대 대만은 당시 성운 대사의 불광산사 등이 활발히 포교 ·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법산 스님은 장만도 중국문화대학 교수의 소개로 혜일강당에 갔다. 주지 여허 스님이 "한국과 중국은 국적만 다를 뿐 신앙은 하나고, 수행 목적이 같다"며 입방을 허가했다. 스님은 혜일강당 회주로 〈중국선종사〉를 저술한 근대 불교학의 석학 인순 스님에게 배웠고, 철학연구소 오경웅 박사에게 선학을 배웠다.

"대만에서 느낀 점은 신도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교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신도들에게 기복적인 부분 보다는 신앙심과 교리적인 부분을 알려줌으로서 체계적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시기도는 끝나고 나면 가버리지만 교리교육은 한명의 발심자를 만들거든요. 지혜를 습득하려는 진정한 염원을 가진 한사람이 주변의 다른 사람의 발심을 이끄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법산 스님은 대만에서의 신도교육의 파급효과를 신도 활동의 예를 들어 소개했다. 대만에서 신도들은 스스로를 호법신도회라고 부른다. 불법승 삼보를 보호하고 같이 모신다는 의미다.

"한국불교는 대만불교를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첫째는 스님들이 계율 정신이 투철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신도와 스님들이 유기적인 관계로 상호보완적인 책임의식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만에서 찐빵 하나를 먹어도 야채가 들은 빵, 고기가 들은 빵이 있어요. 스님들이 만약 고기가 들은 빵을 먹으려고 하면 찐방가게 주인이 '스님, 야채가 들은 빵 드셔야죠.' 하는 겁니다. 술집에서도 스님들이 혹여 들어가려 하면 신도들이 나서서 안 된다고 말려요. 스님들이 계율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일종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거지요. 한국의 경우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스님, 그래도 운동은 하셔야죠.' 하며 골프를 권하기도 하니 참 안타깝죠."

사실 법산 스님이 대만 유학을 갔을 때 머무는 곳과 먹는 것, 그리고 언어의 소통이 가장 절실한 난관이었다. 법산 스님은 중국문화대학 대학원 시절에도 공양시간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다. 고기는 물론이려니와 파와 마늘 등이 들어간 음식을 신도들은 일체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스님들이 채식을 하도록 안내했다.

법산 스님은 대만스님들도 그런 신도들이 있기에 더욱더 지계의식이 높다고 말했다. 스님은 대만에서 스님들은 신도들이 스승이 되고, 신도들은 스님이 스승이 되는 점이 한국불교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유학서 신도교육 중요성 느껴
대만 최초 한국사찰 홍법원 설립
1985년 대만서 '보조선 연구'로 박사 취득

무진장 스님 포교원장시절 실무국장 맡아
보조사상 연구원 등 이끌며 지평 넓혀
2012년 동국대 교수 퇴임후 선방수행 매진

"한국불교를 되돌아보면 신뢰관계 회복이 무엇보다 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스님들이 의심될만한 짓을 절대 안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많은 스님들이 대만에 가서 대만 신도들이 스님에게 공양을 잘 올린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대접을 받게 됐는지 먼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재가자들도 스님들이 나쁘다고 비방하기보다는 나쁜 짓을 못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계율이란 것은 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입니다."

귀국 후 동산불교대 출강하며 애정 쏟아

법산 스님이 수학한 인순 스님은 도서출판과 시민도서관을 여는 등 재가자 교육과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만불교 복지의 대표격인 자제공덕회 설립자인 증엄 스님도 인순 스님의 제자였다. 1981년 12월 대만 최초의 한국사찰인 홍법원을 설립하기도 한 법산 스님은 대만에서도 무진장 스님과의 인연을 더해갔다. 무진장 스님은 81년 홍법원 개원부터 매년 대만을 찾아 교민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문하기도 했다. 법산 스님은 1985년 6월 중국문화대학에서 '보조선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86년 3월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임용돼 후학양성에 전념했다.

법산 스님이 대만에 가 있는 기간인 1982년, 무진장 스님은 동산반야회를 만들었다. 무진장 스님의 은사 스님인 동산 스님의 호를 따고 지혜를 구하는 반야의 길을 걷자는 의미였다.

"당시 무진장 스님이 기초교리를 3개월 씩 직접 가르치셨는데 방학 때 나오면 특별강연을 하고, 무진장 스님이 바쁘면 대신 강연을 하기도 했어요. 그 뒤에 한



1982년 11월 13일 동산반야회 창립법회 당시 사진. 법산 스님은 대만 귀국 이후 무진장 스님을 도와 강연 등을 진행했다.



법산 스님은 … 1945년 경남 남해 출생. 동국대 인도철학과 석사. 동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보조선의 연구〉로 대만 중국문화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했다. 유학 시절 대한불교 홍법원을 설립해 해외포교를 실천했고, 교수 임용 후에는 학계 뿐 아니라 조계종 교육위원장 등을 맡아 도제양성에 앞장섰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정각원장, 불교대학장, 불교문화연구원장, 한국선학회장, 한국정토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보조사상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국에서 동국대 교수가 돼서도 가끔 법문을 하곤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연이 포교에 대한 뜻을 함께 하며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도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의 길로 바르게 이끌어 주는 것이야 말로 승려가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님은 무진장 스님을 성철 · 법정 스님에 버금가는 근대의 선지식으로 꼽을 만 하다고 말했다. 조계사에서 40여년을 포교원력 하나로 지내며 자신은 가진 것 하나 없이 간 그 삶은 승려로서 본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성철 스님은 수행자로서 당대의 사표가 되신 분이고, 법정 스님은 사회에 불교의 가르침을 무소유를 통해 알리신 분입니다. 무진장 스님도 그 두 어른에 못지 않은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지녔어요. 무진장 스님은 가진 것 없이 주지도 하지 않았고, 정화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40여년을 조계사를 떠나지 않으며 오로지 대중을 위한 설법만을 했어요. 불교계의 온갖 분쟁 속에서도 오로지 부처님 말씀, 정법만을 일러주셨습니다. 이 시대 진정한 부루나 존자라 칭할 만 해요. 동산반야회는 이러한 무진장 스님에 대한 추모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진장 스님은 평소 자기 법문을 남기는 것도 꺼리셨지만 남아있는 것이 조금은 있습니다. 차차 설법집 등 자료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법산 스님은 무진장 스님이 그래왔던 것처럼 조용히 동산의 버팀목이 되어줄 계획이다. 지금까지 동산반야회가 스스로 잘 꾸려온 만큼 스님은 한 달에 한번 씩 첫 번째 토요일에 직접 법회를 진행하며 수행과 학문 부분에서 힘이 되려고 한다.



1984년 대만 홍법원에서 무진장 스님(사진 왼쪽)과 법산 스님. 무진장 스님은 매년 홍법원을 찾아 유학생들에게 법문했다.

'조선 불교통사' 역주 8년간 8권 펴내

법산 스님은 12월 10일부터 진행되는 한마음선원의 대만연수도 인솔한다. 이 또한 신도교육의 일환이다.

"10년 전 대행 스님이 계실 때부터 대만 연수를 가기로 했는데 못 갔던 것을 이번에 가게 됐어요. 1982년 대행 스님이 대만에서 세미나를 하며 인연을 맺었는데 그 이후 한마음선원에서 세미나를 할 때는 대만 성운 대사와 일본 나카무라 하지메, 박성배 교수 등이 모두 모여 불교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마음선원 스님들뿐만 아니라 신도회 사람들도 대거 가는데, 대만에서 또 다른 점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법산 스님은 신도들에게 불교의 새로운 경계를 맛보게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도 동원력이 최고인 곳 중 하나가 한마음선원인데 그 이유는 신도 개개인이 발심하도록 하는 것이 큽니다. 한마음선원에서는 주차정리 등 자질구레한 선원일을 돕는 이들 중에 대학교수들이 17명이나 됩니다. 학문적으로 일각을 이룬 이들이 마음을 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동안 법산 스님은 〈말 있는 곳에서 말 없는 곳으로〉, 〈문답으로 풀어보는 불교입문〉, 〈물속의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 등의 저서를 통해 재가불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왔다. 학자로서는 보조사상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선학회, 인도철학회, 한국정토학회, 아태불교문화연구원 등을 이끌며 불교학 지평을 넓혔다. 특히 불교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조선불교통사' 역주팀을 8년간 맡아 8권으로 펴내기도 했다. 2012년 동국대 교수를 정년퇴임하고 법산 스님은 지리산 일대 선방에서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명색이 선학과 교수로 선종사를 전공했는데, 그 전부터 실참 수행 없이 이론은 모래알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저녁으로 수행하고 금강경 10만독을 발원했지만 정년 이후에는 한 생각을 놓고 가서 수행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지요."

사실 스님은 공부하는 틈틈이 통도사 극락암에서 안거에 들었다. 정년퇴임하기 4년 전부터 연구년 등에 실상사 벽송사에서 안거에 들기도 했다. 현재는 실상사 백장암에서 안거에 드는데 당시 벽송사에서 인연을 쌓은 도반 스님들과 같이 수행하고 있다.

"젊은 스님들과 어울려 도반으로 지내니 참 좋아요. 스스럼없이 지내며 배우는 점도 많습니다. 내가 그동안 느끼지 못한 부분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생 동안 출재가 후학들을 양성하며 함께 수행하는 길을 걷겠다는 스님의 모습에서 추운 겨울 마시는 차 한잔의 따듯함이 번져나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가슴 깊이 부처님 느끼게 하는 것이 전법

비로자나국제선원을 연 이유

비로자나 국제선원은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해 있다. 내가 이곳에 선원을 만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의 수행을 가족들과 나누기 위함이었다. 진정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음 수행을 가족들과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가족들이 모두 불자라고는 해도 신심이 그리 깊지 않아 불교를 생활 깊숙이 느끼게 하고 싶었다. 부모님만 빼고 모든 7남매가 서울에 살며 그중 첫째와 둘째는 서대문구에 산다. 거기에다 식구가 많다보니 조카만 해도 12명이다. 나름대로는 매주 일요일에 법회를 열어 삶에 지친 그들에게 마음속 평화를 찾게 하고 싶었던 것이 나의 의도였다. 어느 날 도반 스님과 무악재역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누군가 "스님~"하고 반갑게 부른다. 돌아보니 첫째 조카다. 같은 동네에 살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아이를 만나는 것은 고작 일 년에 한 두 번이다. 귀엽기만 하던 꼬마가 어느덧 자라 이번 달 말에 결혼을 한다고 한다.

"퇴근길이니?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 힘든 일은 없어? 이모들에게 혼수품 하나씩 해 달라고 해. 모두 너를 돕고 싶어 하더라."

"괜찮아요. 혼수품은 이미 카드로 샀어요. 카드값만 갚으면 되요."

"그래? 엄마가 안도와 주시니?" 했더니 "아니요. 제 힘으로 해야지요. 어떻게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요." 하며 빙긋 웃는다.

기특하다. 문득 35년전 우리가 자랄 때가 생각난다. 딸 여섯에 어렵게 아들 하나를 얻으신 부모님은 교육열이 뜨거운 분들이셨다. 입학금이 없어서 마음 고생을 했던 아픈 추억을 가지신 아버지는



그림 · 박구원

우리에게 공부는 하고 싶은데 까지 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합격만 하면 학자금은 대주시겠다고 선언하셨다. 하지만 당시 지방공무원인 아버지의 월급으로 모두를 대학까지 보낸다는 것은 어린 우리가 보아도 어려워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우리 맏이인 대장은 여동생 다섯 명과 남동생 한명을 불러 앉혀놓고 이런 제안을 하였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부모님은 자식이 많으셔서 모두 공부도 시키고, 시집 장가를 보낸다는 것은 힘드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규칙을 정했어.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부모님께 오십만원을 드리고 결혼자금은 벌어서 갈 것. 그리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은 부모님께 받은 학자금을 모두 갚고 결혼자금까지 벌어서 결혼할 것. 단, 학자금을 갚지 못하면 결혼은 할 수 없어. 그래야 그 돈으로 다음 동생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 모두 이 규칙을 지켜야 해."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나는 그런 대장이 참으로 자랑스러웠다. '어떻게 저런 좋은 생각을 했을까? 확실히 대장은 다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재미있다. 겨우 스무 살 된 아이가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동생들을 쪼르르 앉혀 놓고 그런 설득을 하다니! 우리는 어린 마음이지만 부모님을 도와야 한다는 대의 명제 앞에 서로 그 약속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했다.

각자는 스스로의 인생을 설계하고 열심히 살았다. 우리의 명제는 부모님의 도움없이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각자의 살람 살이를 챙기면서도 진심으로 서로를 도왔다. 그래서 나 또한 출가할 때 그동안 받은 대학학자금 삼백만원을 갚고 당당히 출가했다.

출가자로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함에 늘 죄송하지만 그나마 마음이 가벼운 것은 그나마 학자금을 갚아서 인 것 같다. 35년 전에 우리에게 그랬듯 우리 대장은 자기 자식에게 까지 그런 교육을 시켰던 것이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는 부모보다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는 부모가 현명하다. 당시 어린 우리가 그런 결정를 자발적으로 한 것은 부모님의 성실하고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포교도 마찬가지다. 화려한 모습보다 수행의 향기가 몸에서 풍겨 나올 때 사람들은 감동을 하고 무언의 가르침을 받는다.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고대 불상 조각, 고국 미얀마로 돌아간다

미얀마 1989년 도난당한 바간 지역 사암 불상 조각 돌려받아
캐서린 레이몬드(일리노이대학) 교수 노력으로

1989년 밀반출된 고대 불상 일부가 고국, 미얀마로 돌아간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지는 11월 2일 "1989년 미얀마에서 밀반출된 불상 일부가 캐서린 레이몬드(Catherine Raymond, 일리노이대학) 교수의 노력에 힘입어 11월 중 미얀마로 반환된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불상 일부는 미얀마의 대도시 바간 시 근교에 있는 사암 불상의 상단 부분으로 알려졌다. 이 불상은 19세기 바간 시 일대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훼손된 이후 복원되지 않고 보관되었는데, 1989년 도난당해 밀반출된 것이다.

당시 관련 학자들은 "바간 시 근교 고대 불탑에 조성된 이 불상은 바간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불교와 당시 권력층과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유산"이라며, 도난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불상 일부는 이듬해 미국 골동품 시장에 나타났고, 미국인 미술상이 이를 구입했다. 그러나 밀반출, 밀반입 유물로 밝혀지면서 FBI가 이를 압수, 지금까지 뉴욕 소재 일리노이 대학 부설 미술관에서 보관해 왔다.

"이 불상의 일부를 처음 접했을 때가 1995년입니다. 그때 안타까움이 먼저 일었다"는 캐서린 교수는 "이 유물이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며 "유물의 가치를 밝히는 연구에 몰두해 '사암 불상의 독특한 도상과 수인이 당시 바간 왕국의 정치권력을 상징하도록 안배된 것임'을 알아내는 한편 2007년부터 반환 방법을 여러 사람과 논의해, 지금의 성과를 낳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캐서린 교수는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사암 불상 조각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를 반환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프랑스 주재 미얀마 대사', FBI, 연방검찰 등과 접촉하는 한편 민사 형사법정에도 서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사암 불상의 일부는 2013년 프랑스로 건너갈 수 있었고, 이제 미얀마로 돌아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미얀마 국립미술관은 "불상의 일부가 돌아오는 즉시 현재 보관하고 있는 불상의 하단 부분과 접합하는 복원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밝히고, "미얀마 행정 당국이 유물 밀반출을 막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중 반환될 사암불상 조각은 19세기 지진으로 부러졌던 부처님의 몸통 하부 부분의 복원을 통해 2014년 2월부터 국립박물관에 상설 전시될 예정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1989년 밀반출된 고대 불상이 미얀마로 돌아간다. 이번에 반환되는 불상 일부는 미얀마의 대도시 바간 시 근교에 있는 사암 불상의 상단 부분으로 알려졌다.

티벳 불교계, 히말라야 수원 지키기 나서

세계 야생 기금 후원 … 17대 칼마파 '신성한 대지 프로그램' 운영
"인도 · 네팔 · 티벳 망명정부, 히말라야 수원 함께 보존해야"



17대 칼마파 오겐 틴레 도르제(Ogyen Trinley Dorje) 스님. VOA 지와의 인터뷰에서 스님은 "인도?네팔 정부가 티벳 망명정부의 히말라야 수원 보호에 보조를 같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히말라야 지역 50개 티벳 사원이 청정한 물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았다.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이하 VOA)〉 지는 "50개 티벳 사원 대표 스님들이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모여, 티벳 고원의 수원(水原)을 보존하고 주변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한 '티벳 고원의 청정한 물'을 주제로 지난 5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VOA 지는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오겐 틴레 도르제(Ogyen Trinley Dorje) 스님의 말을 인용, "이번 회의는 티벳 고원 지대의 직면한 환경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대처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17대 칼마파로 불리며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받는 오겐 틴레 도르제 스님은 "현재 티벳 고원 지대의 기후 변화로 영구 동토층이 용해되면서 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티벳 고원의 수원은 대부분 아시아 각 지역으로 흘러가고 있어, 이 문제는 비단 티벳 고원의 문제로만 볼게 아닌, 아시아 전 지역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00년 1월 5일 14세의 나이로 히말라야를 넘어 망명한 이래 20년 가까이 티벳의 불교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오겐 틴레 도르제 스님은 최근 '세계 야생기금(World Wildlife Fund)'의 후원을 받아, 티벳 고원 지대에 있는 50개 사원이 참여하는 '신성한 대지 프로그램(Sacred Earth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토론회는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VOA〉 지는 "히말라야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는 데 아시아 국가의 관심이 절대적"이라는 티벳 망명정부의 텐진 노르부(Tenzin Norbu) 환경 · 개발 국장의 말을 인용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국가간 연대와 비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며, 티벳 망명 정부는 특히 인도 정부의 깊은 관심을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VOA〉 지는 또한 "티벳 고원과 떨래야 뗄 수 없는 지리적 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인도와 네팔 정부가 티벳 고원의 환경적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고, 티벳 망명 정부와 연대해 고원의 생태계를 지키는 데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번 토론회에서는 '친환경적인 지하수 개발 및 사용' '빗물을 이용한 지하수 보충' 등과 같이 수자원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인 방법론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됐다.

오종욱 편집위원

중국 불교 성지 오대산 인근에 공항이?

성지순례객 위해 공항 건설

불교의 성산이라 불리우는 오대산 인근에 '성지순례객들을 위한 공항'이 들어선다.

오대산은(五臺山)은 중국 4대 불교 명산 중 으뜸으로 손꼽히는 곳. '금의 오대산, 은의 보타산, 동의 아미산, 쇠의 구화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산의 절경과 더불어 역사가 깊은 각양각색의 절을 보러 매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2009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신설되는 공항은 오대산에서 70㎞가량 떨어진 곳에 만들어진다. 군사용 비행장이었으나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리모델링됐다. 지금까지는 중국 태원에서 1일 4~5회 운행되는 버스를 타고 오대산으로 갈 수 있었다. 북경에서는 흔주까지 간 후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공항 건설로 오대산까지 1시간도 안 걸릴 만큼 차편이 간소해졌다.

중국 최초의 사원인 낙양 백마사와 같은 해인 서기 68년에 창건된 현통사를 비롯, 당나라 때 지어진 불광사, 500개 대규모 조각상이 있는 수상사 등 53개 사찰을 품고 있다. 1세기부터 20세기까지 중국 불교사원 건축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또한 중국 내륙지역의 불교와 티베트 불교까지 공존하여 중국 불교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건설에 우리나라 돈으로 1500억원 이상이 투입된 공항은 2015년에 완공되며 연이용객이 3만 5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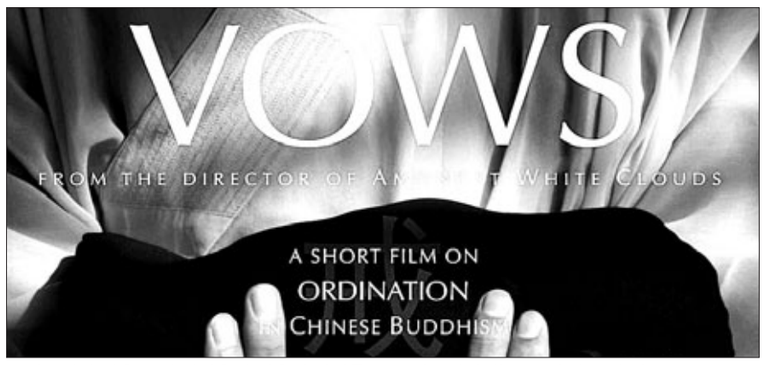
배현진 기자



중국 4대 불교 명산 중 하나인 오대산 인근에 공항이 들어선다.

7명의 중국 스님 출가사연 다큐로

'VOWS'(서원)… 37분 영상으로 수도승 생활 조명



스님들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과 계율의 의미를 묻는 다큐멘터리 'VOWS'의 스틸 컷.

중국 불교의 수행과 계율을 그대로 접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됐다.

작품의 제목은 'VOWS', 우리말로 '서원'이다. 부제는 '계(戒)'다. 37분 길이의 영상으로 간략하면서도 밀도있게 수도승들의 생활을 그려내고 있다.

다큐는 7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스님이 된 사연을 축으로 삼아 이야기를 전개한다. 스님들의 진솔한 속내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불교 수행의 전통을 지키는 데서 오는 갈등과 고민 또한 담아냈다. 깨달음과 수행의 의미를 짚어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공개된 예고편에 등장한 스님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계율로써 지켜야했다"며 그 과정 중에 많은 의문이 들었음을 고백하기도 했다.

촬영은 선 수련으로 유명한 백림사에서 진행됐으며 백림사 밍 윙 스님이 내레이션을 직접 맡았다.

"우리는 인생을 모르지만 살아야 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지만 많은 실수를 할 것이다." 담담한 스님의 내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수행승의 이야기지만 삶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기에 일반인으로서 공감하는데 문제가 없다.

미국 다큐멘터리 감독 에드워드 버거(Edward Burger)의 작품으로 '부처를 꿈꾸다(Dreaming Buddhas Project)' 시리즈로 기획된 두 번째 영상이다. 첫 번째 작품은 'Amongst White Clouds'로 중국의 숲속에서 은거하며 홀로 수행 정진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현자같은 스님부터 깨달음을 위해 금욕하고 고행하는 수행자 등이 등장한다. 은근한 유머와 따뜻함이 살아있는 작품으로 고통과 깨달음 사이에 놓인 인생을 관조할 수 있다.

버거 감독은 인도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적 의미가 담긴 작품을 주로 찍어왔다. 그는 영화를 찍는 자신만의 원칙으로 사람들을 깨어있게 만드는 영상제작을 꼽았다.

배현진 기자

동남아시아 불교 힌두교 예술 보존 청신호

알파우드 재단, 3초 5천억원 연차 지원 계획 밝혀

동남아시아 불교와 힌두교의 예술의 보존과 연구에 청신호가 켜졌다.

〈힌두(The Hindu)〉 지는 11월 4일 알파우드(Alphawood) 재단의 보도자료를 인용, "알파우드 재단이 동남아시아의 불교와 힌두교 예술의 보존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런던대학 산하 '동양 · 아프리카 학회(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이하 SOAS)'의 연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에 본부를 둔 알파우드 재단은 향후 20억 파운드(약 3조 5천억 원)를 연차적으로 SOAS에 지원한다. 이 기금은 SOAS 산하 80명의 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물론 SOAS 산하 '아시아 예술 학교(School of Asian Arts)'의 운영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알파우드 재단이 동남아 불교와 힌두교 예술을 보존 · 연구하는 런던대 '동양 아프리카학회'를 지원하기로 했다.

2009년 개설, 운영되고 있는 SOAS의 '아시아 예술 학교'는 동남아시아 종교, 언어, 예술, 고고학 등을 교육과 연구의 주요 주제로 삼고 있는 최고의 전문학교로 관련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오종욱 편집위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氣giban
나만의 참선세계 氣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氣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氣giban
氣giban 참선 선정과 만남,진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지구 환경을 해치는 종이컵 대신 이제부터 (법어가 담긴 에코컵)을 사용하세요. 늘 곁에 두고 음미하고픈 대행스님의 법어!

도자기
법어가담긴 에코컵

series 1. 마음
series 2. 대장부

종 류	구 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병고로 시름하는 모든 분들이 약사여래부처님 신앙으로 병마로부터 벗어나기를 발원합니다

"병고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약사여래부처님이 상주하고 계시는 현지사 고성분원 약사성전으로 오십시오"

중생의 병고에는 몇가지 원인이 있다고 했지요? 사대가 조화되지 않아서 오는 병은 병원에 가면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업의 과보로 오는 업병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또 귀신이 붙은 병은 못 낫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붙었건 업병이건 사대의 조화가 되지 않아서 왔건 간에 약사부처님한테 오면 문제가 해결 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약사부처님이 계시는 이 약사궁을 찾아오라 그거예요. 기도도 붙이고, 오늘과 같이 약사재일날 함께 공양도 올리고 해라 그거요. (2013년 10월 12일 약사재일 자재만현 큰스님 소참법문 중에서)



약사삼존불을 봉안하는 점안식 – 약사여래부처님과 좌우보처 일광불 일광변조보살님 월광불 월광변조보살님께 스님들이 공양을 올리고 있다

사고사할 뻔한 남편이 약사부처님 가피로 기적처럼 소생하다

리모콘의 오작동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기계 중간에 몸이 끼어서 모든 장기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갈비뼈가 8대 부러졌고 콩팥, 폐, 간, 위 등이 완전히 손상되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약사여래부처님께 첫 번째 공양을 올리고 나자 마음은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 · · ·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사고가 난 지 25일만에 의식이 돌아왔고, 중중환자실에서 45일만에 일반병실로 옮기고 10일 정도 더 치료했습니다. 지금은 창원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고, 음식도 잘 먹고, 말도 잘 하고 정상인처럼 되었습니다. 의사도, 환자의 처음 상태를 본 주위사람들도 이건 기적이라고 말들 합니다. (2012년 4월 20일 창원에서 정경숙)

– 현지사 홈페이지 '신행담' 중에서

약사재일 - 매월 음력 8일 (9시 30분) 봉행합니다.
약사여래부처님 공양 · 기도 접수받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대진항길 7 팩스 033)681-5538

영산불교 현지사 고성분원 약사성전 전화 033)681-5515

※ 약사재일에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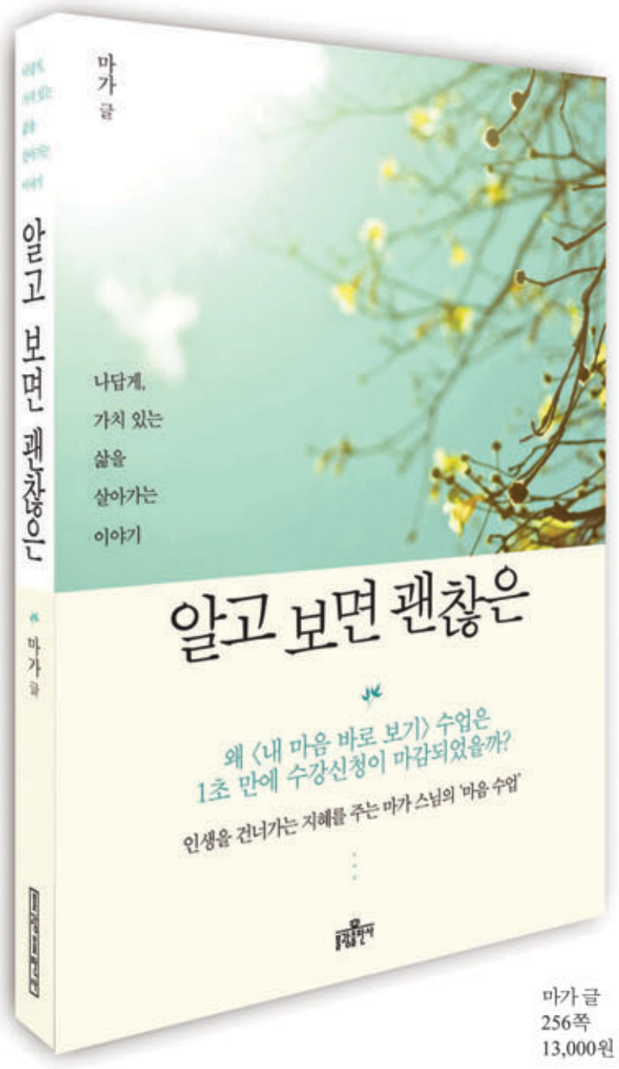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심을 선언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
(영산불교 현지사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춘천본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 전화 033)243-1787, 팩스 033)243-4371,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화는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죄가 되지만, 알아차리면 사라집니다."



인생을 건너가는 지혜를 주는
마가 스님의 '마음 수업'
'자비로워지는 것'이
왜 궁극의 치유가 되는지를 전하는
성찰의 언어



최일도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갑 교무 추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연합뉴스 등 언론에서 집중 보도한 화제의 책!

마가 글
256쪽
13,000원

마가 스님
아버지가 남긴 상처를 딛고 일어선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웃음과 따뜻한 말을 되찾아주는 힐링 멘토가 되었다. "마주한 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궁극의 치유"라고 말하는 스님은 전국의 기업, 학교, 사찰, 관공서를 돌며 자비 명상 보급에 힘쓰고 있다. 중앙대학교에서는 1초 만에 수강신청이 마감되는 최고 인기 강의 〈내 마음 바로 보기〉 수업을 이끌었으며, 최일도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갑 교무와 함께 희망이 되는 종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자비명상 대표, 한국마음치유협회 회장, 동국대학교 정각원 교법사를 맡고 있다.

나답게, 가치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
알고 보면 괜찮은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孝 일깨우는 '칸타타 부모은중송'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미주 순회 공연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단장 황학현) 창립 2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및 미주 순회연주를 갖는다. (사)해피월드가 주최하고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이 주관하는 '박범훈의 칸타타 부모은중송'은 12월 4일 오후 7시 30분 KBS홀에서 열린다.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 무용 · 관현악단(단장 황학현)은 이 자리에서 '부모은중송'을 무대에 올린다. 이 곡은 1996년 광덕 스님이 〈부모은중경〉을 찬미한 시에 박범훈(前 중앙대 총장)이 곡을 붙인 것이다.

광덕 스님은 '부모은중송'의 가사를 쓰던 당시 "부처님이 비할데 없는 깨달음을 성취한 것도 다생(多生)동안 효도한 까닭"이라며 "효가 바로 인간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진실한 인간을 행하는 길이며,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큰 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연주회를 기획한 황학현 단장은 "부모은중송은 바흐나 헨델이 만들었던 대합창 칸타타(교성곡)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불교를 찬송하는 대규모 합창곡으로 인정받고 있는 곡"이라며 "특이 어린이 청소년들과 여성합창의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는 듣는 이의 오감을 맑게 씻어 주고 효 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이번 연주회는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창단 20주년기념과 제 20회 정기연주회로 기획되며, 졸업생 중 성악전공자 20여명과 서울경기남불교합창단연합회 소속 200여이 함께 무대에 선다. 또한 국악계의 유망주로 주목 받고 있는 김경미(이화여대), 한아름(중앙대), 한진수(중앙대)가 출연 하여 소리를 이끄는 대합창으로 어린이청소년들과 여성합창의 아름다운 미성과 감성을 한껏 뽐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입장권은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이다.

한편,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은 내년 1월 8일~20일 미주 순회공연을 갖는다. 밴쿠버(서광사) 토론토(대각사)에서 열리는 캐나다 공연은 더글라스 킬리지 극장에서 공연된다. 시애틀(정토법당 · 정각사)과 포틀랜드(보광사)는 주관 사찰 경내에서, 로스엔젤레스(관음사, 반야사)는 후기성교회에서 공연을 갖는다. (02)725-7849

정혜숙 기자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의 '박범훈의 칸타타 부모은중송' 공연이 12월 4일 오후 7시 30분에 KBS홀에서 열린다.

새벽 사불로 완성한 '탕카' 대중 속으로

재미교포 윌리엄리 '행복왕국에서…' 전





윌리엄리의 '행복왕국에서 건너온 신의 미소' 전이 2014년 1월 31까지 전북 정읍 갤러리 정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만다라와 탕카 미술 29점을 만나볼 수 있다. 사진 왼쪽은 부귀를 상징하는 녹색 따라보살, 사진 오른쪽 백색 따라보살은 질병을 막아준다고 전해진다.

"매일 매일 수행하는 마음으로 탕카 사불을 했습니다. 한국 불자들은 사경을 많이 하지만 티베트 부탄 등에서는 사불을 많이 하죠. 초안은 기존 그림에서 가져오지만 탕카를 그리다 보면 그 안에 작가의 내면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자신만의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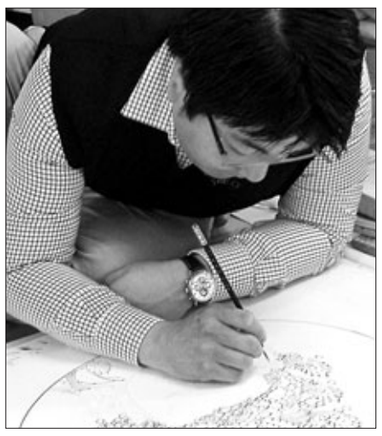
전통 히말라야 미술의 전승을 이어 탕카 사불로 수행을 하고 있는 재미교포 윌리엄리(한국부탄문화원장)가 전시회를 열었다. 2014년 1월 31까지 전북 정읍 갤러리 정에서 열리는 '행복왕국에서 건너온 신의 미소' 전시에서 작가는 만다라와 탕카 미술 29점으로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의 전통 미술은 1000년 넘게 민족의 불교와 전통문화를 반영한 화려한 색채와 정밀한 디테일을 자랑한다. 특히 이 지역의 미술을 '탕카'라고 부르는데, 한국 불교사찰의 불화를 칭하는 '탱화'라는 단어가 바로 이 '탕카'라는 단어에 어원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윌리엄리는 대학 2학년 때 워싱턴 D.C에서 달라이라마의 법문을 듣고 불교에 귀의했다. 10여년 전부터 사불수행을 위해 티베트 라룽가르 불교대 전통불화승 켄포악왕의 제자가 되어 정식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후 매일 새벽 물을 끓여 석채를 개어 절실한 마음으로 사불을 하며 수행과 기도를 이어왔다.

이렇게 완성된 그의 작품들은 녹색따라, 백색따라, 천수관음, 약사여래, 육도윤회, 금강살타 등 다양한 밀교식 탕카로 탄생되었다. 특히 부탄-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사랑받는 불보살인 따라보살은 주목된다. 성이십일존따라예찬경에 따르면 "(따라보살은) 삼계의 수호자인 관세음보살님이 흘린 연민의 눈물방울에서 피어난 한 줄기 연꽃에서 탄생하셨다"는 기록이 있다. 이 녹색 꽃과 백색꽃은 녹색과 백색 따라를 각각 탄생시켰다. 윌리엄리는 "녹색몸의 따라는 수명과 부귀 복덕과 지혜를 담당하며 백색 따라는 질병의 구제와 액난의 소멸과 마장을 파괴한다"고 설명한다.

티베트 불교 심취해 사불 수행 시작
내년 1월까지 갤러리 정서 전시
최근 한국부탄문화원장에 부임도



작가 윌리엄리는 10년째 매일 아침 사불 수행을 한다. 탕카에 이어 최근에는 한국의 불화도 공부중에 있다.

이밖에도 '육도윤회'는 그 사람의 업에 따라 천상계 수라계 인간계 축생계 아귀계 지옥계로 나뉘어 태어난다는 불교와 힌두교의 사후세계를 보여준다. 12상도는 석가모니의 생애를 표현한 것으로 한국의 팔상도와 비교될 만하다.

이렇게 시작된 작가의 사불 수행은 한국 불화로 옮겨왔다. 2009년 한국에 정착한 그는 일섭문도회 전수자 일현 이철승 선생에게 한국불화를 공부하며 백의관음 화관보살 문수보살 등의 한국 불화를 완성해 냈다. "탕카와 한국불화의 문양이 많이 다른 듯 보이지만 그 시원을 따지면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려불화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고 이는 밀교의 영향이 크죠. 그래서 우리의 불화 역시 그 시원을 밀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탕카와 고려불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는 정읍에 이어 내년 2월 보성대원사 티베트 박물관을 거쳐 서울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또한 불교 국가 부탄의 매력에 빠져 2005년부터 20여 차례 부탄을 방문한 윌리엄리는 작년에 한국부탄문화원장으로 부임, 앞으로 전시와 더불어 '부탄행복명상'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작품 판매 수익금 전액은 티베트 비구니사원 어린이 고아원에 기부된다. 티베트 본토에 위치한 야칭스라는 비구니사원과 카최카키일 사원은 약 500명의 비구니스님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곳이다. 이 사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고아원은 항상 음식이 부족해 어린이들의 영양실조가 걱정되는 상태다. (010)9674-0012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경주박물관 낭산 석조여래좌상 공개

11월 12일 신라역사관 문 열어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이 11월 12일부터 새롭게 단장한 신라역사관을 일반에 공개했다. 특히 중앙홀에는 경주 낭산(狼山)에서 출토된석조여래좌상이 배치돼 눈길을 끈다.

이는 신라 하대에 유행했던 약사불 신앙을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 가운데 하나로, 일제강점기에 서울로 올라간 이래 처음으로 고향인 경주에 돌아와 선보인다.

경주박물관은 1975년 처음 문을 열었던 '고고관'의 이름을 '신라역사관'으로 바꾸고,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4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진 신라역사관의 전시 면적은 약 1300㎡이며, 전시실 내 진열장의 전체 길이는 약 184m로서 옛 고고관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시품도 4,300여점으로서 30%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천마총 금관과 허리띠 등의 국보가 3점이며, 보물은 19점이다.

제1실은 신라의 건국과 성장을 제2실은 황금의 나라-신라를 제3실은 강력한 중앙집권 왕국을 제4실은 신라의 융성과 멸망을 주제로 한다. 특히 3실에서는 불교와 관련되는 흥륜사와 영묘사 출토품, 진흥왕대의 영토 확장을 보여주는 진흥왕 순수비 탑본, 전쟁을 대비해 쌓은 남산신성비와 명활산성 작성비 등을 전시한다.

정혜숙 기자

부처님 가르침에서 일깨운 '생명의 빛'

불화작가 정혜성의 개인전…11월 27일부터

불화작가(佛母) 송헌 정혜성의 '생명의 빛' 개인전이 11월 27일~12월 3일 인사동 갤러리 아이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연꽃 소나무 단풍 등 25점의 문인화를 작품에 담아냈다.

오랜 시간 불화를 그려온 작가는 불화의 새로운 시도를 위해 문인화로 작품을 표현해냈다. 알록달록 단풍은 삶의 마무리가 그리 초라하지 않음을, 부처의 마음을 담은 연꽃은 화려함과 청정함의 조화를, 꼿꼿한 소나무는 굴하지 않는 기세를, 초록의 새싹은 생명의 근원을 일깨워준다. 이처럼 작가는 자연을 통해 참된 '생명의 빛'을 전해준다.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인간의 스승입니다. 산 위에 우뚝 선 바위는 인간에게 혼탁 속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초연히 내면의 중심을 지키라고 경고합니다.

불화의 한 과정이기도 한 문인화에 매료된 것도 이런 '생명의 빛'에 끌렸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양심을 밀어내고, 거짓이 진실을 가리고, 화려함이 소박함을 덮는 이 시대엔 그 '생명의 빛'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작가는 경전공부 참선수행 등으로 불법의 가르침을 생활화하고 있다. "한때 출가를 결심하기도 했지만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그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일상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시는 불화를 주제로 해보고 싶습니다." (02)733-3695

정혜숙 기자



송헌 정혜성의 '생명의 빛' 전이 갤러리아이에서 열린다.



대한불교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
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전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가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현재 31종 62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바른북

"이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은
인식의 표상에 불과하다"



불교심리학의 정수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 강의
이계묵 역해
246*178mm | 흑백 | 332쪽 | 15,800원

마음 밖에 따로 대상이 없음을 설한 대승 심리논서

대소승을 막론하고 〈유식삼십송〉은 불자라면 꼭 연구해야 할 필독서다. 마음을 닦아, 마음을 깨달아 안심(安心)을 얻고 완전한 자유를 얻는 불교심리학의 정수가 바로 이 경전에 담겨 있는 까닭이며, 마음을 주제로 하여 교학을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유식삼십송 해설은 동학사 강원본을 참조하였으며 일본 龍名大學 불교학 교수인 深浦正文의 唯識三十頌論 解說本을 관응노사가 번역한 譯本(역본)을 참고하여 현대어로 풀어 엮었다.

비움과소통 www.facebook.com/BiumSotong (02)2632-8739

보 시

꿈과 노력이 있으면 성취할 수 있다지만 방법을
알고 있다면 더더욱 쉽게 성취 할 수 있겠지요.

[부처님의 진리를 담은 전심법해
삶의 방식과 지혜로 부자되는 방법
참회하고 노력하여 부자되는 방법
언행일치로 참 행복 얻는 방법]



4가지 책을 원하시면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설산 사자봉 사자암 송암스님 010-8224-1688 전화문의하세요.

책 발송을 원하시면 1만원 입금하시고
농협 : 351-0515-8213-93 예금주:사자암
책 받으실 법우님 주소를 문자 주세요.

하늘도 법당에도 무량보주 '가득'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매화점(梅花點)→무량보주(無量寶珠) ㊦



'매화점(梅花點)' 이란 용어는 단청 관련 모든 책에 예외 없이 나온다. 실제로 사찰 법당들은 물론, 경복궁이나 창덕궁 등 조선시대 궁궐의 크고 작은 건물에 그 조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나 그 조형에 시선이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면 왜 그 용어가 옳지 않은가? 옳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보니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귀면은 인터넷에서 한자로 전환하면 금방 '鬼面' 이 떠서 편리하지만, 용면은 전환할 수 없어 용(龍)과 면(面)을 따로따로 한자로 전환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므로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보주(寶珠)' 라는 용어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인터넷에서 단 번에 한자로 전환할 수 없다. 매화점 역시 자판 한 터치에 금방 뜬다. 인터넷에서는 '가장 옳은 용어는 뜨지 않고, 가장 그른 용어는 뜬다.'

매화점도 마찬가지다. 단청 전문가들의 모든 책에 매화점이란 용어가 있으나 설명이 없으며 더 나아가 법당이나 궁궐 건축에 왜 그리도 많은지 밝히지 않고 있다. 어찌하여 건축 곳곳에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조형들이 그리도 많은가! 그토록 많다면 필시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다. 매화점이라는 것은 매화꽃을 닮아서 붙인 이름일 것이다. 매화-난-국화-대나무 등, 사군자(四君子)를 먹물 묻혀서 붓으로 쳐 본 사람은 금방 알 것이다. 언뜻 보면 매화를 연상하지만 매화는 결코 아니다. 이미 말했거니와 근대 이전의 조형미술에는 현실에서 보는 조형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외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조형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기운' 을 표현한 것이어서 장인 이외의 사람들은 그 보이도록 나타낸 조형들이 눈에 보일 리 없다. 사람들이 매화점이라고 부르는 조형은 '우주의 기운' 을 표현한 것이다. 왜 그런지 증명해 나갈 것이다. 무한한 우주의 상징을 최대한으로 압축한 것이어서 인류는 그 조형의 구성 원리와 상징구조를 읽어내어 문자언어로 기록하지 않았다. 장인들은 충분히 알고 그렸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본 비슷한 사물을 보고 용어를 만들었으므로 매화점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영원히 매몰시켜 왔던 것이다. 단청 책들에 나오는 매화점에 대한 설명을 다음에 인용하여 읽어보기로 하자.

'부리초' 란 부재의 끝 마구리면에 장식되는 문양을 가리키는 것으로, 부연이나 서까래, 보, 도리, 평방, 창방, 사래, 추녀, 첨차의 부리가 모두 해당된다. 각 부리의 중심에는 간단한 단독 문양을 장식한다… 부리초 문양으로는 먹 바탕에 백색 매화점이나 백색 태평화 등… 이 사용된다. 매화점은 백색으로 중심의 꽃 심에 해당하는 원을 찍고, 다시 그 둘레에 원을 5~6개 찍어 완성한다. 태평화는 천하가 태평해 만사가 평안해지기를 기원하는 도안이다… (〈한국의 단청〉, 곽동해 지음, p. 283)

태평화(太平花)도 한자로 전환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다. 매화점과 태평화는 조형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을 지닌 것인데 이 글에서는 매화점만 다루기로 한다. 매화점의 정체를 밝혀보면, 한 마디로 '무량보주(無量寶珠)' 를 말한다. 즉 중앙의 비교적 큰 보주에서 사방으로 여러 개의 작은 보주가 생겨나는 조형으로 그 조형의 역사는 유구하다.(그림 ①)

단청의 무량보주를 자세히 보면 중앙의 보주에서 주변의 보주에 모두 가는 줄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중앙의 보주에서 무량한 보주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가는 줄이 있는 조형은 말할 수 없이 귀중하다. 그런 조형이 경우에 따라 줄이 없어진다. 우선 부석사 괘불의 하늘에서 그런 조형을 찾아볼 수 있다.(그림 ②)

원래 하늘에는 무량한 보주가 가득 차 있는데 그저 수많은 보주들로 가득 차게 하면 혼란스러우므로 중앙에 보주를 두고 주변에 보주를 두르는 단위의 조형을 만들어 검은 하늘에 가득 배치한다. 밤하늘이 아니다. 옛 사람들은 하늘이 깊어서 현(玄)이라 표현했으므로 검게 칠한 것이지 밤하늘이 아니다. '별 같이 보주들이 가득 찬 하늘' 이다. 불화의 이런 조형을 보고 매화점이라 부를 것인가?

11월 12일, 통도사 적멸보궁 조사하러 가면서 관음전(觀音殿)의 부연이나 서까래, 보, 도리, 평방, 창방, 사래, 추녀, 첨차 등 그 수많은 마구리는 물론 일체 부재뿐만 아니라, 지붕의 각종 기와에서 우리가 매화점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무량보주' 라고 고쳐야만 하는 조형들이 명료하게 눈에 들어왔다. 무한한 우주의 압축인 법당전체에서 무량보주가 폭발하듯 발산하는 장엄한 드라마를 보았다.(그림 ③)

보주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보주라도 보주에서 무량한 보주가 나오므로 무량보주라고 인식해야 한다.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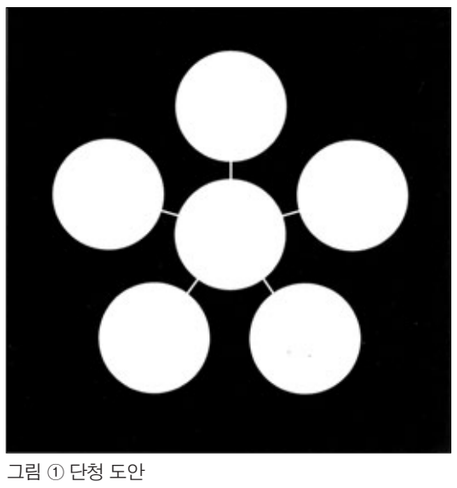


그림 ① 단청 도안



그림 ② 부석사괘불의 하늘의 무량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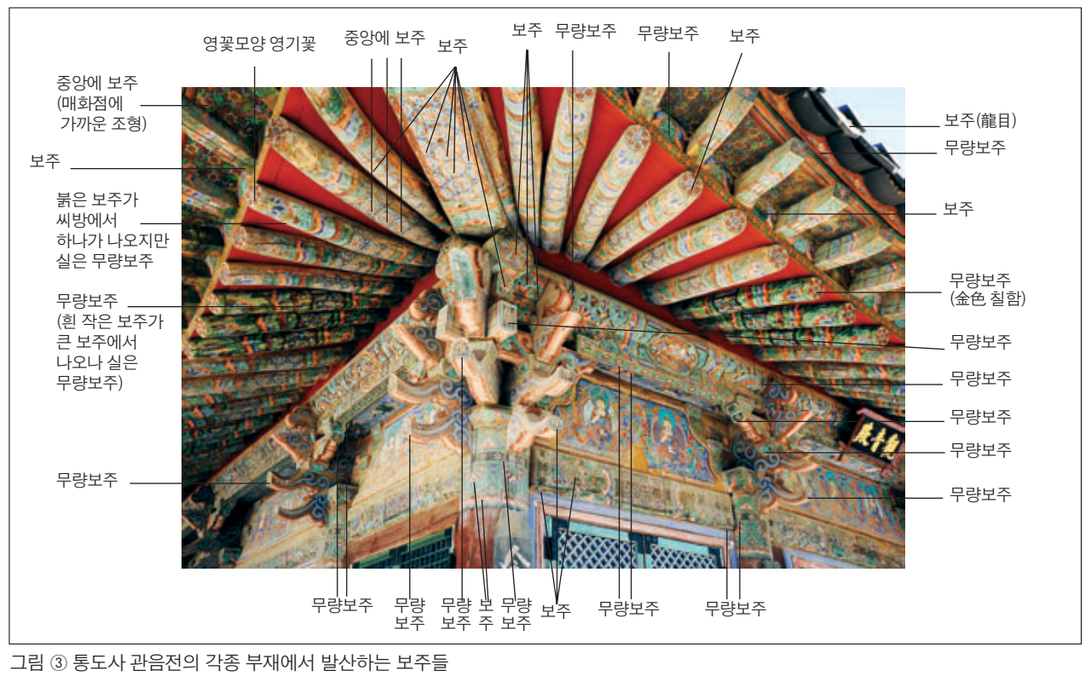


그림 ③ 통도사 관음전의 각종 부재에서 발산하는 보주들

藥이 되는 사찰음식

팥죽과 함께 먹는 겨울 별미 '동치미'



양배추 김치

△재료(4인 기준)

○ 양배추 1/2통, 무 100g, 미나리 30g, 청고추 2개, 홍고추 1개,

○ 국간장 1/2컵, 맛국물 2큰술, 고춧가루 1/3컵, 다진생강 1/2큰술, 소금 약간, 호박풀

○ 맛국물 2/3컵, 찐단호박 100g

△만드는 법

① 양배추는 가운데 심을 파 내고 엷은 소금물에 1시간 가량 절여 헹궈 물기를 뺀다.

② 무, 청홍고추는 채썰고 미나리는 4cm 정도의 길이로 썬다.

③ 맛국물에 찐 단호박을 넣고 풀죽을 쑨다.

④ 모든 재료 골고루 잘 섞어 김치 양념을 만들어 양배추 사이사이에 채운다.

동치미

△재료(4인 기준)

○ 동치미 무 1단(2kg), 소금 2/3컵

○ 배 1개, 청각 20g, 삭힌 고추 10개, 생강 30g,

○ 물 2ml, 소금 3큰술

△만드는 법

① 동치미 무는 깨끗이 씻어 소금에 버무려 2~3일 정도 실온에서 절인다.

② 항아리에 배, 청각, 삭힌 고추, 생강을 주머니에 넣어 담은 후 절인 동치미 무를



넣는다.

③ 물에 소금을 넣어 잘 푼 다음 항아리에 부어 무가 떠오르지 않도록 무거운 것으로 눌러 익힌다.

위장병에 좋은 양배추 김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한겨울을 나기 위한 김장을 하게 된다. 집집마다 절집마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많은 김치를 담그게 되는데 그래도 겨울이면 꼭 담그는 것 중에 하나가 동치미이다.

동치미는 겨우내 먹기 보다는 11월 경에 담아서 동지 전후로 팥죽과 함께 먹게 될 때 그 맛이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동치미를 담글 때는 무의 겉 껍질을 벗기지 말고 잔털을 정리하는 정도로 해야 무가 무르지 않고 아삭하게 되며 절일 때도 일반 김치 담그는 것과는 달리 소금에 무를 굴려 2~3일 넉넉히 절여야 간이 알맞게 배이게 된다.

잘 절여진 무에 시원한 맛을 더해주는 배와 청각 등의 부재료를 큼직하게 썰어 잘 숙성시킨 동치미는 우리 식탁에서 가장 좋은 천연 소화제라고도 할 수 있다. 김치의 유산균은 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장내 미생물의 분포를 정상화시키고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성인병 및 항암에도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충치를 예방하고 숙취해소와 소화 작용에 좋으며 농약이나 연탄가스 등의 중독에도 좋은 작용을 한다.

양배추김치는 최근 들어 많이 담궈 먹는 김치 중의 하나다. 양배추의 비타민 K와 U는 위장병에 좋으며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매운 김치를 못 먹는 사람들에게 좋은 김치다.

양배추김치를 담글 때는 소금물에 절이는 시간도 2시간 정도로 살짝 절이고 고춧가루의 양도 적게 넣는 것이 포인트이다. 또한 찹쌀가루로 풀을 쑤는 대신 단호박이나 늙은 호박을 찌거나 삶은 후 맛국물에 풀을 쑤게 되면 감칠맛 나고 부드러운 김치가 된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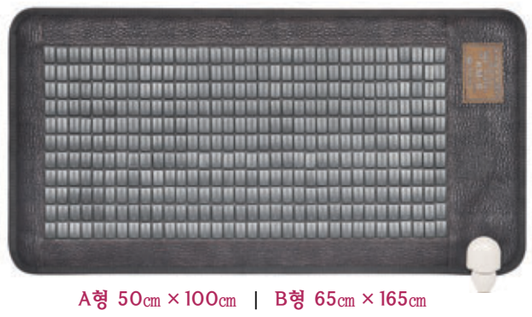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귀사문석(貴蛇紋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 09-651인 의료기기 입니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 × 100㎝ | B형 65㎝ × 165㎝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심시에는 온열 매트로!!

올 겨울 추위는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 완전 차단)과 함께!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빙의 퇴마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 입금계좌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비룡정사

저자 직접 상담. 개인지도

1. 최면요법, 빙의퇴마 과정
(우울, 불안, 공포증 치유 및 전생과 미래를 본다)
2. 빙의 퇴마 전문가 과정
3. 기문둔갑, 성명학 과정
4. 2명이상 지방출장 가능

예약상담 사주, 작명, 빙의퇴마, 심리상담

빙의(신병) 출장 퇴마합니다.

전화 011-772-4606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앞으로의 100년은 지나간 100년에서…

미래를 향한 100년, 탄허

오대산 월정사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8천원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2013년)을 맞아 한국불교학회와 오대산 월정사가 주관한 '탄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2012 추계학술대회' 의 발표 논문을 보완하여 오대산월정사가 펴냈던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서 1' 〈되돌아본 100년, 탄허〉에 이은 두 번째 기념서이다.

이번 책 역시 동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완하여 엮은 것으로, 이번 책은 '탄허 대종사의 인재양성과 교육이념의 시대정신' 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는 한국불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탄허 스님의 인재양성과 교육이념의 시대적 의미를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탄허 스님은 화엄경과 관련된 방대한 저술을 집대성하고 번역하여 〈신화엄경합론〉을 출간하는 등 한국불교 역경사에 가장 큰 불사를 이뤘다. 이는 근현대 불교사에서 개인이 행한 역경불사로는 최대의 업적이며, 이는 승가교육과 재가교육의 기틀이 되었다.

기념서 1 〈되돌아본~〉의 이은 2권
자현 스님 외 5인의 논문 실어
인재양성과 교육이념 재조명에 의미
한국불교 교육 변화 모색할 기회제공

책에서는 이처럼 20세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고승의 일원이자 유불선을 통달한 탄허 스님의 인재양성과 교육 이념을 깊이 있게 재조명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승가 교육과 신도 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모색할 또 한 번의 기회다. 1권이 '되돌아본 100년' 이었다면 이번 책은 '미래를 향한 100년' 을 모색하는 책이다.

총 6장 중에서 1장 '탄허 스님의 미래인식과 현대사회의 다양성' 은 자현(조계종 교수아사리) 스님의 논문으로 탄허 스님의 '미래인식' 에 대한 탐구다. 책은 탄허 스님이 1960~80년대 초반 경제성장이라는 화두와 군부독재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철학으로 인정받은 〈주역〉의 사상을 바탕으로, 동양학과 구한말의 신종교적인 관점까지 아우른 융 · 복합적인 관점에서 나라와 민족에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말한다.

2장 '탄허 스님의 구도과정과 인재양성' 은 윤선태(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의 논문으로, 탄허 스님의 교육관과 인재양성에 대한 철학을 짚어주고 있다. 탄허 스님은 일찍이 "요즈음의 학문은 기능에만 치우쳐 있다. 종지가 없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다.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며 근대의 학문과 교육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그가 말한 '종지' 란 무엇이었을까. 책은 근대를 극복하고 넘어서려는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탄허 스님의 일갈이 미래에 끼친 여파에 대해 적고 있다. 또한 이런 탄허 스님의 사상의 어디에서 왔는지, 스승 한암 스님을 비롯한 그의 사상의 배경에 대해 적고 있다.

3장 '탄허의 교육이념과 그 정신' 은 김광식 동국대 문화학술원 특임교수의 논문으로 유불선 통합에서 나온 그의 교육 이념과 그에 담긴 정신을 추출하고자 했다.

4장 '출가 이전 탄허의 전통학술 수학과 구도입산의 궤적' 은 이원석(동국대 교양교육원) 교수의 논문으로 탄허 스님의 출가 전 환경과 그의 스승 이극종의 학통을 재검토하고 전통학술의 수학을 살펴보는 동시에 구도입산의 궤적을 고찰하려 했다. 탄허 스님의 가계와 함께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부친 김홍규와 그의 보천교 활동을 규명하고 기존에 면암 최익현과 간재 전우를 계승한 것으로 이해하는 이극종의 학통을 재검토했으며, 마지막으로 탄허 스님이 전통학술을 수학하는 과정과 내용을 분석했다.

5장 '탄허의 경전번역의 의의와 강원교육에 끼친 영향' 은 윤창화 민족사 대표의 논문이다. 탄허 스님은 20세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고승이다. 선원인 오대산 상원사 출신으로 〈육조단견〉과 〈보조법어〉, 〈신화엄경합론〉, 〈능엄경〉, 〈대승기신론〉, 〈금강경오가해〉, 〈원각경〉, 〈사집〉 등 전통강원의 텍스트를 완역, 간행하는 등 근현대 한국불교 역경사 및 교육사에 우뚝한 족적을 남겼다. 책은 탄허 스님이 이와 같이 많은 경전을 번역하게 된 동기와 목적, 배경, 관점, 문체, 저본의 특징, 그리고 그의 역경이 강원교육에 끼친 영향과 의의 등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했다.

6장 '탄허 택성의 삼현관과 불교관' 은 고영섭(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의 논문으로 탄허 스님의 〈주역선해〉 역주와 〈노자도덕경〉 선주 및 〈장자남화경〉 강술 역해를 최근의 학문적 경향인 융복합시대 이전에 이미 불도유를 넘나들며 횡단적 삶을 살았던 탄허 택성의 삼현관(三玄觀)에 대해 살피고 있다.

불교는 조선조 500년 동안 숭유억불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족에게는 암흑기였지만, 불교적으로는 오히려 부흥기였다. 일본의 조선 지배는 조선의 지배이데올로기인 유교를 제거하고, 일본의 불교적인 정서는 우리나라의 불교에 관용적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에 의한 유교의 소멸과 불교옹호는 불교경제력이 단기간에 회복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조선불교는 일본불교의 영향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낸 탄허 스님의 미래대한 해법은 다름 아닌 교육이었다. 종교에서의 가장 근본은 정신이며, 이와 같은 정신을 바로 세우는 일은 교육이라는 판단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 스님께서는, 스승인 조계종의 초대 종정 한암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역경 작업과 교육 사업에 매진했다. 스스로를 태워서 주변을 밝히는 등불과 같이 이제 막 어두운 터널을 나온 불교에 빛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시들어가던 우리 불교의 꽃을 다시 피우고자 했던 것이 스님의 일이었다면, 스님의 뜻을 잊지 않고 유업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후학의 도리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우리는 아직도 가신 스님을 붙잡고 놓아 줄 수 없는 것이다. 책은 앞으로의 100년이 지나간 100년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박재완 기자

한·중·일이 함께 바라본 한국 차문화사



다도와 한국의 전통 차문화

노무라미술관 엮음
아우라 펴냄
1만8천원

책은 한 · 중 · 일 공동연구로 조망한 한국 차문화사를 다루고 있다. 총 10편의 글을 수록하고 있다. 한국 차문화사, 고려 이색의 다공에 나타난 풍류 미의식, 고려시대 청자와 차문화, 남송과 고려의 차문화 교류, 조선 후기의 차문화 개관 등이 수록되어 있다. 책을 기획한 노무라미술관은 조선 다완과 한국 현대 작가의 작품을 꾸준히 소개해 왔는데, 올해 미술관이 한국 차문화에 초점을 맞춰 발행한 연구지의 한국어판이다.

첫 번째 글 '한국차문화사' 에서 김상현(동국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한반도에는 7세기 신라 선덕여왕 때부터 차가 있었고, 신라 흥덕왕 3년(828)에 김대렴이 당에서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은 뒤부터 차가 널리 퍼졌다. 고려시대에는 차가 왕실 및 문인, 승려 등 귀족층에 널리 수용되어, 다도에 깊은 이해를 가진 다인(茶人)이 등장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차문화는 불교와 더불어 쇠퇴했지만 조선 후기 초의에 의해 다시 중흥한다. 일제 때 일본식 다도가 침투했으며 해방 이후에는 허백련, 최범술, 박영희 등이 차문화를 이끌었다."고 한국 차문화의 기원에 대해 살폈다.

두 번째 글, 장영선(한국차문화 연구소) 소장의 '고려 이색의 다공에 나타난 풍류 미의식' 은 고려 후기 이규보와 이색을 중심으로 성행하게 되는 한국의 다공문화에 대한 것으로, 이색의 시(詩)를 중심으로 다공에 나타난 풍류 미의식을 살피고 있다. 다공(茶供)이란 찻물, 다사 전반, 행다, 다과, 다구 등을 총괄하는 용어다.


조선후기 차문화를 중흥시킨 초의 스님 동상

세 번째 글 '고려시대 청자와 차문화' 에서 장남원(이화여대 미술사학과) 교수는 "고려는 한반도의 도자 역사에서 기술적, 조형적으로 급격한 발전을 이룬 시기로, 음식문화의 발달은 청자 및 백자 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특히 차문화는 청자의 기종과 기형, 다양한 계층과 소비자에 따른 다양한 기명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며 고려시대 음다, 제다를 포함하여, 새로운 음료의 하나인 차의 유행이 도자기와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살피고 있다.

네 번째 글, 관젱핑(저장농림대학 인문문학원) 교수의 '남송과 고려의 차문화 교류' 에서는 관련 문헌들을 통해 드러나는 고려시대 차문화 전체 모습을 그려보고, 아울러 송조와 교류하는 가운데서도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조선반도 차문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다섯 번째 글, 정민(한양대 국문과) 교수의 '조선후기의 차문화 개관' 에는 잠자던 조선 차문화를 깨운 이운해의 '향차 제다법' 과 그로부터 40년 뒤 이덕리가 〈동다기〉에서 주장한 차의 가치와 효능, 차생산, 차무역 등에 관한 이야기, 차문화의 중흥을 일으킨 정약용의 제다법, 정약용의 제자 초의 스님과 초의 스님의 도반 추사 김정희 이야기 등이 실려 있다.

여섯 번째 글, 최관(고려대 일문학과) 교수의 '김여철과 후손들의 삶' 에서는 한림학사였던 김시성의 아들로 태어나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가 와키타 나오카타(脇田直賢)라는 이름으로 일본 사무라이가 되었으며, 오사카 전투에서 세운 무훈을 인정받아 카가번의 가신이 된 김여철(金如鐵, 1585~1660)과 학문과 다도의 명문가가된 그의 후손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김여철이 만든 교쿠센엔(玉泉園) 정원의 다실에서는 지금도 다회가 열린다고 한다.

일곱 번째 글, 박동춘(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소장의 '한국의 다성 초의선사' 는 대흥사에서 전해져 오던 사원차를 발전시켜 조선 후기 차문화가 중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동다송〉의 저술로 차에 대한 이론 정립과 선차 복원의 초석을 놓은 '한국의 다성(茶聖)' 초의선사에 대해 살폈다.

여덟 번째 글, '한 · 중 · 일 차문화 교육의 비교 연구' 에서 김순진 계명대학교 차문화연구소 소장 및 특임교수는 "차문화 교육과 관련해 한국에서는 문화적 측면을, 중국은 차의 산업적 측면을, 일본에서는 전통 다도의 계승과 발전, 차 재배 전문가 육성이 강조된다."며 학문적 정체성, 농업 및 산업적 측면의 교과과정 개발 등 한국 차문화 교육을 발전시킬 방안을 제안했다.

아홉 번째 글, 타니 아키라 노무라미술관 관장의 '한국과 일본의 차문화' 에서는 일본의 다도인 차노유(茶の湯)의 확립에 미친 조선의 영향을 살펴보는데, 특히 한 · 일 차문화 교류의 하나로서 '고려다완' 과 '통신사 접대 다례' 에 대하여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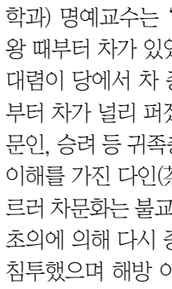
열 번째 글, 정은진(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학예원의 '일본에서의 한국 차문화 연구사' 에서는 신라 및 고려의 음다 습관, 조선시대 다례, 한국 차문화의 일본 다도와의 관계를 일본인이 썼거나 일본에서 발표된 논고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한국 차문화 연표〉를 작성해 첨부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만남에서 헤어짐으로, 인연의 무상함 그려

떠나가는 배

진관 스님 지음 | 초롱 펴냄 | 8천2백원



"도솔천 내원궁에 태양이 솟아 올랐으니
내 이제 인간 세상에 내려갈 배에 올라
천만년 살아 노래할 한라산 김씨 품으로
도솔천 미륵님의 가르침을 받아 안고
내 이제 인간 세상에 태어날 인연 따라
억만년 살아 설법할 백록담 이씨 품으로
그곳 김씨 가문 장자의 아들로 태어나
부처님을 찬양하는 사문이 되거라"

-도솔천궁에서 내려옴

9월 9일 원적에 든 무진장 스님의 제자인 진관 스님이 떠나간 스승을 추모하는 시집을 냈다.

"혜명 무진장 대종사님을 생각하면서 전 생애에 대하여 시로써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한 사람이 출가하여 수행자 교단에서 최고 지위인 대종사까지 산 일생을 시로 조명한다는 것은 한편 후학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책에는 진관 스님이 스승을 그리워하며 쓴 107편의 시와 전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등 스님을 그리워하는 스님들의 시도 함께 실려 있다.

진관 스님이 무진장 스님을 처음 만난 것이 스무살 때라고 한다. 스님은 떠나간 스승을 그리워하며 한 권의 시집을 올리게 된 것을 전생의 지은 인연의 고리라고 생각하며, 이제 '만남' 에서 '헤어짐' 으로 따로 선 인연의 무상함을 시를 통해 그리고 있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6 ~ 11/12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청전	한겨레출판사
4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5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6	알고 보면 괜찮은	마가	불광출판사
7	치유하는 유식 읽기	서광	공간
8	어려울 때 힘이 되는 8가지 명상	잭 콘필드	불광출판사
9	인간세계의 근본을 밝히다	정목	비움과소통
10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안경애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원영대사의 금강경 강의



원영 굉오 지음, 박병규 역주/신국판/381쪽/값16,000원

세친보살의 27단에 의거한 새로운 강의!

근세 중국불교의 대선지식 원영 대사의 화엄과 천태, 선과 정토를 금강반야의 종지로 회통한 탁월한 해설!

방대한 불교 교학과 수행을 하나로 융합한 해설은 단순히 경전 해설에 머물지 않고 불교의 정수를 담은 '교과서'의 역할을 한다.

우리 말 능엄경



불교 수행자라면 반드시 공부해야 할 교과서!

황정원 풀어씀/신국판 양장/520쪽/값 25,000원

능엄경은 불교의 핵심을 압축해서 담고 있는 팔만대장경의 축소판이다!

'진실로 부처님 일대시교의 정수요,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는 비밀스런 핵심' (-우익지욱대사)

출가·재가를 막론하고 '능엄경을 한 번 본 뒤로는 세상의 잡동사니 책들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아온 능엄경에 대한 알기 쉬운 우리말 번역 및 해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자비로워지는 것이야말로 궁극의 치유”



알고보면 괜찮은
마가 스님 지음
불광 펴냄
1만3천원

자살 기도와 출가, 그리고 아버지와의 화해

부모님이 결별하면서 아버지 없이 홀로 자란 한 청년이 있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간 이 청년은, 아버지에게 복수할 날을 꿈꿨다. 그 복수는 자신이 죽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했다. 급기야 1년 동안 사모은 수면제를 들고 강원도 산속에 들어가 자살을 기도한다. 자기가 그렇게 죽으면 아버지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으리라는 기대심리에서다. 그런데 수면제를 먹고 산속에 쓰러진 이 청년을 어느 스님이 발견하고, 목숨을 구해준다. 그렇게 생명을 건진 청년은 출가를 결심 한다. 그 청년이 바로 (사)자비명상 대표인 마가 스님이다.

출가는 했지만 가슴속 상처는 아직 지우지 못했던 마가 스님은, 전남 곡성의 태안사를 찾는다. 거기서 만난 청화 스님은 마가 스님에게 물었다. “자네는 출가 전에 어떻게 살았나?” 이 물음에, 자살을 기도했던 때의 마음이 떠올라 가슴이 꽉 막혔던 마가 스님은 그대로 태안사에 머문다. 수행하며 보낸 지 한 달 반쯤 된 어느 날, 석양에 물든 경내를 바라보다 주르륵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뜻밖에 흘러나온 이 한마디는, 상처를 준 아버지가 있었기에 출가를 했고, 출가 후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자기 안에 원래 있던 자비로운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기에 나온 말이었다. 이렇게 자기 내면에서 먼저 아버지와 화해 한 스님은, 이후 아버지와 가족들 사이의 화해를 주선했고, 이를 계기로 스님 아버지는 고향 마을로 돌아와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슬픔의 근원이었던 아버지와 화해한 스님이 공주 마곡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때였다. 수많은 가족과 직장인들이 스님의 자비 명상 프로그램 덕에 진심으로 화해하고, 따스한 눈길과 보살피는 말을 되찾아 돌아가곤 하던 때, 중앙대 관계자가 마곡사를 찾아와 스님께 청했다. “학생들에게 자비 명상을 가르쳐주세요.”

이 인연으로 시작된 수업이 바로 ‘내 마음 바로 보기’ 이다. 처음에 150명으로 시작한 이 수업은, 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수강 인원을 열 배로 늘리고 스님 다섯 분이 수업을 나눠 진행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1초 만에 수강신청이 마감되어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수업으로도 유명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수업을 들은 친구가 한 학기 만에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걸 눈으로 지켜본 학생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체 자비명상이 뭐길래 이렇게 지성인들이 열광하는 것일까? 마가 스님은 “자비명상은 자기 안에 있는 무자비함을 알아차리고 자비를 선택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나의 말, 행동, 뜻을 잘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세상서 독립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 되려면 세상이 잘 굴러가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되면 자비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라고 자비 명상을 소개한다.



자비명상을 지도하고 있는 마가 스님

상처 치유과정서 자비심 발견
‘마음수업’ 강의 대학서 큰 인기
우리 주변 조건 치유해야 행복

우리도 알고 보면 괜찮은 존재

마가 스님에 따르면 자신이 별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껴지거나 남이 밉고 원망스러워도,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보면 괜찮은’ 존재라는 것이다. ‘내’ 가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와 ‘네’ 가 지금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조건들이 낱낱이 보인다. 그 조건들을 양파 껍질 벗기듯 하나씩 벗겨내다 보면, 나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길 이유도 타인을 원망할 이유도 모두 사라진다고 저자는 이 책에서 설명한다. 그렇게 자책과 미움이 사라지면, 그 비어 있는 자리에서 자비로운 마음이 고개를 드는데 이것이 바로 저자가 이 책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핵심이다.

책 속에서 저자는 우리가 상처받고 아파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을 보며 속을 끓이는 것을 가장 주요한 이유로 꼽는다. 문을 닫아 걸어놓고서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통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 갈등 때문에 수많은 아픔들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까?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간단하다. 문을 열고 아무나 들어오게 하면 된다. 들어와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서로 이해하면, 미워하는 마음과 오해가 풀리고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생겨난다. 그 일들을 함께 하며 객관적인 상황을 바꿔내고, 그 과정에서 자기와 타인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아픔보다 행복이 더 많은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나만 치유해서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 나와 너, 우리를 둘러싼 조건들을 모두 치유하지 않으면, 행복한 기분이 잠시 들었다 사라질 뿐이다. 책에 담겨 있는 저자의 아픈 과거사와 수행 이야기, 명상을 지도하며 만난 사람들 사연, 독서와 생활에서 발견한 빛나는 성찰 들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마주한 이와 손 잡고 함께 가는 것이야말로 궁극의 치유임을 마가 스님은 이 책에서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유식 30’ 송은 힐링 근본 다루는 최고의 심리치유서

치유하는 유식읽기

서광 스님 지음 | 공간 펴냄 | 1만5천원



“유식 30송을 배제하고 불교심리학, 심리치유, 심리상담을 이야기 할 수는 없다. 근래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명상, 힐링의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싶다면, 유식 30송 만큼 힐링의 근본 체계와 기법을 다루는 심리치유서는 찾기 힘들다.”

유식(唯識)을 바탕으로 심리치료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광 스님<사진>이 〈치유하는 유식읽기〉를 펴냈다. 앞서 펴낸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유식30송〉이 심리학 전문서였고, 〈나를 치유하는 마음여행〉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저술한 워크북이었다면 이번 책은 대중강의와 집단상담을 통해 보다 대중성을 높인 자가 심리치료서이자, 수행지침서다.

서광 스님은 이 책에서 “ ‘유식30송’ 은 사람, 세상, 일체 만물을 진실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전제한 후 “ ‘유식은 어렵다’ 는 인식이 있지만, 철학적으로 접근하거나 자신의 마음은 내버려둔 채 유식 자체를 공부하려 했던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유식 30송’ 은 이론과 실습의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30개의 짤막한 게송으로 구성된 ‘유식 30송’ 은 1~25송까지 우선 이론을 자세히 설명한다. 마음의 구성 원리와 중생의 고통 발생 원인 및 작용 등을 보여준다. 또한 병리적 구조와 작용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26~30송까지는 실습적 측면으로 건강한 마음을 갖기 위해 어떻게 수행 하고 어떻게 병든 마음을 치료해야 하는지도 명확히 분석하고 있다. ‘유식 30송’ 은 구성과 내용의 측면에 있어서도 현대 심리학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유식30송’ 을 최고의 심리치유서라고 소개하는 스님은 “ ‘유식30송’ 은 윤회하는 삶과 과거 경험에 의해 분재된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며 “깨달음의 원리 · 내용 · 과정을 대인관계 · 사회적 관계, 자신과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에 실제 적용하도록 안내하는 게 이 책을 펴낸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그렇다면 유식이란 무엇일까? 서광 스님은 이에 대해 “오직 알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네가 그렇게 알고 각각 다르게 안다는 뜻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자기 경험에 비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각각입니다. 우리는 사랑, 자유, 민주, 평화 등의 단어를 각자 다르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내가 그렇게 알 뿐인 것이지, 상대방은 다르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서광 스님은 이 책에서 또한 사람의 심리상태를 육도에 비유하며 도표로 설명한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육도의 정서를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에도 그럴 수 있지요. 우리의 심리 상태는 천국에서 지옥까지 육도를 쉼 없이 돕니다. 성적인 충동이 일어날 땐 축생, 질투가 생겨날 땐 아수라, 욕망서 헤어나지 못할 땐 아귀의 감정에 머무르지요”라고 말한 스님은 “심리치료의 핵심은 육도를 돌더라도 가능한 빨리 인간 마인드로 돌아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수행의 일차적 목표지요. 인간의 마인드로 돌아오지 않고 오가면 번뇌망상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인간 마인드로 전환되는 것은 중독된 마음을 정화시키고 해독하는 과정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유식 30송, 일체만물 사랑법 전해
심리치료는 또 다른 나 배양한다

스님은 심리치료를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나’ 를 배양하라”고 권한다. 자신의 몸, 호흡, 단전을 관(觀)하라는 의미다. 스님은 수행을 하거나 심리치료 공부를 한다는 건 경험하고 있는 나를 지켜보는 또 다른 나(알아차리고 자격하는 능력)를 배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에는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의 소감문도 실려 있어 훨씬 가슴에 와 닿았다. 한 주부는 “나만 피해자고, 나만 상처 받았다고 생각했던 왜곡된 생각들을 바로 볼 수 있게 됐다. 다름을 입으로만 인정하고 마음속으로 인정도 받아들임도 하지 못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원망하고, 서운하다고만 생각했던 관계들이었다. 이젠 내 가슴에게 물어보며 살아야겠다”고 마음속 느낌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1992년 운문사 명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서광 스님은 미국에서 종교심리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 원장,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운영위원, 운문승가대학 교수 등을 맡고 있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 가르침서 배우는 삶의 처세술

붓다의 인생 코칭

우에니시 아키라 지음, 유윤한 옮김 | 민족사 펴냄
1만8백원



“그냥 때려 치울까?, 삶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없어.”

오늘 하루 직장서 이렇게 수 십 번씩 되뇌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이런 고민에 휩사여 산다면 〈붓다의 마음코칭〉을 한 번 읽어보자. 부처님에게서 배우는 처세술이 담겨 있다. 8장으로 구성된 이야기들과 상세한 코칭을 따라가며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보면 삶에 의욕이 생길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렇다. 회사서 인사이동 때 새 부서로 발령 받은 사람이 있다. 전 부서에서는 문제없이 일 잘하던 사람도 새 부서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다보니 일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서 “신입사원도 아니면서 왜 저렇게 헤매?”라든가 “어째서 저런 쓸모없는 사람을 우리 부서로 발령 낸 거야?”라고 비난을 하거나 냉랭한 눈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에게 이 책은 부처님의 말을 인용해 코칭한다. 붓다는 말했다. “제자들이여, 안심하게. 7일이 지나면 더 이상 누구도 내 욕을 하는 자는 없어질 것이니.” 라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근거 없는 비난을 하거나 욕을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도망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어떤 말을 들어도 7일 정도만 기다려 보면 진실이 드러나고, 아무도 욕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고개가 끄덕여 지는 대목이다.

협력사와 새 계약을 체결할 때와 같은 비즈니스 상황에도 우리는 이따금씩 좋지 않은 감정이 얼굴에 드러난다. 만일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당신은 여러 가지로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면 감정은 얼굴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책에서 붓다는 “정직하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가르침을 준다.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서툰 거짓말로 얼버무리려 하면 ‘나는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 는 열등감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감정의 동요가 곧바로 얼굴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책은 붓다의 예화와 저명한 산업 카운슬러의 구체적인 대안이 만나서 현대인들에게 복잡한 사회에서 균형 잡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코칭해준다.

재미있는 이야기와 카운슬러의 코칭은 실용적인 동시에 매우 현실적이다. 현대사회는 수없이 많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로 인해 정확한 판단과 결단이 매순간 요구된다.

빠른 결단을 내리는 법, 리더로 사는 법, 새로운 부서로 발령 받았을 때 대처하는 법, 지혜롭게 말하는 방법 등, 이 책에 실린 모든 글들은 혼잡한 출퇴근길을 겪으며, 커피와 야근이 일상화된 고단한 현대인을 위한 성공철학 인생론이다.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이를 알고 실천한다면 당신은 바로 지금부터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 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 · 法 · 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 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 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 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기업경영과 금강경 ㊤

'명심견성 성불제중' … 보살도 경영 필수 요건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 기업법 전공)

1. 인생이란 무엇인가?

석가모니는 인생의 현실을 고해(苦海) 즉, 고통의 바다라 했다. 부처님의 기본가르침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4성제라고 한다. 현실은 괴로움이요, 그 원인은 집착이고, 목적은 적멸이요, 그에 이르는 방법론은 선입견 없이 있는 대로 보는 정견을 비롯하여 정사 · 정어 · 정업 · 정명 · 정진 · 정정(正定) · 정혜 등 8정도라고 한다.

석가모니는 현재의 괴로움을 떠나 즐거움(또는 기쁨, 樂)을 얻는 이고득락(離苦得樂)에 인생의 목적을 두었던 것이다. 즉 인생을 인연과보에 따른 고락(苦樂)의 바다로 보신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고통을 극복하여 행복하게 살다 행복하게 죽는 것이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명심견성 성불제중(明心見性 成佛濟衆)에 이르면, 본래 생사도 없고, 고락도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는 자기 욕망을 충족하여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는 즐거움(樂)에는 세간락(5욕락 · 식욕 · 성욕 · 재물욕 · 권력욕 · 명예욕 등)과 출세간락(열반락)이 있는데, 세간락은 무상하니, 상락아정의 열반락에 인생의 궁극적 목표를 두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생활은 절대의 불이(不二) 일심인 열반락을 지향하더라도, 분별지에 바탕을 둔 오욕락을 누리는 상대의 세계를 떠날 수 없다. 여기서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5욕락중 재물욕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일찍이 노자는 상선약수(上善若水)라고 했는데, 이는 재부약수(財富若水)라고도 할 수 있다. 인생을 사는 것도 재산을 불리는 것도 물흐름처럼 하라는 것이다.

필자는 전공인 기업법에 관한 강의 교재로 〈기업법 원론〉을 썼는데, 인생을 먼저 정의하지 않을 수 없어, 책 첫 면에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는 동물이며, 그것을 초월할 수도 있는 존재' 라고 썼다.

현대인의 사회생활은 대부분 영리행위로 이루어지고 여러가지 이익은 이성을 기준으로 조정된다. 이성에 입각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즉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는 사람을 경제인(Home Economicus)이라 하는데, 경제인이 기업법의 인간상이라 할 수 있다. 영리행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경제생활 가운데 특정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기업적 생활이다.

기업이란 기획적 · 계속적 영리행위 관계단위이다. 즉 기업은 사회경제적 작용을 하는 실재로서 영리행위를 중심개념으로 하여 그 영리행위 가운데 기획성과 반복적 집적(同種行爲 반복, 칼마)인 계속성을 도입하고 행위를 기초로 주체와 객체가 관계를 맺어 유기적 통일을 이룬 단위가 기업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enterprise management)은 이익추구를 위하여 조직을 만들어 잘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초월할 수도 있다. 이는 인간이 이기주의를 넘어 이타주의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부처나 신선 · 노자나 그리스도 같은 초월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즉 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기업도 본래 이윤추구가 목적이지만, 기업이란 존재가 전체사회구성원의 일부이므로, 전체와 개체의 관계성(關系性)인 사회성을 지녀, 사회적 기여를 해야함은 공동체 원리상 당연하다.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제주체들간의 이익조화로써, 조화경영 상생경영 내지는 보살도 경영이 요청되는 까닭이다.

앞으로 현대적 기업경영, 금강경 등의 경영경제사상, 부처님의 자비경영, 칼마경영을 살펴보기로 한다.

2 현대적 기업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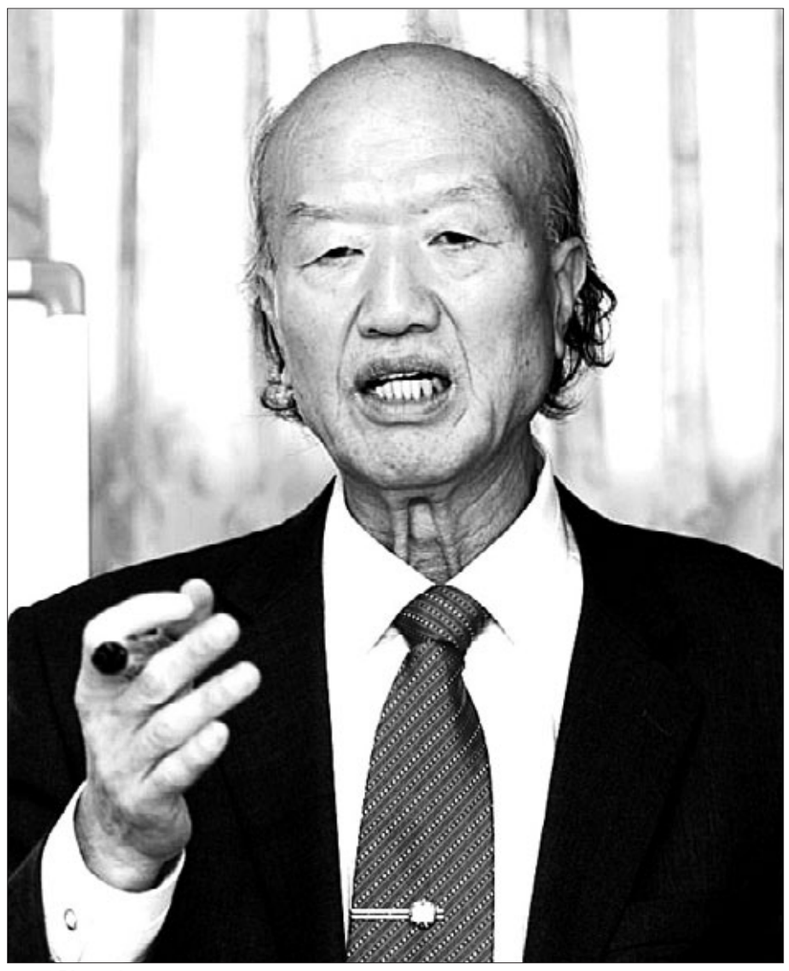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재물욕을 충족시키고,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자본축적의 기업이다. 그런데 모든 기업은 그가 속한 큰 사회의 경제체제 안에서 경영을 하고 이익을 향유한다.

근세 이후 세계의 경제체제는 대체로 자본주의체제, 사회주의 체제(공산주의 체제 포함), 파시즘 체제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어 냉전하다가 열전으로 바뀌어 국제전쟁인 한국전쟁(6.25사변)을 치렀다. 한국전쟁이 정전된 후 열전은 끝났고 냉전이 계속되고 있으나, 가끔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나 인도의 시성 타골은 물론 많은 미래학자 들은 21세기 미래에 세계를 이끌 등불이 될 나라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열풍을 보면, 주인공이 이영애인 TV드라마 대장금(세계 92개국에서 방영되고, 스리랑카에선 TV시청률이 91%, 이태리TV시청률 70%를 넘어섬), 세계적 가수 강남스타일의 싸이,소녀시대, 골프의 박세리 · 최경주, 수영선수 박태환, 피규어 월드 챔피언 김연아, 20세기 대표 궁수 김수녕 등 인물들이 넘쳐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남북이 평화통일만 된다면, 한국은 정신계나(불교) 경제계(BT산업)나 문화계, 군사계(핵) 등 다방면에서 세계의 선두주자가 되어, 팍스 코리아나(Pax Koreana)나 팍스 몽골리카(Pax Mongolica)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하겠다.

이러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한국은 8.15해방 후 자유민주헌법을 채택하여 국가기본질서로서 '민주적 기본질서' 를 기본으로 하고, 경제도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고준환 교수는 …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 동아일보 기자였으며 경기대 법학대학장과 교수불자연합회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경기대 명예교수며 본각선교원장이다.

기업도 전체사회구성원의 일부 사회적 환원, 사회적 책임 등 보살도경영 요청되는 이유

자주자조적 현대 경영 시스템은 경영자·중간관리자·노동자 합심해 주체적으로 회사 관리해가는 것 불교의 수처작주 입처개진과 맞닿아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헌법 제 119조)고 하여, 기본경제질서로서 수정자본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채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과 기업(작은 개인기업에서 중기업, 대기업, 재벌기업까지)들이 조국현대화를 위한 경제적인 노력을 하여 산업화를 이루는 '한강의 기적' 을 보여줬으며, 점차 세계무대로 나아가고 있다.

현대의 기업은 그 형태로 볼 때, 개인기업 · 조합기업 · 영리사단법인 인 회사기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회사기업 가운데 가본주의의 꽃은 자본단체인 주식회사(株式會社, Stock company co.Ltd)라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자본의 구성단위인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로 구성되는 회사인바, 작은 자본으로 큰 자본을 만들 수 있고, 주식투자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원칙 그리고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노조의 경영참여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작은 기업에서 재벌기업, 글로벌 기업까지 거의 무한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대기업의 경영관리는 일반적으로 목적에 따라 기획 · 지휘 · 조직 · 조정 · 통제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리고 현대의 기업관리자의 리더십 관련 7대기능은 L · H Gulick(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행정관리 자문위원 역임) 박사가 기술혁신 · 절약과 능률을 강조하여 얘기한 것처럼 POSDCoRB가 요청된다 하겠다. 이는 Planning(기획) · Organizating(조직) · Staffing(인사배치) · Directing(지휘) · Coordinating(조정) · Reporting(보고) · Budgeting(예산) 의머릿글자를 딴 것이다.

현대적 기업경영에서는 합리 · 창조 · 자주 · 상생 · 감성 · 해방 · 조화 · 혁신 · 보살도 · 맞춤 · 예외 · 융합 · 다국간 · 유비쿼터스 · 글로벌 · 불교 · 유교 · 기독교경영 등 새로운 개념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경영학적으로는 근대적 합리주의, 상조적 개인주의, 전통적 집단주의, 자주자조적 집단주의 경영 등이 제창되었다. 자주자조적 경영은 집단 내의 개인도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 자조적인 행동이 주축을 이루는 경영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불교의 불이(不二)에 기초하여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하는 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세계일화나 대동사회를 지향한다. 이 경영시스템은 관계망(Network)의 통일로 이루어진 제도로, 경영자 · 중간관리자 ·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서 통일되어 자주자조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자주자조경영이 뿌리내리려면 구성원들이 기득권적 소유욕을 극복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아실현이 될 때 가능한 것으로, 불교용어로는 보살도 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보살의 중심서원은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3. 금강경 등의 경영경제 사상

부처님의 경영경제사상은 기본적으로 명심견성 성불제중을 바탕으로(금강경 제3분 대승 정종분) 보살도 경영에 있다 하겠다. 이에 관하여 먼저 금강경을 시작으로 불경의 가르침을 살펴보기로 한다.

금강경 제4분은 묘행무주분으로 무주상보시 즉 머무름이 없이 보시하라고 했다. 이는 무엇을 분별하여 집착하지 말고 베풀라는 뜻이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되고, 집착을 놓아버린 후 동체대비사상에 입각하여 아낌없이 주는 보시행으로 보살다운 삶을 살라는 것이다.

금강경 제5분 여리실견분에는 모든 상이 모두 허망하니, 제상이 상이 아닌 줄을 알면(諸相非相) 즉시 여래를 보리라 했다. 이는 아상 · 인상 · 중생상 · 수자상을 비롯하여 모든 사물의 모습과 생각의 모양새에 집착하지 말고, 그 본체인 진여자성을 보라는 것이다.

금강경의 제20분 이색이상(離色離相:일체의 색과 상을 버리고 근본을 찾아야 한다)은 색이란 사물이라 할 수 있고, 상이란 사물의 특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눈에 비치는 '모양' 과 '특징' 만 가지고는 근원을 파악할 수 없고, 오히려 근원을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객관적 · 실증적 분석을 통한 체계화된 결론이 오히려 색과 상에 집착하여 근본을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금강경 14분 이상적멸(離相寂滅:모든 상을 떠나야 적멸에 든다)에서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주고 있다. 상에 집착하게 되면 자칫 관념적인 논리의 전개에 떨어지게 되어, 본연 그 자체를 파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불자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제28분 법신비상(法身非相:법신은 상이 아니다)에서는 '만일 색으로써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써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삿된 길에 빠져 능히 여래를 보지 못하리다' 라고 하여, 철저하게 색과 상에 의한 근본의 파악을 거부하고 있다. 30분 일합이상(一合理相:진실로 있는 세계는 일합의 상인데 이 일합상은 가히 설할 수 없다)에서는 인간들에 의한 과학적 연구 그 자체에 회의를 느끼게 하는 말씀으로서 불립문자(진리는 말씀이나 문자로써 표현될 수 없다)의 말씀과 어느 정도 상통하는 말씀인 것 같다. 왜냐하면 진리가 표현될 때 인간은 모든 것이 하나의 전체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그것이 곧 실체인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말했다.

"사문이여, 나는 밭갈고 씨를 뿌려서 내가 먹을 식량을 마련하고 있소. 당신도 또한 스스로 밭 갈고 씨를 뿌려서 당신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소이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답하였다.

"믿음은 내가 뿌리는 씨, 지혜는 내가 밭가는 모습, 나는 몸에서, 입에서, 마음에서, 나날이 악한 업을 제어하나니 그것은 내가 밭에서 김매는 것, 내가 모는 토(土)는 정진이니 가고 돌아섬 없고, 행하여 슬퍼함 없이, 나를 편안한 경지로 나르도다. 나는 이리 밭 갈고, 이리 씨를 뿌려 감사의 과일을 거두노라."

이와 같이 부처님은 수행 그 자체를 정신적인 생산 활동이라고 생각하여 생산 활동의 비참여를 잘못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어 거대한 승단을 형성하였던 당나라 시대에는 소승불교에서 금지되었던 생산 활동의 종사가 강조되기도 하였다. 백장선사의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이라는 말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부처님은 돈을 소비하고 저축하는 일에 대해서도 상세히 언급한 바 있다. 예컨대 청년 시갈라(Sigala)에게 생활비로 1/4을 쓰고 1/2을 사업에 투자하며 비상시에 1/4을 저축해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부처님은 경제적 복지를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보았지만, 정신적 · 도덕적 기반이 없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라면 진실된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이 원고는 본각선교원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미리 간추려 소개한 것입니다. 본각선교원 (02)762-4848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박 경 수	010-9819-83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100% 순수 자연그대로 백련사 국내산 산삼

장長 뇌腦 삼蔘

건강이 최고!

평생 최고의 선물을 불자님들께 공급해 드립니다.
'경기도 안성 백련사' 에서 직접 재배한 국내산 장뇌산삼을 최저가격으로 현불샵에서 공급해 드립니다.
한뿌리 한뿌리에 사찰의 정기가 서려 있습니다.
부모님, 스승님, 각종 업무에 지친 현대인들의 건강에 최고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백련사에 직접 방문 하시어 산삼을 채취 할 수도 있습니다.

7~8년근 3뿌리 15만원 ➜ 특가 12만원 / 7~8년근 5뿌리 25만원 ➜ 특가 19만원

장뇌삼의 효능

◇항암효과
장뇌삼은 암세포를 죽이고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로회복
장뇌삼에 함유된 말톨 성분은 간기능이나 심기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면역력 증강
만성피로나 체력저하 등의 허약체질을 개선해 주고 면역력 증강의 효능이 있습니다.
◇노화방지
항상화 작용이 뛰어나 노화를 방지하는데 효능이 있으며, 피부노화 뿐만아니라 몸 속의 세포의 노화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예방
장뇌삼에는 인슐린과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해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장뇌삼 먹는방법

◇생으로 장뇌삼을 먹는방법
장뇌삼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뇌두를 제거한 후 아침 공복이나 취침하기 전에 30분이상 오래씹어서 복용하세요.
장뇌삼을 먹기 전후에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을 지어 먹는방법
장뇌삼과 함께 밥을 지어서 먹으면 기력이 없는 분들의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소화흡수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뚝배기를 이용해서 밥을 짓는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한약으로 먹는방법
장뇌삼 1주당 1리터의 물을 붓고서 쎈불로 달이다가 끓기시작하면 중불로 반으로 졸인다음 아침저녁으로 공복에 마시면 좋습니다.
◇술로 먹는방법
유리병에 장뇌삼과 술을 부어 밀봉시킨 다음 숙성시켜서 소주잔에 한잔씩 마시면 됩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당부했다.
"내가 입멸한 뒤 너희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이제는 스승의 말씀만 남아 있지 우리의 스승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러나 너희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입멸한 후에는 너희에게 설해왔던 가르침과 계율이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 대열반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빙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2)588-4606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최 면 전생 • 미래
빙의 • 퇴마
• 심리치료, 습관교정, 성격개조
(개인지도 및 직접 상담)
• 최면요법 전과정 7회 완성
1회 무료강의 후 상담접수
• 역학(정통명리) 개인지도
(부산 현불사 최면센터)
010-9342-9794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지장기도를 통해 그 자리에서 영가천도
환자의 몸속에 숨어있는 빙의령 확인
빙의,우울증,신병,대인기피,암,원인불명,
질환,악성피부질환,아토피,인생상담
지장보살님의 빛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낀다
스님,보살님,법사,일반인 치유 및 제자양성
인체전기파동의학원
010-9242-5259

성공시대(주목)
산소,건강,사업,배우자,출세,시험,
부동산매매,장사하시는분
꿈은 크지만 해도해도 안되는 분,
지긋지긋하신분, 여기 해결책
백발백중 직효, 상담무료 春山
010-3754-0023

(수강생 모집) 기문둔갑반 명리연구반
역학을 하였으나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기문둔갑) 비법을 전수합니다
무료청강하신 후에 수강신청(무료강의)
매주 토요일 7시부터(2시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67-12번지
(천지암) 창원시청부근
010-6511-5958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영남소리,사물,바라,작법
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실 전 교 육
– 사물(태징, 목탁, 송주북,
정근북, 법고)
– 천수바라, 작법(나비무),
49재, 천도재, 접안등
경남 양산시 주남동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단체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강좌, 불교문화활동,
불교문화 수련사업 하실분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천도재 49재
사찰행사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점안식,
산사음악회, 위령제
010-8677-2861

법당화주 겸 종무보살 모십니다
불심 신심이 돈독한 일천불
권선하실 화주보살을 모십니다.
불심으로 귀의 할 출가
여자행자 모집합니다.
(부산 금정구)
010-6390-1899

백발백중 귀장술 수강생 모집
초보자환영,
교재제공
쉽게보는 원판제공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록 명 법 특 강
전귀명은 부동산 투자성공하고
폭패파택살(김우중)은 부도나고 경문년에
오바마 대통령재선 천사통수격(박근혜)은
대통령됨. 마두대재는 창업성공 부자되고
봉황록귀는 부귀로 세계에 이름떨침.
범귀자 영장살자는 매사 중도좌절
명귀보궁 비살병투자는 남자친구한테
APT받고 비재성자는 복권당첨됨
쉽고 새로운 천년비법 최초공개!!
010-4022-2967
010-9469-7719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향기도의 비밀
•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자비 미륵암 (청학동)
미륵암 자비도량에서
삼신불의 원력과 氣를 온 육신으로
받으시고 참선기도 하십시오.
(1일 만원)
미륵암에서 함께 수행하며
지내실 분 모십니다
011-759-0183
055)883-7385

스님이 안계신
빈 절이나
작은 암자나,
토굴 구합니다
전세 매입
원합니다
010-5257-9339

바라무, 화청 및
회심곡 강의
• 장 소 : 부산, 서울
• 시 간 : 3시간
• 수강료 : 3만원(1회)
(민재스님 직강)
010-7601-6937

고려대장경
탁본
판매합니다
(총 48권)
010-7169-9878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서울 정릉)
02)919-0480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2)2234-2198
010-8721-2198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미륵존불 조성불사를 도와 주십시오
월하스님 글씨 병풍포함 3점. 서경보스님 글씨 병풍포함 4점. 일타스님 글씨 2점.
석주스님 글씨 1점. 수안스님 그림 3점. 석정스님 달마 병풍 1점. 경봉스님 글씨 1점.
청광선생 달마, 독수리 병품 2점. 문화재 인도선생 달마 1점. 천경자 그림 1점.
중광스님 인불상 1점 위의 작품 21점을 미륵존불 조성불사에
큰 인연으로 도와주시고 설판하여 주시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이밖에 그림과 글씨도 마음에 드시면 드리겠습니다.
경북 054)853-3855
시주보시금 : 국민은행 622-24-0064-982. 농협 729-02-117074 유명혜

의를 알고 자비를
이해사시는 분과
수행하고
싶습니다
(토굴 준비하였습니다)
010-6607-5308

빈 절이나 가난한 암자를
무보시로 운영
관리해 드립니다
스님이 안계신 절이나
어려운 사찰을 구합니다
(법납 40년 비구승, 탄성스님)
010-7534-4848

스님을 모십니다
요양원에서 이생을 마무리
하고자 하시는 **요양이**
필요한 스님을 모십니다
파주 약수암스님이 운영하는
거북마을노인요양원에서
스님의 가족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010-9067-4801

염불선 수행중인
비구입니다
만물을 깨우는
종을 구합니다
(쓰던것이나 크기는 상관 없음)
010-3221-0839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으로 장례전문인력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5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다음카페 "연꽃마을 복지관" 검색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914번지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 수행할 비구니스님과
초보자 남녀 행자스님
모십니다
(경주지역)
011-534-3345
010-4580-8394

사찰 전세구합니다
도시안에 있는
사찰전세 구합니다
시골이나 포교당은
하지 않습니다
011-850-0176

부전소임을
원합니다
010-2991-1147

비구니스님과
가족처럼 평생 같이
사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월급도 드립니다
(부산)
010-6656-8117

탈 종 공 고

• 사찰명 : 해금암
• 주 지 : 무공 (조애자)
• 주 소 : 경북 구미시 진평동 301번지

• 사찰명 : 황룡사
• 주 지 : 성도 (임선환)
• 주 소 : 경북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33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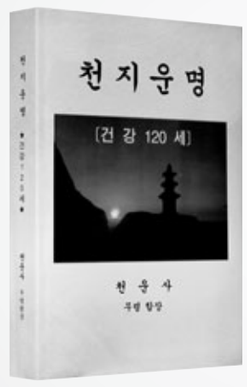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천 지 운 명
건강 120세
불자 여러분들에 건강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20페이지
정가 120,000원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효소(발효)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온 국민이 건강을 지키시라는 큰 발심을 하여, 20여년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한방이라던지 민간요법 효소담그는 법을 연구해 온 것을 이 책 속에 수록한 것입니다.

부디 '천지운명건강 120세' 책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자리매김 하기를 발원하며, 책을 구입하시는 선착순 100명께는 기존 출간된 천지운명 책 한권을 더 드립니다.

불자 온 국민 여러분들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24-119번지
대선불교조계종 천 운 사 무령 합장
전화 032)655-1356 / 팩스 032)664-1356 / H P 010-6674-1356
입금계좌 : 농협 170972-51-038226 / 신한 110-113-445631(예금주 : 장지엽)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 이메일로 광고 접수 바랍니다.) ▷ 게 재 : 접수일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1회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철없는 아이가 물 위에 비친 달을 건지려고 한다. 어른은 그것을 보고 웃는다. 무지한 사람은 달을 건지려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영원한 실재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은 언제나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 대지로론 -

삼 보 사 찰 안 내

상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은평구
- 법당 : 20
- 요사 : 20
- 포교원 1000/80

- 위치 : 의령
- 대지 : 목조25
- 법당 : 30방4개
- 대지 : 200
- 가액 : 4억

- 위치 : 포항
- 대지 : 200평
- 법당 : 10평
- 요사 : 5채방5개
- 가액 : 1억

※서울 경기 경남 부근 매도사찰 급히 구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전화 환영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논산 사찰
- 이층법당50㎡요사채85㎡
- 토지500㎡ 이층건물임
- 주차장 텃밭가능함
- 마을부근 위치좋음
- 양도금액 : 1억7천만원

010-7347-1010(사찰전문)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큰도로변
- 2층건물에 2층 평수 60평
- 법당 30평, 공양간, 친견실, 침실 3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 80만원
- 시설비 : 상담 후 절충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 즉시법회가능

010-9396-7133

포교원 안내

- 위치: 군포역 7분 거리
- 4층 건물에 2층
- 보증금 4백만원 월 30만원
- 삼존불, 신중탱화
- 침실 및 공양간 별도
- 시설비 700만원

010-8781-0935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주 운암동(위치최고, 주차편리)
- 3층건물 중 2층 32평
- 법당.삼존불.후불 칠성.신중탱화.불단 원목 연등.영가등 인등전기 LED. 전기공사완벽. 인버터냉난방기2대 방3개.
- 주지실. 접견실. 스님방.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3개월전새로신설
- 즉시법회가능. 보증금 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1880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9338-0118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2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6억5천

- 위치 : 서울
- 부지 : 9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6억5천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사 찰 (급) 안 내

아름다운 토굴 안내

- 총부지 970평 (칠보 삼존불 봉안)
- 법당 및 요사채, 산건각, 용왕각, 독성각
- 50년역사와 정원수 다량, 나비형 큰호수
- 양도가액 : 1억 8천만원

양산(급)사찰

- 위치: 양산 신도시 10분거리
- 대지: 1350평
- 법당: 33평 산신각 및 용왕각 기타등등
- 버스주차장, 산세수려, 계곡물 철철
- 은행 안고 3억인수

※ 홈페이지 // 주소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 Daum카페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통 011-560-8522, 051-863-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 칠보산 아래
- 산세 수려한 사찰
- 대지 324평, 인법당(40평), 창고(40평), 산신각
- 가액: 1억 5천만원(절충가능)
- 건강상 급 안내

010-2008-0377

포교원 안내

- 위치 : 양산시 평산동
- 2층 건물 중 1층
- 평수 130평 • 법당 시설완벽, 방3
- 상시 온수 제공, 주차시설완벽
- 전세 3천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10-3574-3303
010-5667-5453

포교원(급)안내

- 경산시 진량읍 하양읍 경계지점
- 1년 사글세 이백만원
- 삼존불, 칠성, 산신, 지장보살
- 시부지중 약 삼백평 정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시설비 절충

010-5691-420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평수 : 임야 2천평
- 법당 16평, 요사채 30평
- 가액: 1억 5천만원

010-3755-9304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010-3426-9393(사찰전문)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서구 대평리 시장 인근
- 3층 건물중 2층 40평
- 시설: 최상급 삼존불 중 아미타 3자동불, 양대보살
- 후불, 신중, 산신탱화 지장불, 지장탱화 108인연불
- 일부집기 완비 바로 집회 가능
- 보증금 3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2천 5백만원(조절가능)

010-5742-5520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
- 평수 315평
- 가액 : 5천만원
- 시설비 500만원 (삼존불 집기류 농기구 일체)
- 주위에 민가가 없고 아주 조용함
- 텃밭과 유실수 다량 있음

011-269-4168

사찰(급)안내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연봉산자락
- 대지 : 400평
- 법당건물 : 40평, 창고30평
- 불상등 비품 및 시설 완비
- 주차건물있음
- 아득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 : 1억 4천만원

010-2542-5858
010-3123-3113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남해안 소재
- 토지 : 총 10,953평 (종교용지 430평, 임야/전 :10,523평)
- 시설 : 총 6동(납골추모관, 무량수전, 종무소, 요사체, 공양간, 창고, 일반주택 등)
- 주차장 완비, 현재 추모관 성업중
- 가액 : 4억 8천만원(전세는 협의)
- 양도 또는 반전세 협의 가능
-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5155-194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 본사 소임관계로 급 안내
- 평수 : 약 9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시설비 상담
- 방 2, 종무소 1, 서재 1, 공양간 1
- 즉시 법회 가능

010-8606-7918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남구 용호 2동
- 용호시장 입구 신협 옆
- 4층건물 중 2층 (자비원)
- 법당, (관음) 방2, 공양간
- 임대보증금 : 2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는 협의 후 결정

011-597-8889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 아랫반송 대로변
- 4층건물의 3층 30평
- 시설완벽
- 시설비: 1천 9백만원 (절충)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010-4414-030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5층 약 40평, 승강기는 없습니다)
- 구조: 법당, 큰방2개, 작은방1, 다실겸 공양간
- 시설: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소불 108분, 인등, 범종, 법고, 엠프시설 등등.
- 냉, 난방, 냉장고2대, 정수기2대, 주방집기 일체
- 보증금 2000만원 / 140만원 (관리비포함)
- 시설비 무료 (인연되시는 분에게 무료로 드립니다)

010-3634-3580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도심속에서 큰 포교당 운영하실 분 큰 뜻으로 포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법제자 환영 인연자는 무량대복 받으소서

010-4071-3718
010-6328-66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I.c 2분거리 밀양시내10분거리 (약사도량임)
- 종교부지300평 임야300평
- 법당 23평 아미타 삼존불 후불탱화 및 칠성탱화
- 지장보살 원불 후불탱화 산신각5평 미륵.용왕
- 요사채 및 공양간33평1 주차시설완비
- 가액 3억2천7백만원 대출6천5백만원 포함
- 급양도 가격절충가능(꼭필요하신분만 열락주세요)

010-7183-011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 대지 120여평 • 임법당 20평
- 요사 15평 • 창고 7평
- 차량 마당 진입 가능
- 집기 일체 양도
- 가액 : 9천만원(절충가능)

010-6308-7320

포교원안내

- 위치 :용인시 에버랜드 근교
- 부지 1300평 법당 70평, 방8개
- 주차장완비. 일체시설완비
- 용인에서 포교를 원하시는분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 보증금 +시설비 포함 8천 5백만원 월 150만원

010-8306-8255

사 찰 안 내

- 위치: 김해시 구산동산
- 현재 사찰하고 있음
- 평수 650평, 땅값만 받고 양도함
- 평당 40만원 협의 불가 (법당 조립식,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 스님 건강문제로 급히 양도함

010-3800-680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부안 내변산 입구
- 종교용지 130평
- 수목장 용지 10,000평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 종각, 미륵석불, 저수지, 경관수려(소나무 숲)
- 가 액 : 2억 5천만원

010-6478-1569

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 산 230평 바닥 기초 공사
- 25평 완료 마을 뒤
- 6미터 도로 확보
- 가액: 3500만원

010-3288-1317

사 찰 안 내

- 위치 : 세종시 5분거리
- 물 많은 문화재 고찰
- 대지 종교용지 전.답 임야 총 약 2만 5천평
- 건평 총 약 120평
- 가액: 직접 절충 가능

010-8787-201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 2층, 삼존불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직접 결정
- 모든 준비 완벽 (법회 즉시 가능)
- 중국이민관계로 급 안내

031)756-2033
010-5488-1080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 대지: 149평,
- 법당: 20평, 기와단청
- 요사: 17평, 요사: 10평
- 가액: 5억 7천만원
- 도심속 포교하기 좋은곳

011-811-5466

사찰터안내

- 위치: 경남 창녕군 화왕산 군립공원 입구
- 총평수 : 약 2만평
- 고려 일미사지터로서 남향 양지 바르고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산세수려)
- 건축 허가완료 건축가능
- 전기는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 동력으로 설치
- 가액: 2억 3천만원

010-5015-1022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신암 2동 강남약국 건너편
- 3층 4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0-2878-3380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 법당 및 요사채
- 옆산 넓은 공간
- 텃밭 및 유실수, 정원수
- 휴양, 공부, 일반 신도도 가능
- 총 3천 5백 평 (평당 8만)
- 양도 및 임대.
- 보증금 500만원 1년 350만원

010-8826-8373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대사찰(급)안내

- 경북 영양군 일월면 오리리 1-1번지 외
- 5필지는 대지 2,000평, 답 700평
- 임야 11,000평 대웅전: 80평
- 요사채 100평, 기타건물 200평
- (임야 내) 양각형 천연형 대미륵불
- 경내 조경, 기반시설 최상
- 반값 급 양도, 주인직

010-8899-8899
010-7621-7621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문정역 3분거리
- 5분내로 고속도로 진입 가능
- 4층건물 2층 45평, 방3, 주방
- 에어컨 2대 등. 포교, 철학 최적지
- 이천만원 월 140만원(6년운영)
- 시설비(無) 주차가은
- 몸만 오셔도 법회가능

02)762-0108

신축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 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토지 3천여평
- 전세 3천만원 5년 장기 임대 가능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추가법당 불사비 협의 인정해 드림

010-9647-0723

사 찰 안 내

- 종단사찰, 복지원, 요양원, 장례 결혼식장 가능
- 교통조건 매우 좋음
- 20억의 50 프로 확보된 분
- 년 후불도 가능

010-4880-78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대출 1억 가능
- 가액: 2억 7천만원

010-8725-3196

사찰(급)안내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 총평수 대지 213평, 법당 판넬 칼라강판기와 20평
- 삼성각 목재 8평, 요사채 옛날한옥 스레트 20평
- 방3칸, 전기 10K, 물: 상수도 우물, 가람경내 165평
- 가액: 2억 5천만원

010-3632-4420

포교원(급)안내

- 위치: 안산 터미널 부근
- 대로변 2층 약 35평
- 삼존불 시설완벽
- 보증금1000만원, 월세 70만원
- 시설비 1900만원

010-3111-9056

멋진암자

- 위치 :경북 청도 대구 30분거리
- 대지 344평, 건평 56평 한옥
- 법당 일체 완비, 정원수, 잔디 양호
- 주차 15대 가능
- 가액: 2억 5천만원
- 기타 부동산 교환가능

010-5685-4560

포교원 안내

- 위치 : 구미시 오태동
- 3층 건물 중 3층. 옥상 사용
- 건평 약 36평, 법당 시설 완벽
- 방3, 화장실2, 주방
- 생활 아주 편함. 주차 편리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천 7백 (약간조정가능)

017-217-1919

티베트의 즐거운 지혜

욘게이 밍규르 린포체 (티베트 승려)

〈3 · 끝〉 '나' 라는 이름의 환상

'나' 속의 많은 '나' … 지켜보는 관찰자 '나' 를 찾자

고정불변한 나

자동차와 컴퓨터는 고장이 난다. 사람들은 떠나가고 직장을 바꾸고 자라고 나이 들고 아프고 결국은 죽는다. 경험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더 이상 갓난아이나 초등학생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고 새 직장으로 옮기는 등 또 다른 큰 변화들을 맞이하며 종종 그 변화들을 환영한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겪는 변화들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몸이 아프고 늙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한다. 어쩌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혹은 배우자나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난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라는 통보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심지어 특정한 변화들을 인식할 때조차도 우리는 은연중에 '고정불변' 이라는 생각에 매달린다. '나' , '타인' , 그리고 그 밖의 존재들의 본질은 시간이 흘러도 고정불변한다는 믿음이다. 이 믿음에 따르면 어제의 나였던 '나' 와 오늘의 나인 '나' 는 같다. 어제 본 탁자와 책은 오늘 보는 탁자와 책과 다르지 않다. 어제 강연을 한 밍규르 린포체와 오늘 강연을 하고 있는 밍규르 린포체는 같은 사람이다. 때로 감정조차도 영원한 것처럼 보인다. '어제 나는 사장에게 화가 났다. 나는 오늘도 그에게 화가 난다. 내일도 그에게 화가 날 것이다. 결코 그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붓다는 이 착각을 겉으로는 튼튼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속에는 구멍이 난 썩은 나무를 오르는 데 비유했다.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죽은 나뭇가지에 더욱 매달리게 되고 나뭇가지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만 같다. 결국 우리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추락의 고통은 높이 올라갈수록 더 클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음과 감정의 차원에서 '당신' 과 '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항상 변하고 있다. 열 살 때의 '나' 와 스무 살의 '나' 와 서른 살의 '나' 는 같다고 말할 수 없다. 열 살의 '나' 는 불안감으로 가득하고 큰 소리에 놀라며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제자들의 눈에 낙오자로 찍힐까 봐 겁을 집어먹은 아이였다. 서른 네 살의 '나' 는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고, 몇 가지 수준으로 나눠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한 번에 수백 명의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명상 수행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추구하려는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혹은 소그룹으로 면담을 한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역시 마음의 변화와 감정의 변화들을 겪는다. 내가 만난 많은 이들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고 놀란 적이 있었다고 실토한다. 어느 날 그들은 자신이 아는 누군가를 만난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 상대방은 행복해 보이고 삶에 대한 기대에 차 있으며 그날의 도전들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하루나 일주일 뒤 만났더니 그 똑같은 사람이 화가 나고 우울해져 있다. 침대에서 나올 기운조차 없으며 삶에서 어떤 희망도 볼 수 없다. 이렇듯 때로 변화들은 너무나 극적이다. 알코올 중독이나 다른 중독으로 그렇게 되기도 한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한다.

'이 사람이 내가 아는 그 사람 맞나?'

덧붙여 나는 수년간 과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의 육체는 우리가 전혀 자각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미세 차원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예를 들면 매 순간 호르몬을 생성하고 몸의 온도를 조절한다. 당신이 이 문장을 다 읽기도 전에 이미 당신 몸 안의 몇몇 세포는 소멸돼 새로운 세포로 대체된다. 그 세포들을 구성하는 분자와 원자와 소립자들도 이동된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방 안의 가구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책을 구성하는 분자와 원자와 소립자들도 계속해서 대체되고 변화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 책의 종이들은 누렇게 바래고 구겨지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 방의 벽에 틈이 생길 수도 있다. 가까운 곳에 있는 탁자의 페인트가 일부 벗겨질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한다면 과연 어디서 고정불변한 것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의 '나' , 많은 '나'

고정불변함의 착각으로부터 개별성의 생각이 일어난다. 이는 시간이 흘러도 고정불변하게 지속되는 '중심의 주인공' 은 나눌 수 없으며 유일무이한 개체라는 믿음이다. 심지어 "그 경험이 나를 변화시켰어." 라거나 "나는 이제 세상이 달리 보여."와 같은 말을 할 때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나' 라는 개념을 하나의 단일한 존재, 하나의 고정된 내적 '얼굴' 인 것처럼 단언한다. 마치 그 얼굴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듯이.

개별성은 그토록 매우 미묘한 착각이라서 그것을 지적해 주기 전까지는 알기가 힘들다. 최근 한 여성이 내게 비밀을 털어놓았다.

"나는 참을 수 없는 결혼 생활에 갇혀 있어요. 나는 결혼할 무렵에는 남편을 사랑했지만 지금은 그를 증오해요. 하지만 내게는 아이가 셋이나 있고, 나는 아이들에게 기나긴 이혼 투쟁의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이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나는 원해요. 또한 아이들이 나고 자란 집에서 떠나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아요. 그러나 나는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일련의 발언에서 가장 자주 반복된 단어는 무엇인가? '나' 이다.

그런데 '나' 는 누구인가? '나' 는 남편을 사랑했지만 지금은 증오하는 사람인가? '나' 는 긴 이혼 투쟁을 피하길 원하는, 세 자녀를 둔 엄마인가? 아이들이 아버지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여자인가? 거기에 얼마나 많은 '나' 가 존재하는가? 한 명? 두 명? 세 명?

나올 법한 대답은 당연히 하나의 '나' 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나' 는 다른 상황들에서 다른 방법으로 반응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다른 면들을 내보이며, 상황과 조건의 변화들이나 새로운 생각과 경험에 반응해 일련의 새로운 태도와 감정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다.



존재의 본질이 고정불변하다는 믿음
겉은 튼튼하나 속은 썩은 나무 오르는 격
타인과 내가 연결돼 있음을 아는 것
즐거운 지혜에 이르는 길

이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 는 정말로 하나일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회사 동료나 식구들과 논쟁을 벌이는 것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나' 가,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고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 같은 또 다른 상황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나' 와 동일한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대답한다. "그들은 모두 나의 일부분들이다." 그런데 만일 '부분들' 이 있다면 하나가 존재할 수 있는가?

텅 빈 '나'

나는 누구인가? 이 의문이 일상의 삶의 거의 매 순간 미묘한 차원에서 자주 우리를 따라다닌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시도를 해도 실제로 '나' 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의견들은 수없이 변화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나' 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반영한다. 몸은 끝없는 변화를 겪는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본래의 '나' 를 찾기 시작한다. 우리는 마치 보호해야 할 '나' 라도 있는 것처럼 고통을 피하고 평안과 안정을 추구한다. 마음 속에 고통과 불안이 일어나면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려고 노력한다. 즐거운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붙잡아 두려고 한다. 이것은 고통과 즐거움, 평안과 불안 등의 감정이 '나' 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말해 준다.

이상하게도 자신의 반응들을 아무리 깊이 관찰해 보아도 이 '나' 라는 존재가 실제로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가질 수가 없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확실한 형태와 색 혹은 다른 어떤 물리적인 차원이 있는가? 영원한 '나' , 혹은 경험에 조건 지워지지 않는 '나' 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나' 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심사숙고한다고 해서 '나' 의 경험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심사숙고는 철학적 관점에서는 흥미 있을지 모르지만 매 순간의 경험을 다루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통찰 수행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험의 중심점인 '나' 에게 집중해서 매달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일까지 포함한다.

이 참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기민한 몸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상 없는 주시를 통해 마음을 편안히 휴식한다. 그런 다음 '나' 를 찾는다. 이 '나' 는 생각과 감정과 기분 등이 오가는 것을 지켜보는 관찰자이다.

먼저 이 과정에는 약간의 분석이 포함될 수 도 있다. 내 손이 '나' 인가? 내 발이 '나' 인가? 그것들 전부가 '나' 인가? 그런 다음 우리는 이 분석의 과정을 '나' 를 찾는 쪽으로 전환할 수 있다. '나' 는 어디에 있는가? '나' 는 누구인가?

이 조사를 오래 끌어선 안 된다.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결론에 도달하려는 유혹이 너무 강하다. 이 수행의 핵심은 '나' 가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며 독립적인 존재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다. 앞서 말한 대로 공이란 분석이나 철학적 논리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한 번 맛보면 새로운 차원과 가능성을 열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체험이다. 그것이 통찰 명상의 핵심이다.

즐거운 지혜

자신의 약점과 불완전함을 느낄 때 그 안에 자신의 진정한 힘을 깨닫는 열쇠가 있다. 삶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과 문제들을 직접 대면함으로써 우리는 내면뿐 아니라 외부로 확장되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만일 내가 어린 시절 내내 느꼈던 공포감과 불안을 대면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나는 없었을 것이다. 비행기를 타고 세계 도처를 여행하며 처음 본 청중들 앞에서 나의 경험은 물론 나의 안내자이자 교사들인 위대한 스승님들에게서 배운 지혜를 전할 용기와 강인함을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붓다들이다. 다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따름이다. 문화적 조건, 가정교육,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경험과 미래의 희망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기본적인 생물학적 성향, 뉴런의 기억 저장소에서 오는 두려움 등, 이 모든 것들이 제한된 관점으로 우리 자신과 주위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 뿐이다.

일단 당신이 자신의 참본성을 자각하려고 마음먹으면 당신은 나날의 경험 속에서 반드시 어떤 변화들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과거에 당신을 괴롭히는 데 사용됐던 것들은 이제 당신을 혼란 상태에 빠뜨리는 힘을 차츰 상실할 것이다. 당신은 직관력을 가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마음이 더 평화로워지고 더 열릴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장애물들을 더 큰 성장을 위한 기회로 여길 것이다. 아울러 한계와 허약함이라는 착각이 점차 사라짐에 따라 당신은 내면 깊은 곳에서 자기 존재의 진정한 위대함을 발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즐거운 지혜는 마음의 괴로움을 자각하는 불편함과 그것들에게 지배당하는 불편함 사이에서 선택 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신체적인 느낌을 자각하면서 그것들이 자신의 마음과 몸이 상호작용해서 만들어 내는 것임을 알아차리는 일이 언제나 유쾌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사실 나는 이 방식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 때로는 매우 불쾌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불교를 종종 '중도' 라고 일컫는다. 제3의 선택사항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만일 1초 이상 어떤 소리나 촛불에 주의를 집중할 수 없다면 반드시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명상은 따분한 일이 돼 버린다. 결국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아니, 벌써 7시 15분이야. 어서 자리에 앉아서 깨어 있는 마음을 키워야 해.' 누구도 이런 식으로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반면에 몇 분 더 명상을 계속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멈추라. 그 순간 알게 되는 사실에 당신은 놀랄 것이다. 자신의 저항 이면에 숨겨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과 기분을 발견할 것이다. 혹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마음을 휴식할 수 있음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 발견만으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좋은 부분은, 얼마나 오래 수행을 하든 혹은 어떤 방식을 이용하든 상관없이 모든 불교 명상 수행을 자비심을 갖게 해준 다는 점이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때마다 주위 사람들 역시 자신과 비슷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밖에 없다. 행복해지고 싶은 자신의 갈망을 볼 때 다른 사람도 똑같은 갈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자신의 두려움, 분노, 혐오를 분명하게 바라볼 때 주위 사람들도 똑같은 두려움, 분노, 혐오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지혜다. 그 지혜는 책 속에 있지 않고 깨어 있는 마음 속에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이 하나로 연결돼 있음을 아는 일이며, 즐거운 지혜에 이르는 길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이 글은 '문학의 숲' 에서 펴낸 〈티베트의 즐거운 지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영가 찾는 법

(연결카페 http://cafe.naver.com/baikamsa)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무료공개강좌
- 서울 : 11. 30일(토) 오후 2시
- 대구 : 12. 2일(월) 오후 2시
[접수 053)944-3272]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 (철학관, 포교원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기 초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1. 한 맺힌 조상 찾는법, 조상(귀신)이 발동한(대.세운) 것을 아는 법
2. 천도는 얽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서 해야 효험이 빠르다.
3.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으며 영가를 정확하게 뽑아낸다.
4. 결혼이 못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5. 신경성, 우울증 등으로 마음안정이 안되거나, 공부가 안되는 학생

통신반 모집 ☞ 1번은 반드시 수강해야 함 (교재 및 DVD)

백 암 역 리 원
02)597-1101.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우리은행)옆
대구출강 053)944-3272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호법봉사단원모집

삼보에 귀의하옵고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여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 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며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건장사(建將寺)
누워서 허리뜸 · 배에는 단전뜸 · 앉아서 좌훈뜸 · 편안히 무릎뜸 악성피부 · 아토피 · 버거씨병 · 파킨스병 · 통풍 · 관절 · 무좀 고통 · 통증 · 허리디스크 · 협착증 · 건선 · 수족냉증 · 비염 황토 · 상황 · 훈증 · 좌훈 · 쑥뜸 · 침대 (특허번호 제 10-2011-011722호)
대구 수성구 두산동 82번지 건장사(스님은 무보시 치료)
011-573-4438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삼 보 양 초

삼보양초의 장점
1) 심지가 견고하며, 최고급의 파라핀으로 제작되며 그을음이 적으며 오래 탑니다.
2) 냄새는 맑고 향기로우며, 촛물이 깨끗하고 투명하다. (최상품의 삼보향초)
3) 신상품 금초는 모양이 아름답고 불빛이 찬란합니다.

삼보양초의 종류
1) 원기둥 홈초 (대) 1박스 20개 9만원
2) 돈타레 홈 (중대) 1박스 40개 9만원
3) 밀대 (중) 1박스 50개 8만원
4) 등신불 (소) 1박스 40개..... 9만원
5) 신상품 금초 1박스 40개..... .11만원

▣ 삼보양초는 종도사찰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종단차원에서 공급하여
▣ 품질은 우수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주문은 편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불교용품상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택배비 포함)
▣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주 문 전 화 : 010-9421-0772
사업부계좌 : 농협 301-0121-9593-41 소원사
(사)대한불교삼보종 소원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33년 역사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으로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010-7314-2522

대출기간 기본5년(연기가능) / 근저당설정비 면제
제주도 포함 전국, 단체명의, 종단사찰 모두 가능 !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천 개의 몸을 버리고 부처가 되다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46)

건타시리 국왕의 태자

건타시리 국왕의 태자는 영화(榮華)에 뜻이 없어 호사(豪奢)를 버리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 살고 있었다. 그때에 깊은 골짜기에는 한 마리 굶주린 범이 있었다. 새끼 일곱 마리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눈까지 내려서 어미 범은 새기를 품고 사흘이 지나도록 먹이를 구할 수 없었다. 새끼가 얼어 죽을까 걱정스러워 배고픔을 참고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데 눈이 그치지 않았다. 어미와 새끼는 모두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다. 어미는 너무도 굶주린 나머지 새끼를 잡아먹으려 했다. 이때 여러 신선들이 말했다.

"누가 몸을 버려서 저들을 구제하겠는가?"

신선들의 말을 들은 태자가 말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낭떠러지 끝으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미 범이 새기를 품은 채 눈에 덮여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태자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산꼭대기에 서서 선정에 들었다. 곧 청정한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얻고서 과거의 아득한 겁 동안의 일을 자세히 살펴보고, 미래 또한 그렇게 살펴보고서 곧 돌아와 스승과 5백의 동학들에게 말했다.

"저는 이제 몸을 버리겠습니다."

스승이 말했다.

"도를 배운지 오래지 않았고 지견도 아직 넓지 못한데, 왜 갑자기 아까운 몸을 버리려고 하느냐?"

태자는 대답했다.

"저는 옛날에 천 개의 몸을 버리기로 서원했습니다. 전생에 999개의 몸을 버렸으니, 오늘 버리게 되면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 때문에 버리는 것이니, 스승께서도 기뻐해 주십시오."

스승이 말했다.

"그대의 뜻과 원이 높고도 미묘하여 반드시 도를 얻을 것이니, 다시는 버리려고 하지 말라."

그러나 태자는 스승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다. 스승과 5백의 신선들은 눈이 붓도록 슬피 울면서 태자를 따라 산 벼랑 끝까지 이르렀다. 때마침 그날 부란 장자가 남녀 5백을 데리고 공양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다가 태자가 몸을 버리려 하는 것을 보고 슬피 울면서 역시 태자를 따라 산벼랑 끝에 이르렀다. 태자는 대중들 앞에서 크게 서원을 세웠다.

"나는 지금 몸을 버려 중생의 생명을 구제하겠습니다. 보리를 이루어 금강의 몸과 상락아정(常樂我淨)의 무위법신을 얻어서 제도되지 못한 이를 제도하고, 해탈하지 못한 이를 해탈하게 하고 편안하지 못한 이를 편안하게 할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이 몸에는 무상과 괴로움과 온갖 독이 쌓여 있고, 이 몸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런 몸을 되풀이하며 감미로운 음식과 5욕락으로 공양한다면 이 몸이 죽은 뒤에 은혜를 받을 훌륭함이라곤 없으니 지옥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하며 말했다.

"지금 나의 살과 피로써 저 주린 범을 구제하고 나머지 사리골은 나의 부모가 뒷날 탑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일체 중생의 몸에 있는 모든 병고와 외로움이 전생에 지은 죄로 인해 탕약과 침과 뜸으로 나을 수 없게 될 때, 나의 탑에 와서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하면 병의 경중에 따라 백 일이 되기 전에 반드시 나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약 진실이요 거짓이 아니라면, 여러 하늘들은 향과 꽃을 비처럼 내려 주십시오."

태자가 말을 마치자 하늘에서 만다라꽃이 비처럼 내렸으며 땅이 모두 진동했다. 태자는 곧 사슴 갑옷을 벗어서 머리를 싸매고 스스로 몸을 범 앞에 던졌다. 그러자 어미와 새끼가 태자의 살을 먹고, 모두 다 살아났다. 이때 낭떠러지 끝에 있던 대중은 태자가 범에게 먹혀 뼈와 살이 흩어져 어지러이 널린 것을 바라보고 슬피 울며 크게 울부짖었다. 그러자 그 소리가 산을 진동시켰다. 어떤 이는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땅에 누워 뒹구는 이도 있었고, 어떤 이는 선정에 드는 이도 있었고, 머리를 조아리며 참회하는 이도 있었다. 여러 하늘과 천제석과 사천왕 등과 일월의 하늘들과 수천만 대중들은 모두 위없는 보리의 마음을 내어 음악을 울리고 향을 지피며 꽃을 흩뿌리면서 태자를 공양하고 부르짖었다.

"훌륭하십니다. 마하살타시여. 이로부터 오래지 않아서 도량에 앉으시게 되오리다."

사자(使者)가 두려워하면서 곧 음식을 여러 신선들에게 주고 돌아와서 태자의 어머니인 왕비에게 자세히 위의 일을 전했다. 왕비가 말했다.

"재화(災禍)로구나, 나의 아들이 죽은 것이다."

그리고는 가슴을 치고 크게 부르짖으며 왕에게로 달려갔다. 왕이 듣고는 기절해 버렸으므로 신하들은 왕에게 간하였다.

"태자는 산에 계시오니, 왕께서는 잠시 진정하십시오."왕과 부인과 비후, 채녀, 신하, 백성들이 달려서 산으로 올라갔고, 장자 부란은 마중 나와서 왕에게 말했다.

"태자는 어제 몸을 바위 아래로 던져 자신의 살을 범에게 먹였습니다. 지금은 뼈가 흩어져 어지러이 땅에 있을 뿐이니, 함께 시신이 있는 데로 가십시오."

왕와 왕비를 비롯한 대중이 소리 높여 슬피 울부짖어 산골짜기가 진동했다. 왕과 왕비는 아들의 시신 위에 엎드려 간장이 끊어지도록 슬피 울다가 기절하여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 태자비는 나아가 태자의 머리를 붙들고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말했다.

"차라리 내 몸이 부서져서 남편 대신 범의 먹이가 될 것을."

그때에 여러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태자는 보시하며 중생 제도하기를 서원했고, 무상의 살귀에게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아직 냄새가 나거나 문드러지지 않았으니, 공양을 베푸셔야 합니다.

곧 유골을 거두어 산골짜기 어귀로 나와서 평평한 땅에다 전단향의 나무를 쌓고 향과 소유를 뿌리고 화장하였으며, 사리를 거두어 가져다 칠보탑을 세웠다. 그때의 태자는 훗날의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부왕은 부처님의 아버지이며, 부인은 부처님의 어머니였으며 화장을 한 이는 아난이었다. (〈보살투신반아호경〉에 나온다.)



삽화 · 강병호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㊻



마음먹기에 달렸다

부처님의 형상

우리는 불자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를 순례하면서 많은 부처님(불상)을 친견하게 되고, 그 다양한 형상을 보면서 각 나라의 특징도 알게 되었다. 부처님의 모습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합장 예경하며 공양물도 올린다.

흙으로 만들어진 불상이거나 동으로 만든 불상, 돌로 만든 불상, 또는 목재로 만든 불상 등 여러 종류의 불상은 실상(實相)의 부처님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 형상을 통해 살아계시는 부처님을 친견하는 마음으로 모신다. 하지만 그 부처님을 부처님이 아닌데 왜 절하느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비록 그림일지라도 불상을 보면 부처님이란 생각으로 불상을 보게 되고 부처님이란 글자를 보아도 우리는 부처님이라는 생각에서 다른 시비(是非)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부처님을 크게 모시면서 세계 최대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또 그 곳이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불상이 커야만 반드시 영험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내가 처녀시절 난생 처음으로 이웃 노보살님들을 따라 통도사 백운암에서 삼일기도를 한 일이 있었다. 절은 영취산 깊고 높은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힘들게 올라갔으며, 그곳의 암자는 아주 작았고 부처님도 작은 유리관 속에 모셨다.

불상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들 군대보내는 부모마음 다 같아

노 보살님들은 새벽 세 시가 되자 너무도 추운 정월이었는데도 개울가에 꽁꽁 얼은 얼음을 방망이로 깨고 찬물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로 알고 따라서 했었다. 머리는 금방 얼어붙어 빗이 내려가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 했는데, 노보살님들을 따라 절을 하고 있을 때 머리에서 덜거럭 덜거럭 소리가 나더니 방안의 따뜻한 온기와 절 할 때의 열기로 얼음이 녹아내렸다. 나는 이 작은 불상 앞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궁금했고, 나는 아무 뜻도 모르고 노보살님들을 따라 절을 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나서부터 나도 모르게 매일 조석으로 집 앞 대각사에 가서 백팔 배를 꼭 해야겠다는 서원을 세우게 되었고 실천에 옮겼다. 그렇게 백일을 기도하는 동안 청년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함께 활동 하게 되었다.

그 후 남해 보리암에 갔을 때도 이곳 역시 작은 법당에 작은 불상이 모셔져 있었다. 이곳은 우리나라 삼대관음성지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며 간절한 기도로 밤을 새우는 곳이다. 나도 또한 그 속에서 신심으로 부처님의 가피도 알게 되었고 불자로서의 삶이 더욱 성숙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부터 매일 절에 갈 수가 없어 작은 불상을 방 한 켠에 모시고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매일 백팔 배와 사경을 했다. 아이들에게도 매를 드는 대신 백팔배를 시켜 부처님 품속에서 자라게 했다. 사람들은 "집에 부처님을 모시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미신으로 믿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소풍갔을 때나 여행에서 부모님께 귀한 선물이라며 불상을 사올라치면 그마저도 집에 불상을 두면 큰일 난다며 아이를 나무라며 절에 다시 가져와 몰래두고 가는 어리석은 불자들이 있어 안타깝다.

삼귀의례와 오계를 지키고 육바라밀을 행하며 사홍서원을 이루려는 의미를 늘 기억하고 집집마다 불상이 아니면 '佛' 자 한자라도 걸어두고 내가 누구인지를 느껴보고, 오늘하루도 내게 어떤 잘못과 허물이 있었는지도 살펴보며 기도와 참선으로 바른 불자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 자녀들을 불교 속으로 끌어 들이지 못한다면 미래의 한국불교를 어떻게 말 할 수 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소중한 인격과 인품으로 자랑스러운 불자를 키움이 가장 큰 공덕이 아닐까 싶다.

부모의 마음

TV에서 탤런트 이동준의 아들 이일민의 이야기가 소개 되고 있었다. 가족의 화기애애한 행복한 생활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곧 군대에 가야하는 아들에게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엄마의 마음은 여느 엄마와 다를 바 없었다. 아들 말만해도 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는 것을 보고 가슴이 짠해졌다. 아빠인 이동준은 남자여서일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첫 번째 순간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였고, 두 번째는 아들이 군대에 가는 영장을 받았을 때라고 했다. 그것도 해병대를 간다고 하니 아들이 너무도 믿음직하다고 했다. TV를 보면서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 이렇게도 다를까. 생각했다. 아들이 군대에 가기 위해 머리를 깎으러 이발소에 갈 때였다. 함께 따라나선 아버지는 바리캉을 받아 손수 아들의 머리를 밀어 주었는데,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 씩씩하던 아버지도 별 수 없었다. 아들은 시원히 깎긴 머리를 어루만지며 서운한 마음과 어색한 듯 미소를 지으며 "아이 추워"라고 했다. 머리를 깎은 아들의 모습을 본 엄마는 "더 애기 같다"며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의 눈엔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아들을 보는 마음은 마냥 어린 아이 같아 보이는 모양이다. 입대날이 되었다. 전국의 많은 부모님들의 환송을 받고 입대 하는 젊은 청년들 속에 아들 일민이도 있었다. 그리고 이 많은 부모님들 속에 일민이의 부모도 내내 아들을 지켜보며 연신 힘내라고 파이팅을 외쳐 주면서도 계속 눈물을 훔쳤다. 오늘은 아빠도 어쩔 수가 없나보다. 그동안 든든하고 대견하게만 생각했던 아들을 떠나보내는 이 순간만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나는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부모이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라도 부모라면 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봉행

대법사 창건 기념 철야정진기도

약사기도도량 대법사
창건을 봉축하며
중생구제의 서원으로 철야정진기도를
봉행합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불자님들의 수희 동참 바랍니다.











700고지 정상 약사기도도량 대 법 사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 2리 109-1번지

몸 아픈자 몸 치유하고
마음 아픈자 마음 치유하고
실패한 자 다시 일어 납시다.

일 정 | 매주 토요일 철야기도
오전 11시 시작

입 제 | 첫 철야기도 2013년 11월 2일

문의 및 접수 | 033)342-3372
070-4155-3372

행



대행 스님

못났든 잘났든 이 세상 나온 보람 있게 당당히 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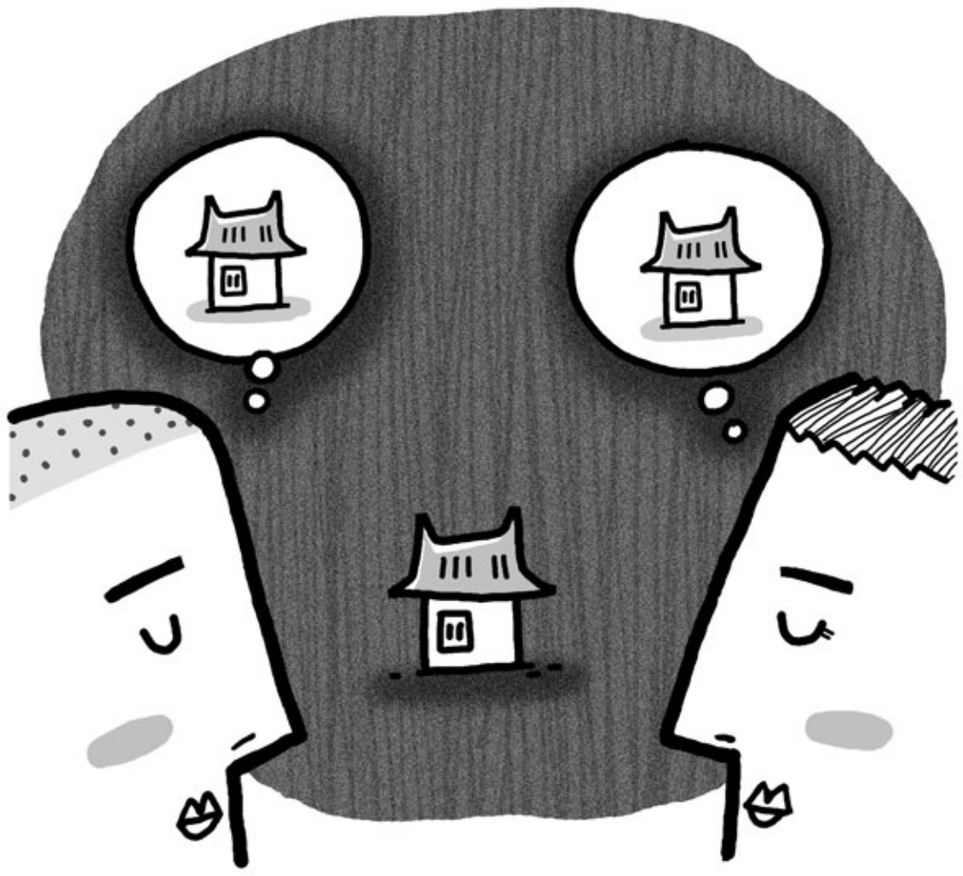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 오늘 오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증득하지 못하고 오계를 방편으로만 설하고 방편으로만 받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둘이 아니며 둘이 아닌 까닭에 부처님의 온 누리의 그 뜻이 한 찰나에 서리니, 오계를 받은 분들은 앞으로 더 오계를 받을 필요가 없고, 첫째는 악한 병고에 휘달리지 않을 것이고 두번째, 모든 이 한마음으로서 돌아가는 그 공부에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여우 꼬랑지라도 봐 줘야 물리가 터지고 충전이 되듯 우리가 산 뜻이 그대로, 전력과 자력과 통신력이, 그리고 광력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오계입니다.

세번째, 자녀들을 기르고 어머니 아버지로서 위로 부모를 모시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이 험난한 세월 속에서 오계 받은 사람이 한마음을 내면 그 마음의 그 뜻이 서로서로 전달되지 않으면서도 전달되면서 이어진다는 그 밝음의 불빛! 여러분은 그저 계만 준다 하면 돈을 내고 가서 계를 받는데, 만약에 중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계를 준다 하고 계첩을 만든다 하면 그것은 엄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잘 생각하시고, 이 계첩이나 또는 오늘 서로 계를 주고받은 그 뜻을 마음으로 새겨야지 물질로써 주고받은 그런 걸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준 사람도 책임이 있고 받은 사람도 책임이 있고 부처님의 그 뜻에도 책임이 있으니 여러분은 잘 생각해서 그 계를 지키도록 하시며 또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넷째는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간다고 하죠? 그러나 오늘 이 오계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만약에 승천하는 길이, 천당길이 지금 청와대라면, 비유하는 겁니다, 청와대에는 근거가 없이는, 표를 안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계를 받은 뜻의 그 확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만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방편으로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나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책임이 있는 것은 내가 만약에 거짓으로 했다면 내 책임이 아주 클 것입니다. 내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것은 여러 신도님들의 돈을 받아서 만약에 허탈히 하면서 거짓으로 설했다면,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서 여러분에게 계를 설하지 않았다면, 내가 구렁이가 돼서 그 비늘마다, 여러 신도님의 의식이 그 비늘마다 들어서 그것을 내놓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막대한지 여러분은 깊이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한테 계를 설한 것을, 나는 주는 사이 없이 주었으니 여러분도 받는 사이 없이 받아서 오직 뜻으로 간직하면서 그것을 허탈히 생각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지금 선풍 한 것이 뭐냐 하면 각 절에서 계를 준다 하면 그저 무조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가서 받는 것을 능사로 생각하시는데,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계를 허탈히 거짓으로써 방편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주었다면 그건 한데 떨어지는 설이다." 이런 문제입니다. "한데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데 떨어지지 않게 하며 오계를 설하되 한데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있으셨던 그때 그 시절의 그 뜻은 오늘날까지도 생생하게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다.

삼천 년 전이 오늘이요, 삼천 년 후가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자체에서 오늘도 찰나찰나 공해서 변해 돌아가고 부서지고, 모든 게 찰나찰나 늙어지고, 젊었다가도 자라면서 늙어지고 없어지고 또 생하고 이러는 시점에서, 우리는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한마음으로서 한마음에서 나오는 걸 한마음에다 되입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진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계 받은 사람이 딴 데 가서 또 좋을 줄 알고 계를 받으면 여러분은 오늘의 그 계 받은 게 무효가 될 것입니다. 애를 써서 피땀을 흘리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벌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단 1불을 쓴다 하더라도 허무하게 써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어저께도 가만히 보니까 이 장소가 좁습니다. 하지만 좁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옹기종기 앉아서, 또 옹기종기 앉아 있지 못하면 저기서라도 들으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살림이 군색한데 이 절에서 크게 한다고 집만 넓히고 그런대서야 말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시일반으로 정성스럽게 되는 한 넓히자는 거지, 여러분이 집이 없이 굶주리면서 이 절간을 넓히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군색하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병고에 휘달린다면 이 못난 중 역시 마음이 아픕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또는 병고가 없어지고 가난이 없어지고 가환이 없어지고 업보가 무너진다면 여러분의 그 밝은 마음과 내 밝은 마음이 지속되면서 아마 웃음으로써 꽃이 필 것입니다.

우리 중들이 목탁만 쳐서 중이 아니고 머리를 깎아서 중이 아니고 옷을 입어서 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시간 나는 대로 자기 머리를 자기 채찍으로 치면서, 오늘도 자기 채찍으로 자기 머리를 쳤습니다. 자기 장삼 자락의 그 순색을, 그대로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중심과 중도와 중용을 그대로 실천화시키는 이런 보람 있는 오늘의 이 깊은, 진실된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 중들이 또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태어난다 또 죽는다 이런 마음도 없이, 끝간 데 없이 여러분의 심부름을 싫다 안 할 것입니다. 난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따라서 지속되기도 하고 반 길을 가다가 반 길에 끊어질 수도 있고 현실에 한 발짝도 내밀지 못한 채 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오계를 준 오늘, 내 책임도 있느니만큼 여러분 앞에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이 오계 받은 것이, 그리고 계첩을 받은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거짓이라면 여러분이 한번 지켜보세요. 이 부처님의 뜻이, 이 삼라만상 우주 세계, 이 세계가 말 없이 바로 말이 전달되고 손 없이 손이 온 누리에 꽉 차 있고 걸어다님이 없이 그 평발을 어디고, 바로 부처님의 발은 한발로 디뎠습니다. 엄청난 이 도리를, 광대무변한 이 도리를 여러분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타의에서 구하는 것은 미신짓이요, 자의에서 구하는 것은 진실한 정(定)에 드는 바로 참선입니다. 여러분을, 과거에 살던 그 마음, 참마음을 발견하는 옳은 길에, 정에 드는 길입니다. 내가 잠시 살다가 갈 것을 뭘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잠시 낙엽과 같은 것을 그렇게 타의에서 나를 살려 달라고 구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이라면 자기의 마음도 꿋꿋한데 왜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망상도 바로 부처를 이루는 과정이라 생각해야

☞ 29면에서 계속

남한테 빕니까? 왜 남한테 노예가 됩니까? 왜 만날 심부름꾼이 돼야 하고 왜 남한테 구걸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농사지어서 가을이면 추수를 해 들이고 봄이면 또 심어서 또 먹고 되남고, 어려운 사람들을 퍼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 여여하고 부유하게 살지, 왜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그렇게 좁디좁은 골짜기에서 썩은 물이 고이게 만듭니까?

여러분도 못났든지 잘났든지 이 세상에 나온 보람이 있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남의 노예가 될 게 아니라 자신이, 여북하면 자신(自神)이라고 그랬나요. 남의 신에다 빌 게 아니라 내 신에다가, 차라리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신을 믿고 거기에 맡겨 놓고 거기서밖에 해결 못한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쫓기고 쫓으면서, 그리고 밟히면서 이렇게 진화돼서 오늘날까지 인간의 탈을 쓰게끔 한 장본인의, 주처의 주인은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끌어 온 장본인 참자기를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했죠. 어떤 사람이 마누라 넷을 두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놓은 부자인데 죽게 되니까 너무 원통하거든요. 첫 마누라한테 고했습니다. "내가 인제 죽게 되니까 마누라 당신, 나와 같이 갑시다." 하니까 "나는 당신하고 못 가오." 그러거든요. 둘째 마누라더러 또 "갑시다." 하니까 "나도 못 가오. 당신이 좋아했지 내가 당신을 좋아한 건 아니오. 당신이 나를 좋다고 쫓아다녔지 내가 좋아서 당신을 쫓아다닌 건 아니오." 하더랍니다. 당신하고는 영 못 가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셋째 마누라더러 가자고 했습니다. "내가 혼자 가기가 너무 쓸쓸하니 당신이 나와 같이 갑시다." 하니까 "나는 당신하고 같이 가되 묘지 앞에밖에는 못 가고 화장터밖에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러니 또 쓸쓸해서 넷째 마누라더러 그랬습니다. "여보, 같이 갑시다." 하니까 "여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오?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당신과 나와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일 초도 떨어지지 않고 이날까지 살았거늘 올 때도 같이 왔고 갈 때도 같이 가지 그게 무슨 소리오?" 하더랍니다.

그게 누굽니까, 넷이. 첫째 마누라는 내 몸뚱이를 말한 것입니다. 둘째 마누라는 재산을 말한 겁니다. 셋째 마누라는 자식과 부인을 말했죠? 가족입니다. 넷째 마누라는 바로 자기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그거를 비유할 때 첫째 마누라, 그 자기 몸도 같이 가지 못한다이거죠. 몸도 다 내버리고 갈 거예요. 여러분이 쓰다듬고 멋 내고 머리 빗고 목욕하고 바르고 이러던 이 몸뚱이도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둘째, 돈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병까지 들면서 쫓아다녀도, 돈이 말을 하기를 그랬거든요. "당신이 좋아서 쫓아다닌 거지 내가 좋아서 당신을 쫓아다닌 게 아닌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쫓아가겠소?" 가족들도 보세요. 가족들을 아무리 애지중지하고 기르고 내가 쓴 것을 먹고 단 거를 주고 내가 굶더라도 또 자식을 먹이고, 이렇게 길렀는데도 데리고 갈 수 없어요. 같이 가 주지 못해요.

어저께 그랬죠? 살아서도 다섯 가지를 대신 못해 준다고. 아무리 부모 자식 하더라도 대신 못해 준다고. 또는 부부가 아무리 사랑한대도 대신 못해 준다고. 그렇듯이 그 가족이 화장터나 묘지나 거기밖에는 못 가 준다는 거죠. 그것도 인연에 따라서 한데 합쳐서 짚단 모아서 이렇게 매 놓듯이 비가 오고 천둥이 몰아쳐도 서로 쓰러지지 말고 살자고 인연을 맺은 것이 바로 가족이죠. 그래, 그 가족도 쫓아갈 수 없으니, 바로 자기 주인공만이 이 세상을 같이 살고 자기를 형성시킨 장본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못나게 했든지 잘나게 했든지 자기 작품을 그려서 바로 자기 모습을 턱 형성시켜 놓고 자기가 그 속에 들어서 왈가왈부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몸뚱이가 없으면 무효고, 분별이 없으면 목석이고, 생명이 없으면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 또 무효죠. 그렇듯이 변소에 가도 같이 갈 수 있고 아파도 같이 아플 수 있고 또는 웃어도 같이 웃을 수 있고 사랑을 해도 언제나 일분일초도 떠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주인공밖엔 없는 것이죠, 늙으나 젊으나. 그냥 고독해도 같이 사랑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구경을 가도 같이 구경하고 올 수 있고, 똥을 누어도 같이 똥을 누고요. 허허허…. 참 그런 사랑이라면 능히 할 수 있는 거죠.

한 철 살고 헤어질 거라면 그거 뭐하러 한 철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중들은요, 한 철 살 수 있는 인연들을 맺지 않으려고 다 버리고 이렇게 머리 깎고, 모두가 내가 되고 남이 하나도 없듯이 모든 걸 버리고 입산을 해서 모든 걸 얻어 가지고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그 자체를, 그 능력을, 중용을 해서 보이지 않는 데 중생들이나 보이는 데 중생들이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건질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연비를 하면서도 자성본래불, 여기 이렇게 (등 뒤 액자를 가리키시며) 돼 있죠? 이거 잘 보세요. 그래서 옛날부터도 그랬지만 나 역시 이렇게 말하고 싶군요. 여러분한테 오늘 이렇게 오계를 설하면서 아주 진실하게 또는 거짓 없이, 저 애들이 지금 연비를 했는데 아주 돌아서서 중병을 앓지 않을 거라는 거, 이것만 해도 고마운 걸 말로 할 수 없는데 앞으로 그 인연으로 인해서 죽어도 문이, 천당문이 훨쩍 열린다 이 소립니다. 청와대 들어갈 때 그냥, 그저 (가슴을 짚으시며) 여기 마크 하나 붙였으니까 인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거야, 그냥. 문 닫고 들어오지 말라 이런 소리가 없거든. 그와 같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오계 받은 게 얼마나 중요하고 진실하고 참된 것인지 아실 겁니다. 삼계에 두루 하니 두루 하는 그 모습들이여. 영가들이여. 그 생명 그 자체가 영가들이 따로 없고 현재 생명들이 따로 없는 바로 도심으로서 여여하고, 생활이 실상이니 우리 한마음으로 뭉쳐 그 도리를 알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이, 여러분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일거리가 있으면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것을 다 한마음에다 놓고 거기서밖에 해결할 수 없다 하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사신다면 바로 우리 일상생활이 참선이요, 또 어저께가 없고 내일이 없는, 오늘의 앞뒤가 다 걸림 없이 뚫린 통소와 같이, 앞뒤 뚫린 대나무 통소와 같이,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산다면 그것이 참선이요, 망상이라고 많이 끄달리고 모두 끊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 망상이 바로 부처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끊지 않고 그대로 거기 놓고 들어가는 것이 열반의 참선이라. 열반의 길로 그냥 들어가는 코스라.

우리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은산철벽도 없는 것이고 사방이 막힘도 없고 지붕도 막힘이 없고 모두가 뚫렸어. 사방이 툭 터졌으니 내 갈 길에 걸림이 있으며 내 가는 길에 막힘이 있으랴. 내 마음먹는 대로 내 마음은 거침없이 지구 바깥을 벗어나고 어느 혹성이라도 어느 풀풀 끓는 물 속에라도…. 여러분! '물이 깊어서 나는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어도 그냥 그 의식이 남아 있어서, 이런 공부를 안 하면 그냥 남아 있어 가지곤 '아이고, 저 물에 빠져 죽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못 건너가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죠? 부처님께서도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하죠? 강을 건너는 데도 내가 마음이 체가 없어서 한순간에 빛보다 더 빨리 건너갈 건데도 불구하고 살아생전에 그 의식과 그 참된 마음을 몰라서 그냥 그 의식대로 저 물에 빠져서 죽을까 봐 건너가질 못하는 거죠. 그 의식으로 사니까.

그리고 또 불 소용돌이가 있으면 건너가질 못해요. 그 속에 들어가질 못해. 왜냐하면 그 불 소용돌이가 있으니까 뜨거워서 거기 타 죽을까 봐 못 들어가거든. 그러니 부처님 세계를 맛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곳을 그렇게 건너가지 못한다면 죽어선들 건너가리까? 또 그뿐입니까? 은산철벽이 막혀 있으면 그게 높고 두꺼워서 뚫질 못해서 못 간다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그렇게 넘어가지 못하죠. 귀신들이 득시글득시글하고 독사가 득시글득시글한데 잡아먹힐까 봐 또 못 갑니다. 허허허…. 그러니 그것만 보더라도 네 군데를 다 그냥 못 건너가죠? 살아서 그렇게 못 건너가죠? 청와대도 그렇게 못 들어가게 해서 못 들어가죠. 그게 의식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마음에 체가 없는데 뭐 때문에 강을 못 건너가느냐. 불을 못 지나가느냐. 독사가 있는 데를 왜 못 가느냐. 은산철벽을 왜 못 가느냐.'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 연습시키는 거예요. 죽어도 거기에 걸리지 않게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진실하게 걸어가는 이 참사람의 참뜻을 여러분은 아셔야 하고 자유인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를 아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넉넉하고 지혜 있고 다 물리가 터져서, 마음으로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헤매다가도 그 감옥을 그냥 툭 쳐 버리고 한 찰나에 나서는 그런 당당한 여러분이 되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연비를 하고 이렇게 오계를 여러분한테 설했는데 오늘 그렇게 연비를 하고 오계를 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업이 많아서 두꺼우면 물리가 터지질 않아. 아둔해. 아둔해서 철겹이 됐어. 그러니 그것이 얼른 뚫어지기가 쉬우랴 이겁니다. '그 철겹을 한 그 업이 이 공부를 계속해 나가다 보면 어느 때인가는 그냥 뚫려서 그냥 통과 통과 하게끔 할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연비 받는 분들에게 그냥 그렇게 내린 겁니다. 언젠가는 가볍게 터질 겁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뭉쳐서 돌아갈 때는…. 여러분, 옛날에 유교에서도 이런 말을 했죠. 막대기를 한 줌 해 오라고 그랬습니다. 막대기를 같이 한 줌을 쥐고 꺾어 보니까 안 꺾어지거든요. 회초리 하나를 가지고 꺾는 데는 금방 꺾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두루 하는 마음으로, 포괄적인 마음으로 한마음이 된다면 절대로 누가 꺾고 들어올 수가 없는 집입니다. 그러나 자기 개별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허, 내 주인공 찾으랬으니까 나 하나….' 요것만 생각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왜냐? 포괄적인 전체 우주 삼라대천세계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에 있으며 태양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니라. 이 세상의 대지, 산하대지의 근본도 바로 마음의 근본이니라. 이 뜻을 여러분이 왜 배웠습니까? 이거를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거야 어쩌겠습니까?

(다음 호에 계속)

오계를 받는다는 것은,
삼계에 두루 하니 두루 하는 그 모습들이여, 영가들이여.
그 생명 그 자체가 영가들이 따로 없고 현재 생명들이 따로 없는
바로 도심으로서 여여하고, 생활이 실상이니
우리 한마음으로 뭉쳐 그 도리를 알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위 법문은 1990년 12월 9일 국외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판 일주일 만에 2쇄 발행

천문학자 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의 직지에 대한 단상



직지直指, 길을 가리키다

천문학자 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불교의 정수가 담긴 《직지》를 연기론적으로 풀어낸 《직지, 길을 가리키다》. 접근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지던 선(禪)을 논리적으로 풀어내어, 누구나 쉽게 《직지》에 다가갈 수 있다. 《직지》에 담긴 게송과 선문답에 대한 촌철살인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시공을 초월한 지혜를 열어줄 것이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뛰어넘는 가르침, 선불교의 정수 《직지》
선불교는 더 이상 풀지 못할 미지의 세계가 아니다.

■ 이시우 지음 / 648쪽 / 29,500원 / 신국판 변형 양장

Tel. 02)732-2403~4 민족사

붓다에게 배우는 행복하게 사는 법

붓다의 인생 코칭



불교는 현실적이지 않다??
붓다가 일러주는 직장인을 위한 자기계발의 지침서



비즈니스를 할 때에 감정이 얼굴에 쉽게 나타나는가? 상사와의 갈등에 괴로운가?
현대사회는 수없이 많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정확한 결단이 매순간 요구된다. 이 책은 빠른 결단을 내리는 법, 새로운 부서로 발령 받았을 때 대처하는 법 등, 혼잡한 출퇴근길을 겪으며, 커피와 야근이 일상화된, 고단한 현대인을 위한 붓다의 인생 코칭이다.

■ 우에니시 아키라 지음 · 유윤한 옮김 / 신국판 / 10,800원

Tel. 02)732-2403~4 민족사

화두 참구의 길잡이!
깨달음의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한 선 수행의 필독서!
드디어 5년 만에 재간되다!

원문을 번역하고 현토(懸吐), 주와 해설을 붙인

벽암록 완역판



공안집의 최고봉, 선(禪)문화의 총결산 《벽암록》, 최초의 완역본! 석지현의 명쾌한 해설로 만나다.

■ 원오극근 저 · 석지현 역주 해설 / 신국판 / 145,000원 (세트)

Tel. 02)732-2403~4 민족사

마음의 비밀 – 알기 쉬운 유식입문



유식(唯識)에서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아뢰야식이라고 한다. 마음의 표층에서 생기는 감정이나 사고는 모두 아뢰야식에 축적되어 무의식중에 표정, 몸의 상태로 나타나 외모에까지 영향을 준다. 표층과 심층이 연결되는 비밀코드를 알면 누구든지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책은 갖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마음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표층과 심층이 연결되는 비밀의 코드, 아뢰야식!

■ 요코야마 코이츠(横山紘一) 지음, 김명우 옮김
232쪽 / 10,800원 / 4×6판

Tel. 02)732-2403~4 민족사

불자 세상보기

도박서 벗어나는 것이 부처에 이르는 길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일부 연예인의 인터넷 도박사건이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다. 연예인은 공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규범적인 질책도 있고, 왜 연예인이 이러한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심리적 접근을 시도하는 내용도 있다. 또한 연예인이 많은 수입을 올리면서 인터넷 도박에 잃는 적지 않은 돈에 대범하다는 경제적(?) 접근도 한다. 이와 함께 연예인의 도박사건을 이렇게 요란하게 터트린 것이 어떤 것을 은폐하기 위한 물 타기 작전이 아닌가하는 정치적 시나리오를 펴기도 한다.

여하튼 연예인의 인터넷 도박사건을 두고 이렇게 요란한 것을 보니 우리사회가 과연 풍류 사회가 되었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소위 한류라는 것도 거의가 연예인이 일으키는 바람이 아니던가. 도박에 대하여 약간의 철학적 흉내를 내는 접근을 해 본다면, 인간은 도박적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의 도박성은 선천적이라는 것이라는 주장은 수없이 많으며, 보들레르는 인생에 있어서 참된 매력은 하나밖에 없으니 그것이 바로 도박의 매력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에 대한 경고는 줄기차게 나온다. 독일에는 도박을 악마의 일과로 보는 격언도 있다.

사는 자체가 도박 같은 생각이 들 때도 많다. 주식, 채권 등 각 종 경제 행위도 일종의 도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도박이라는 용어로 남을 비난하는 것은 그렇게 쾌활한 일은 못된다. 안타까울 뿐이다. 삶의 여정 속에 어느 정도의 도박적 요소를 인정한다면 도박의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리라. 우리는 오늘날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은 사람들에게 '익명성'이라는 '기게스의 반지'를 주고 있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나오는 기게스의 반지는 반지를 낀 사람을 보이지 않게 하는 마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오늘날 익명성에 숨은 폭력성이나 부도덕성을 설명하는 상징어로 쓰고 있다. 근래의 많은 도박은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박은 그만큼 유혹성이 강하고 중독성도 높다 하겠다.

나는 도박의 독소를 해독하는 지혜로 세친의 〈유식 30송〉을 소개하고 싶다. 유식 30송은 꽤 난해하기로 소문나 있으나 흔히 불교 심리학의 보고로 평가되고 있다. 유식은 마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명하여 마음을 대변혁시키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유식론의 제일 큰 특징은 '아뢰야식'이라 불리는 마음의 제일 밑에 있는 마음 층의 발견이다. 이것을 흔히 '저장식'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아득한 전생부터 쌓아온 모든 경험의 종자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마음 수행의 최종 목표는 저장식에 기록되어 있는 테이프를 지우는 것이다. 저장식의 테이프를 지울 때 우리는 해방되는 것이다.

도박을 이야기하면서 유식론까지 거론한 것이 뜬금없이 느껴질지 모르나 필경 인간의 도박성은 아뢰야식에 있는 종자라고 생각한다. 아뢰야식의 기록을 관찰하면서 이를 지우는 길은 자아에 대한 그릇된 믿음에서 탈피하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줄이고 나아가 제거하는 것이리라.

그러고 보니 도박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닌가. 도박의 독소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부처의 길이 아니던가.

도박으로 돈 따기를 기대하지 말고 도박으로 돈 잃지 않으면 그게 바로 수행의 길이리라. 도박이 불교를 망신시킨 기억이 새삼 아프다.

발언대

제2석굴암 조성 필요한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보도한 석굴암 균열 문제가 연일 이슈다. 문화재청은 전문가를 대동해 안전점검까지 실시했고 '이상 없음'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 제2석굴암 조성 문제이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언제 노화될지 몰라, 제2석굴암 필요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석굴암의 균열이 진행된 것은 오래됐다. 1970년대 때부터 이미 균열을 가 있었다. 석재, 특히 화강암은 그 구조로 인해 결국에는 부서지게 돼있다. 언제 노화돼 석굴암이 무너질지 모르는 일이다.

제2의 석굴암을 만들려는 움직임은 박정희 대통령시대와 2000년대 들어 두 차례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석굴암의 영구성이 없기 때문이려니와 실질적인 신앙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신도들이 석굴암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크다. 석굴암은 신앙의 상징이다. 사람들이 직접 신심을 느낄 수 있는 신행의 공간이 돼야 한다.

제2석굴암은 그러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제2석굴암을 만드는 것은 당대의 복원, 건축기술을 집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모형 석굴암 가당키나 한 일인가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석굴암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사람들마다 다를 것이다. 미술가들은 어떤 숭고한 미적 경지에 압도될 것이요, 불자들은 한층 고양된 신앙심과 깊은 행복감에 젖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석굴암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다. 어떻게 하면 석굴암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서 '제2 석굴암'이란 복제품을 만들어 자신들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세력이다. 제2석굴암이라 하나 석굴암은 제1, 제2, 제3의 석굴암이 있을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모형의 복제품에 불과하다.

제아무리 최신설비를 도입하고 전자모형에 의한 복제라 해도 단지 모조일 뿐, 그것이 원형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그 옛날 1천3백 년 전, 석굴암 조성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불심과 정성을 모독하는 행위요, 나아가 이 나라의 불교사를 폄훼하는 행위이다.

찬반

석굴암 복원 위해서 제2석굴암 건립하자



김종록
소설가, 문화융성위원

제2석굴암 건립은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석굴암 복원을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하다. 이미 본존불 대좌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금은 보존 차원에서 유리벽으로 '격리'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반인들이 문화재관람을 제한당하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 석굴암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직접적 공간체험의 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석굴암 복원의 실험장으로 제2석굴암을 활용할 수도 있다.

모든 문화재는 원형 보존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때 석굴암을 해체수리하는 과정에서 돔을 시멘트로 덧바르는 등 야만에 가까운 훼손이 일어났다. 제2석굴암 건립을 통해 석굴암의 원형복원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석굴암 건립 당시를 고스란히 느껴봄으로써 생기는 종교적, 문화적 체험의 깊이는 단연 압도적일 것이다.

성보 의미는 유일, 보존에 더욱 신경을



강우방
이화여대 명예교수

아무리 석굴암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도 다른 대안을 찾으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성보문화재는 그 자체로 존귀한 것이다. 성보문화재를 복제하는 것은 그 존귀함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성보문화재는 문화재 의미 외에도 종교적 의미 또한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신행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석굴암을 인근에서만 보더라도 신앙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오히려 또 다른 석굴암을 만든다면 현재의 석굴암이 지닌 신앙적 의미가 퇴색될까 우려스럽다.

이번 석굴암 사태를 계기로 문화재청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불교계에서도 무사안일의 자세를 버리고, 소중한 성보문화재인 만큼 그 보존에 각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社說

중앙종회, 비판과 견제 기조 이어가길

조계종 중앙종회가 확실히 달라졌다. 서면으로 대체했던 종무보고도 밋밋했던 종책질의가 없어졌다. 중앙종무기관의 허술한 관리를 짚어냈고, 잘못된 해명에는 매섭게 따져 물었다. 입법기구이면서 중앙종무기관의 견체처인 본래의 모습을 찾은 듯한 모습이다.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조계종 중앙종회 제196회 정기회는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이후 처음 열린 종회였기 때문에 운영방식과 내용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종회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기존의 무기력했던 종무보고와 종책질의가 아닌 활발하고 날선 의원들의 종책질의였다.

총27개 질의가 올라왔으며, 이중에는 당장 조계종에서 혁신시켜야 할 과제들도 상당 수 였다. 대표적인 것이 주지 미임명 사찰 580곳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2400곳의 조계종 등록 사찰 중 20%가량이 주지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는 종단의 허술한 관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점이다.

영담 스님은 공개 서면질의를 통해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아름다운 동행?조계종 출판사의 부실한 예산 집행과 재정 관리에 대해 질의한 부분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이같은 지적은 종책질의가 아니고서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인사안과 의사일정 변경 등 몇몇 사안에서 불교광장과 3자연대가 감정적 대립을 보인 것이 '옥의 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판과 견제의 중심을 잘 지켰다는 평가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일시적인 선거 후유증으로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서운 비판을 할 수 있는 중앙종회가 돼야 한다. 이같은 긍정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필리핀 돕기에 불교계가 적극 나서자

초강력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을 할퀴었다. 지나간 필리핀 레이테 섬 타클로반 일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순간 최대풍속 시속 378㎞, KTX 고속 열차보다 빠른 태풍과 함께 몰아친 해일에는 견뎌낼 재간이 없었다. 천재 지변이다.

주택과 공항, 항만시설이 파괴되고 도시는 쓰레기 더미가 됐다. 무려 1만 2천 명이 넘는 사람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우리 교민도 10여 명이 연락두절 상태다. 의료용품과 생필품은 바닥나고 부상자 구호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구원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필리핀은 현재 무간지옥의 상태다.

이럴 때 우리 불교계가 할일은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동업중생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동참하는 것이 불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조계종의 긴급재난구호봉사대 파견과 1억원 성금 지원 약속을 비롯해 천태종의 필리핀 피해주민을 돕기 위한 전국 자비실천 대법회 개최, (사)로터스월드의 피해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 등 불교계의 활발한 자비 나눔 활동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훈훈함을 선사한다. 현재 불교계 전반에 걸쳐 이러한 나눔 모금은 확산되는 중이다.

필리핀은 6·25전쟁 때 지상군 7천 420명을 파견,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무려 112명에 달하는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 특별한 이웃이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준 필리핀에 은혜를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보은의 나눔에 우리 불교계가 팔을 걷어 부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다는 점에서 이 사회에 큰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우리 불교계는 그동안 이 사회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동업중생의 마음으로 큰 힘이 돼왔다. 이번에도 이러한 자비행이 멀리 레이테 섬에서 발휘된다면 필리핀이 이번 시련을 이겨내고 재도약하는데 큰 용기를 얻고 씩씩하게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생활속에 만나는 부처님 말씀

지혜와 깨달음을 담은 법구경
그 귀한 가르침을 법과에 담았습니다.
과자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귀한 가르침.
부처님 오신 기쁜날, 신도들과 함께
그 참된 뜻을 기리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해보세요.

법과란?

BUDDHA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는 과하지 않으면서 은은한 법과전용 포장지에 포장되어 나가며
법과안에는 법구경의 지혜로움이 적혀있는 슬립지가 있습니다.


쿠키


포장지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법과의 효과

BUDDHA

이미 많은 사칠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법과 슬립지

BUDDHA



[앞면예시]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내용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뒷면예시]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 법구경이
각각 다른디자인으로 랜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법과
法果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